2022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목 차

글볼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내 인생의 첫 봄	**곽용심**	영암군 왕인문해학교	9
엄마	**김창심**	여수시청(횡간도문해교실)	11
배움의 길	**박춘자**	미평종합사회복지관	13
재미진 봄	**최성임**	해남군 꿈보배학교	15
꿈의 시작	**이향균**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부설평생교육원	17
기다림	**박순례**	화순군청	19

도지사상

육구(우리집 강아지)	**박양임**	완도평생교육원	21
엄마냄새	**이이순**	담양군청	23
고마운 당신	**이순심**	쌍봉종합시회복지관	25
흰머리가 탁엤다	**김순심**	고금비전한글학교	27
내 인생의 봄	**최정혜**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29
행복한 노년	**오옥희**	상동종합사회복지관	31
사람 꽃	**정복순**	곡성군청	33
꽃피는 봄날이 이런거였구나	**김천순**	영암군 왕인문해학교	35
무섭지 않아	**김덕순**	광양평생교육관	37
내 인생은 꽃밭	**허삼순**	벌교공공도서관	39

도의회의장상

당근	**김유영**	(사)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평생교육원	41
콩닥 콩닥	**김본심**	보길도 꿈꾸는 학교	43
왕벚꽃	**서이녀**	(사)슬로스쿨	45
시상 별거 없네	**김묘숙**	해남군 꿈보배학교	47
내 마음도 풀내음이 난다	**임명자**	무안군 여성농어업인센터	49
글꽃이 피어난다	**고인례**	섬사랑 평생교육원	51
이름표	**정미자**	여수시청(횡간도 문해교실)	53
제비가 물어다 준 봄	**고초강**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부설평생교육원	55
봄꽃	**박정순**	영암군 왕인문해학교	57
한글 공부	**조희례**	여수시노인복지관	59

교육감상

머리야 공부 잡아라	**김오례**	목포공공도서관	61
집콕에서 해방	**박정순**	목포시노인복지관	63
소원	**서종덕**	쌍봉종합시회복지관	65
함께라서 좋다	**허연순**	곡성군청	67
순심이의 일기	**송순심**	전국 야학협의회 여수지부 상록배움터	69
써보고 또 그리네	**이찬순**	화순군청	71
행복한 내인생	**이이자**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73
내 인생의 봄	**박재철**	여수시청(여수시평생학습관 지혜교실)	75
호박꽃의 봄 이야기	**박양순**	해남군 꿈보배학교	77
농사일 도우라고	**김아순**	무안공공도서관	79

광양시장상

서러움을 딛고 생긴 도전	**정영님**	광양시청	81
우리들의 계절	**김순자**	광양시청	83
당당한 외침	**최원주**	광양평생교육관	85

진흥원장상

세월이 내게 준 선물	**이옥진**	완도평생교육원	87
인생의 봄은 고속도로	**이고려**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부설평생교육원	89
행복	**서연심**	소라종합사회복지관	91
이제는 농협에 가도	**김은경**	무안공공도서관	93
나 살아온 길	**김우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작은도서관	95
손자의 엄지척	**장연자**	고금비전한글학교	97
고목나무	**김순임**	목포공공도서관	99
나에게 화이팅	**이기막**	(사) 여수YWCA	101
학교 가는 길	**박형진**	(사) 여수YWCA	103
공부 씨	**유영신**	곡성군청	105
봄이 오면	**임숙희**	곡성군청	107
봄을 기다리는 내 마음	**김연례**	영암군 왕인문해학교	109
한 몸에 두 지게	**강맹순**	무안군 여성농어업인센터	111
나의삶	**이행자**	상동종합사회복지관	113
봄처럼 나비처럼	**김성례**	문수종합사회복지관	115
젊은 사람들	**조윤엽**	여수시노인복지관	117
공부하면 봄날	**권임순**	담양군청	119
주거도 조을 공부	**조금녀**	화순군청	121
큰 선물	**정종매**	섬사랑 평생교육원	123
바램	**박강순**	목포시노인복지관	125
문해, 지금 나는 봄이다	**정채임**	홍지중·고등학교	127

문해, 지금 나는 봄이다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글봄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9
도지사상 21
도의회의장상 41
교육감상 61
광양시장상 81
진흥원장상 87

2022년 전라남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작품집**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내 인생의 첫 봄

영암군 왕인문해학교
곽용심 | 7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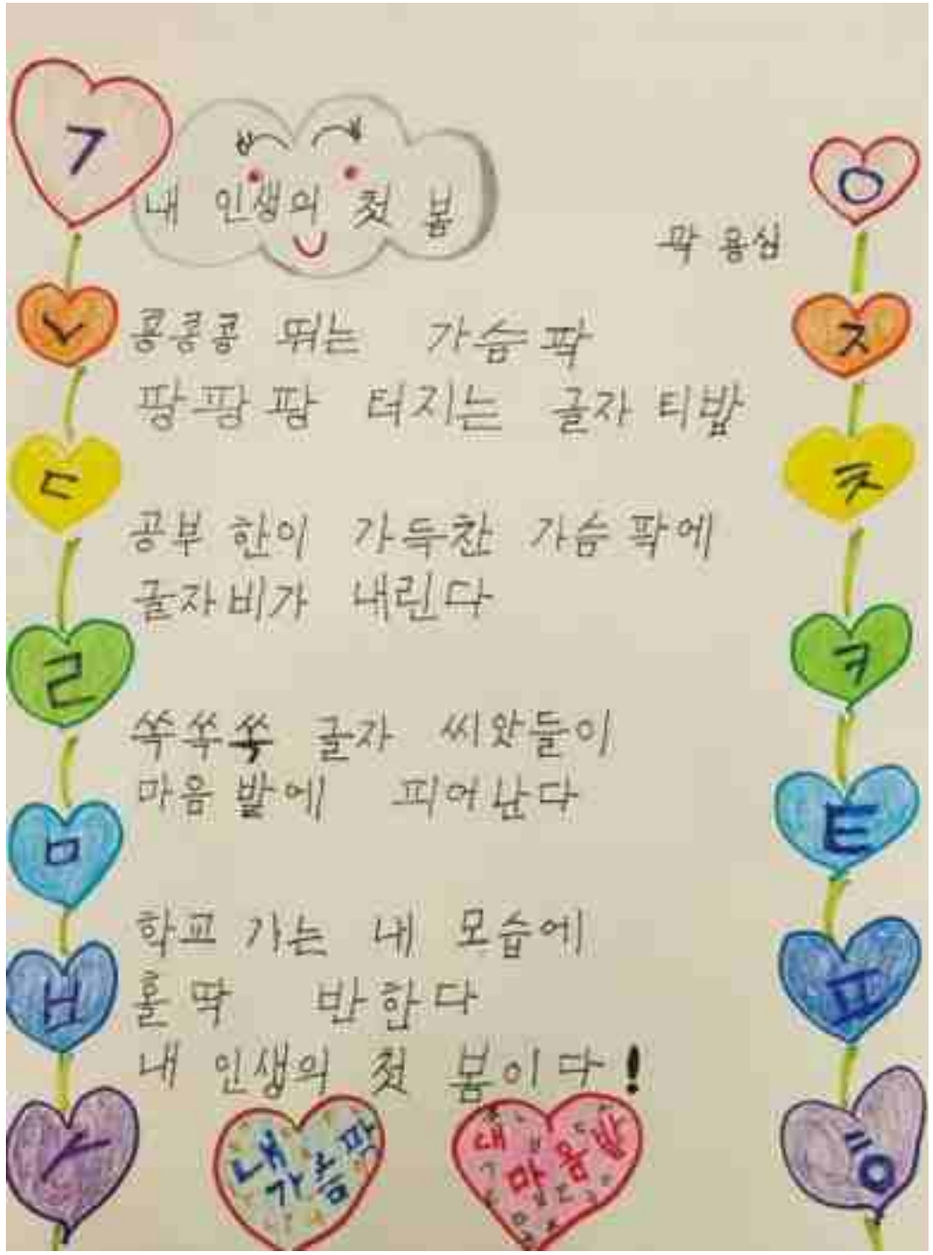
콩콩콩 뛰는 가슴팍
팡팡팡 터지는 글자 티밥

공부 한이 가득찬 가슴팍에
글자비가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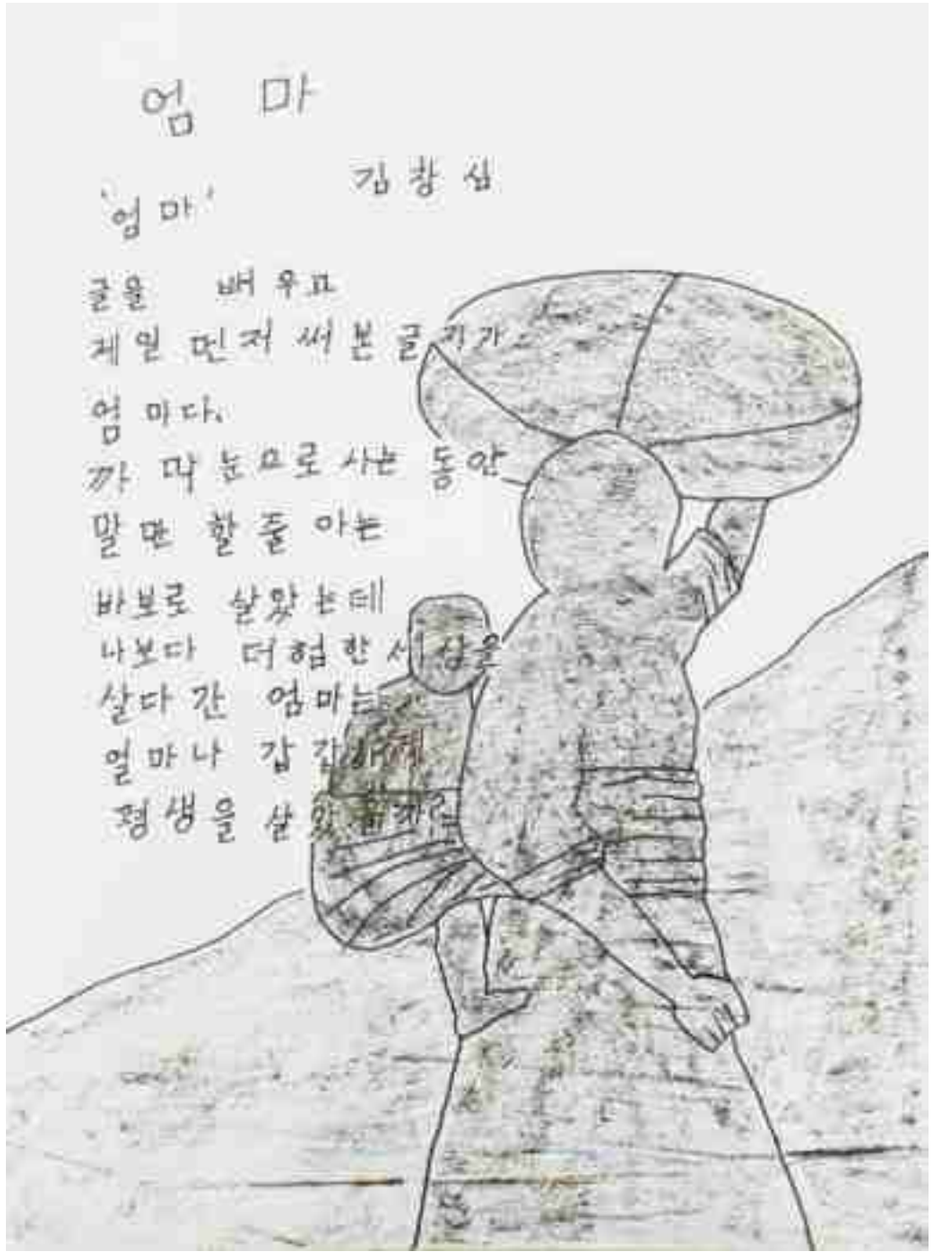
쏙쏙쏙 글자 씨앗들이
마음밭에 피어난다

학교 가는 내 모습에
홀딱 반한다
내 인생의 첫 봄이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글봄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글봄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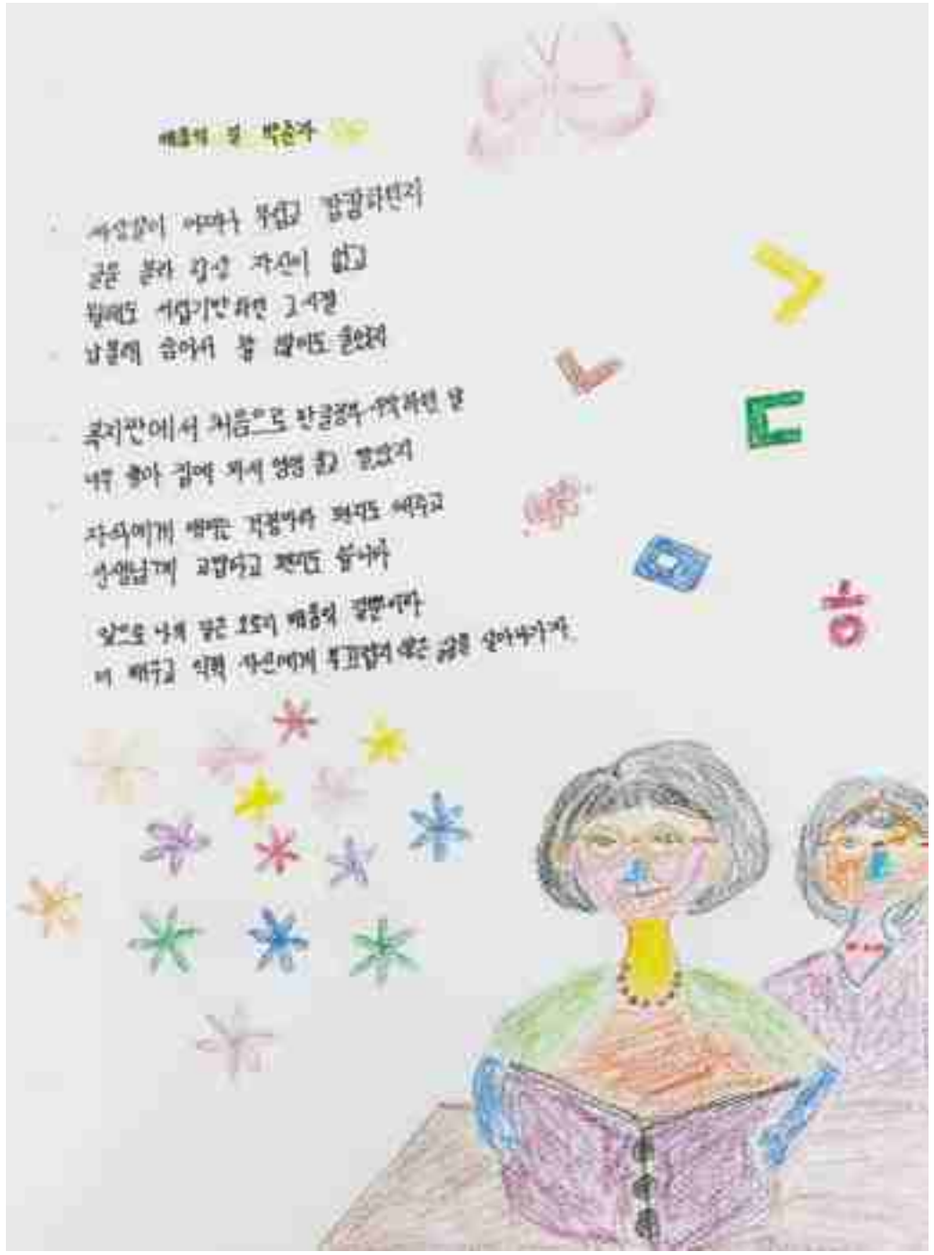


엄마

여수시청(횡간도문해교실)
김창심 | 71세

‘엄마’
글을 배우고
제일 먼저 써본 글자가
엄마다.
까막눈으로 사는 동안
말만 할줄아는
바보로 살았는데
나보다 더 험한 세상을
살다 간 엄마는
얼마나 갑갑하게
평생을 살았을까?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글봄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배움의 길

미평종합사회복지관
박춘자 | 74세

세상살이 어찌나 무섭고 캄캄하던지
글을 몰라 항상 자신이 없고
뭘해도 서럽기만 하던 그 시절
남몰래 숨어서 참 많이도 울었지

복지관에서 처음으로 한글공부 시작하던 날
너무 좋아 집에 와서 엉엉 울고 말았지

자식에게 애미는 걱정마라 편지도 써주고
선생님께 고맙다고 편지도 씁니다

앞으로 나의 길은 오로지 배움의 길뿐이라
더 배우고 익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나가자.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글봄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재미진 봄

해남군 꿈보배학교
최성임 | 7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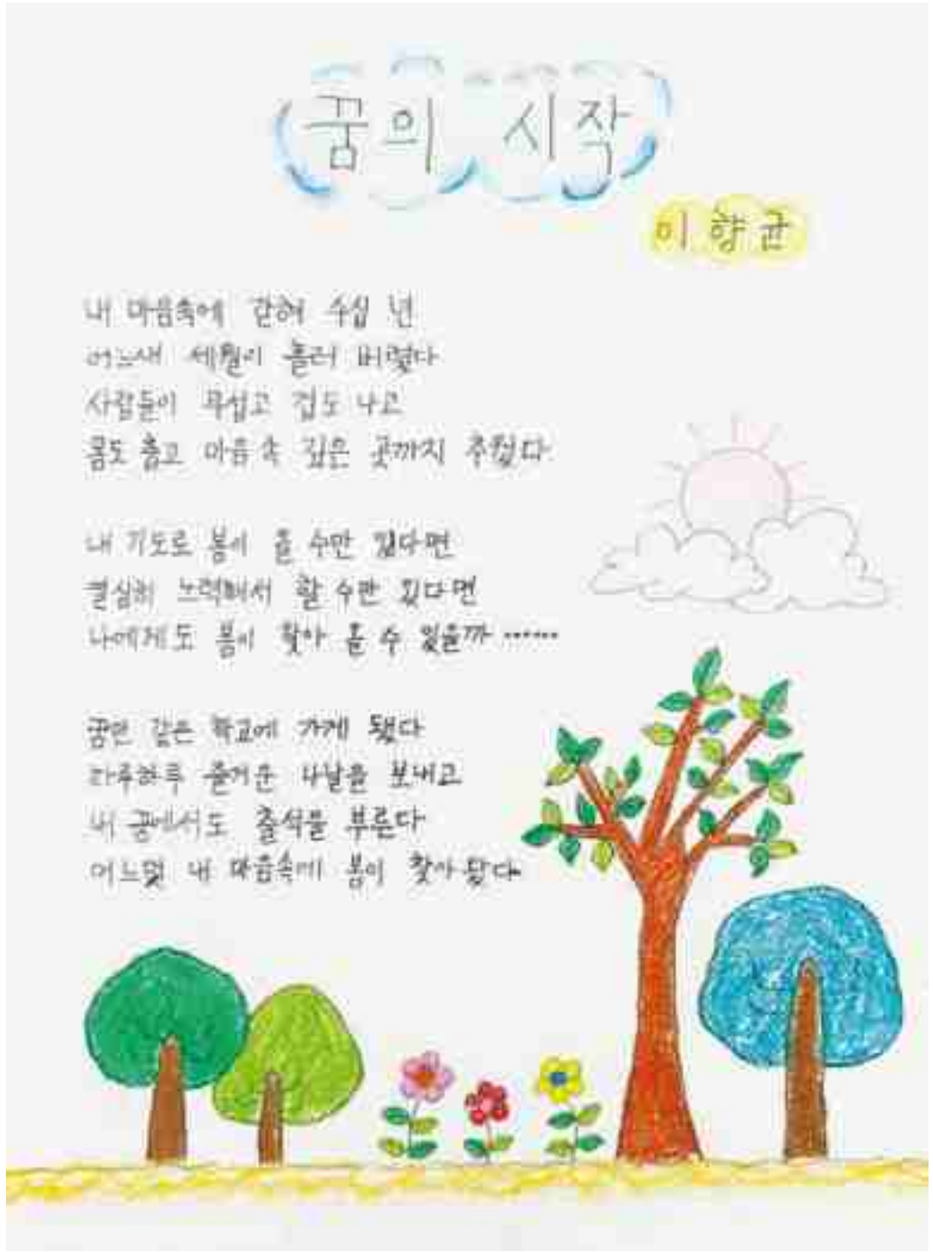
봄이 와도 오는지 모르고 살았는디
선생님한테 봄을 배운 후로는
봄이 봄인지 알았소.

땅끝 가는 금강길42 우리 집 주소
서울, 인천, 광주, 순천 가는 버스
온갖 글자들이 내 눈에 들어오요.

암만 봐도 모르고 살았는디
글자가 보이니 사는 맛이 나고
천하에 부러울 것이 없소.

목빼어 공부할 시간만 기다리다
꽃도 그리고 일기 쓰는 꿈도 꾸는
올 봄은 참으로 재미지요.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글봄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꿈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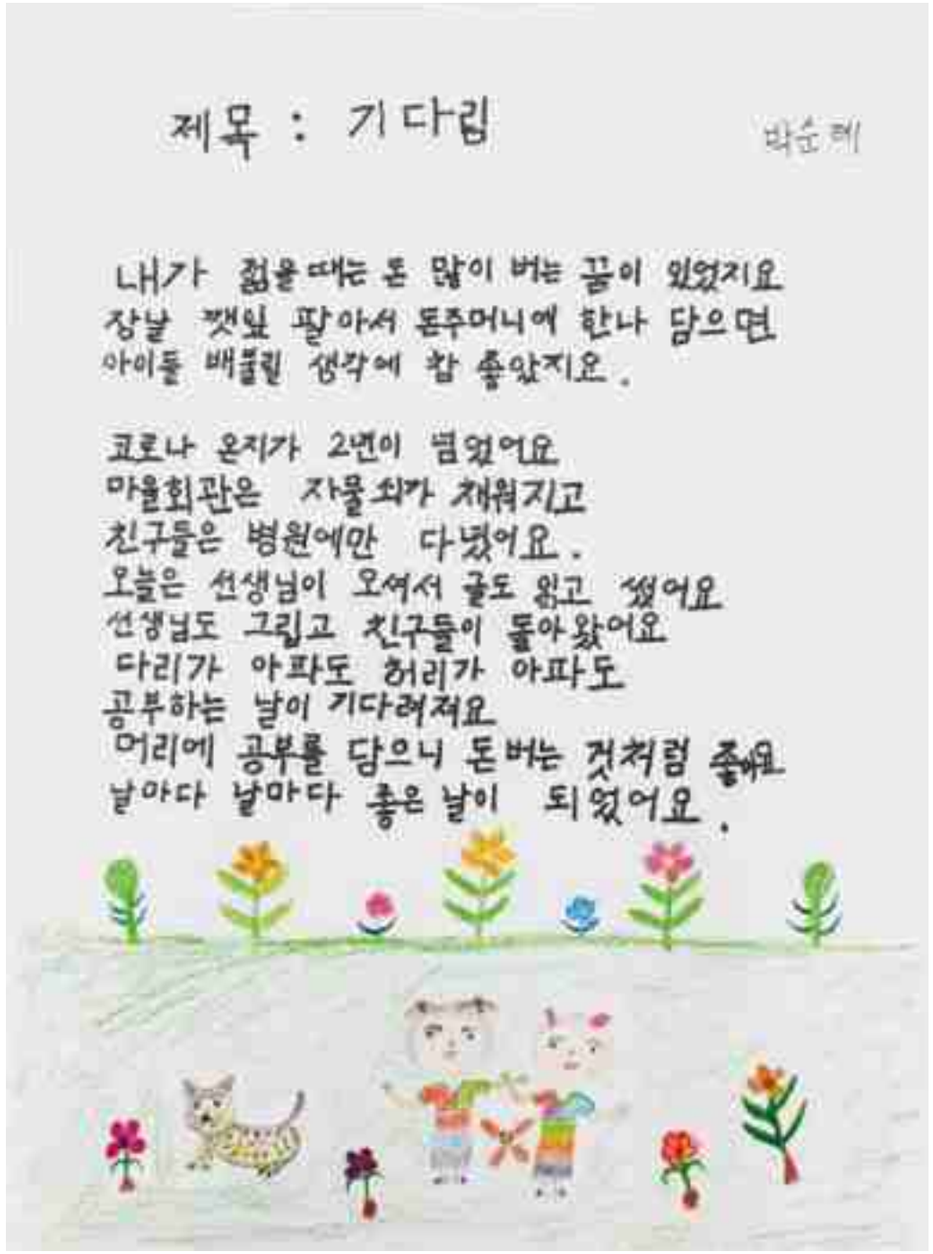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부설평생교육원
이향균 | 48세

내 마음속에 갇혀 수십 년
어느새 세월이 흘러 버렸다
사람들이 무섭고 겁도 나고
몸도 춥고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추웠다.

내 기도로 봄이 올 수만 있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도 봄이 찾아 올 수 있을까……

꿈만 같은 학교에 가게 됐다
하루하루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내 꿈에서도 출석을 부른다
어느덧 내 마음속에 봄이 찾아왔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글봄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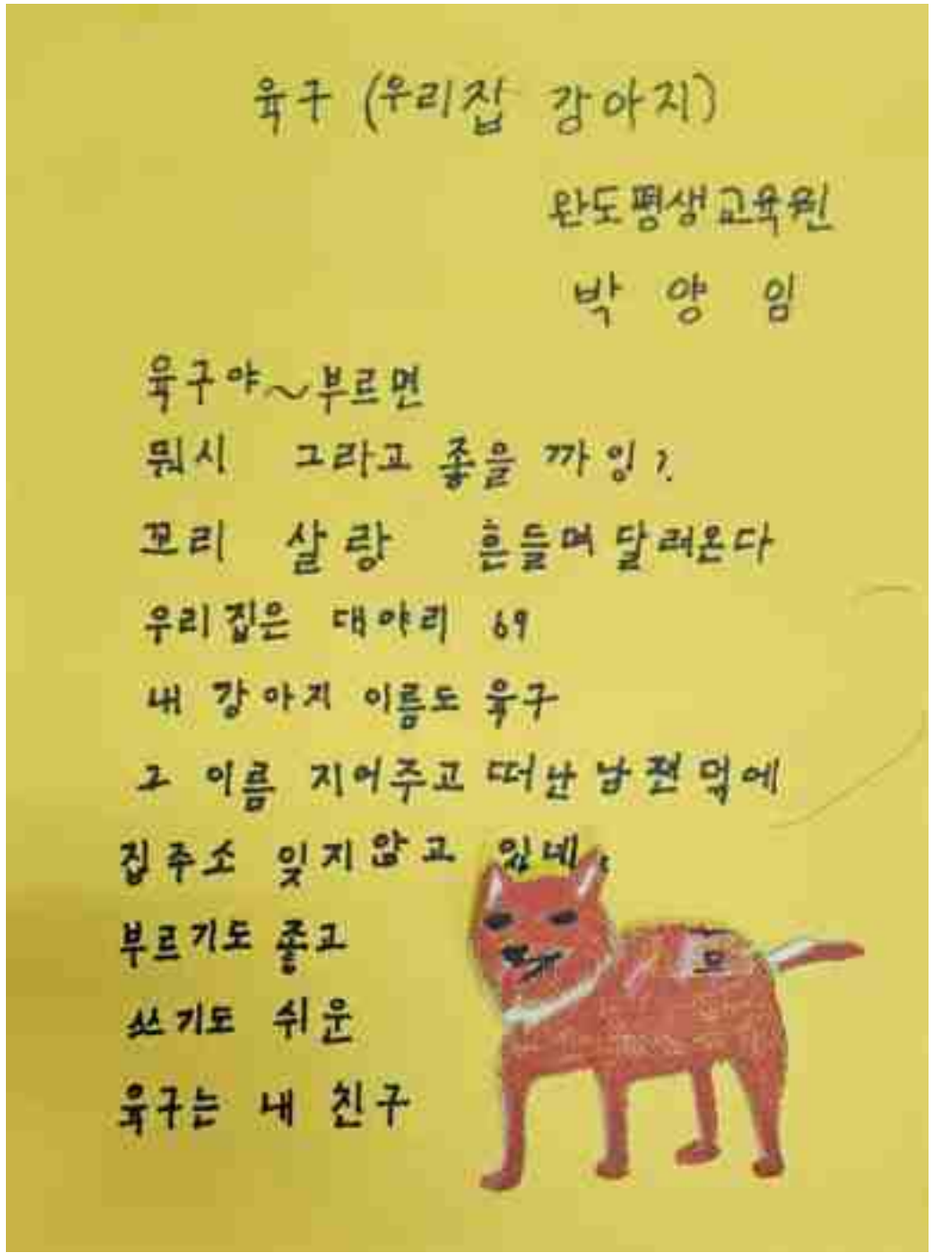


기다림

화순군청
박순례 | 80세

내가 젊을때는 돈 많이 버는 꿈이 있었지요
장날 깻잎 팔아서 돈주머니에 한나 담으면
아이들 배불릴 생각에 참 좋았지요.
코로나 온지가 2년이 넘었어요
마을회관은 자물쇠가 채워지고
친구들은 병원에만 다녔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오셔서 글도 읽고 썼어요
선생님도 그립고 친구들이 돌아왔어요
다리가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공부하는 날이 기다려져요
머리에 공부를 담으니 돈 버는 것처럼 좋아요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었어요.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지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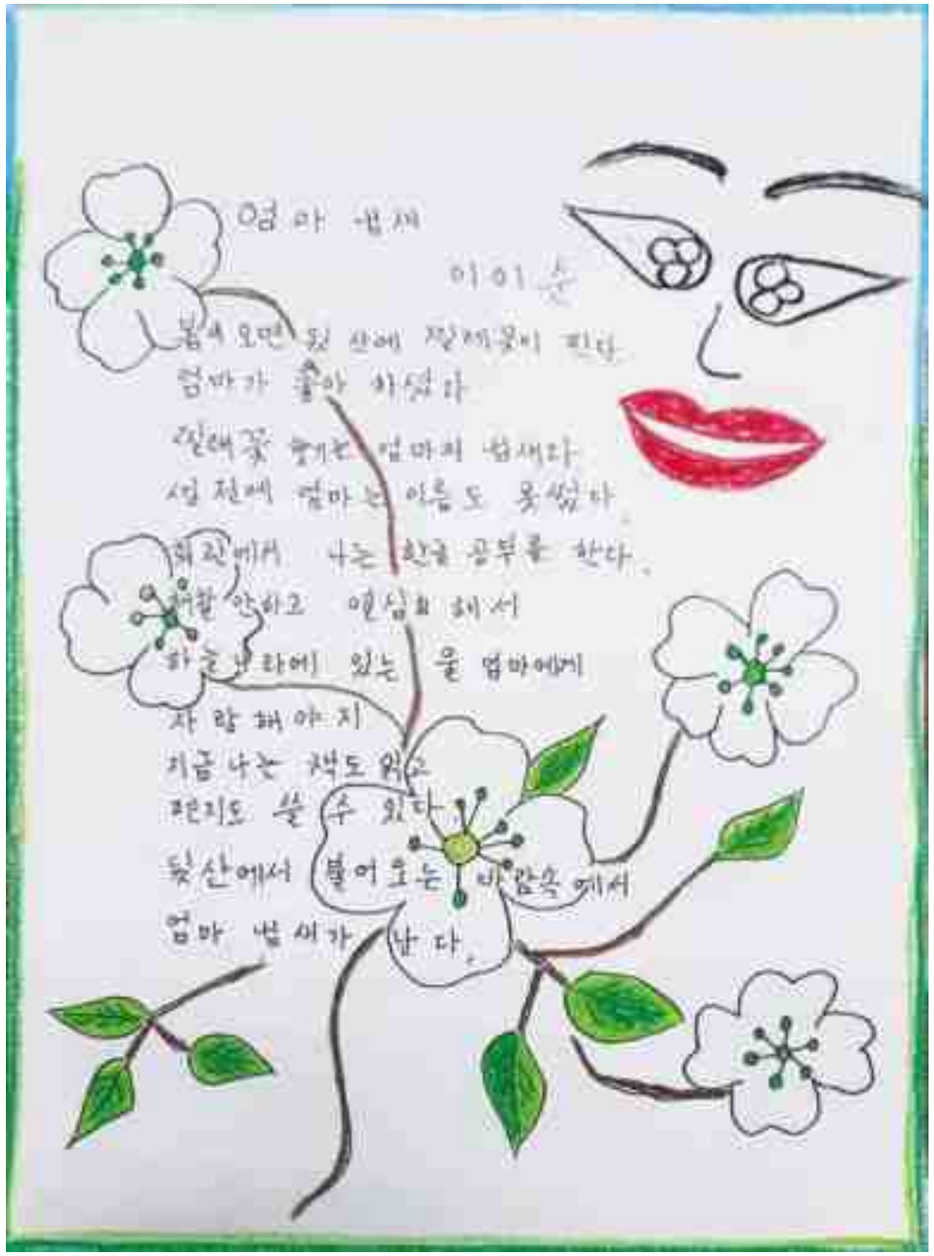


육구(우리집 강아지)

완도평생교육원
박양임 | 75세

육구야~부르면
뭐시 그라고 좋을까잉?
꼬리 살랑 흔들며 달려온다
우리집은 대야리 69
내 강아지 이름도 육구
그 이름 지어주고 떠난 남편덕에
집주소 잊지않고 있네
부르기도 좋고
쓰기도 쉬운
육구는 내 친구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지사상



엄마냄새

담양군청
이이순 | 79세

봄이 오면 뒷 산에 찔레꽃이 핀다.
엄마가 좋아 하셨다
찔래꽃 향기는 엄마의 냄새다.
생전에 엄마는 이름도 못썼다
회관에서 나는 한글 공부를 한다.
해찰 안하고 열심히 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울 엄마에게
자랑해야지
지금 나는 책도 읽고
편지도 쓸 수 있다.
뒷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속에서
엄마 냄새가 난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지사상

고마운 당신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이순심 | 77세

우리 부모님은 배운 분이신데
왜 나만 안 가르치셨을까
그런대로 살아왔지만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자
당장에 불편한 일들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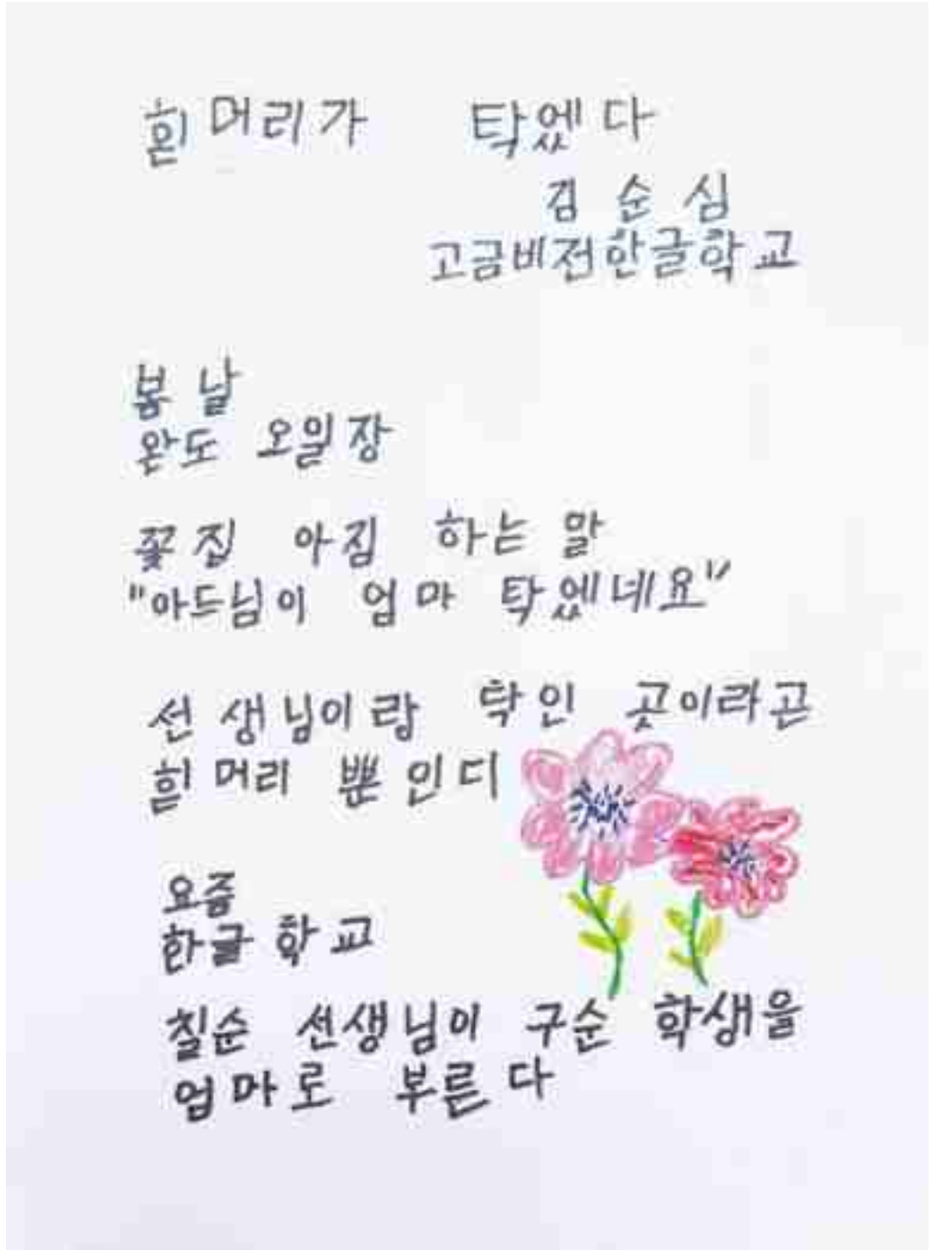
남편 살아 생전에
내게 글자를 가르쳐 주려 했지만
배우기가 어려워 놓치고 말았다

남편이 날더러 글 몰라도
기죽고 살지 말라고 하더라
말로도 자네는 잘살수 있다면서
하지만 힘든 일이 많더라

남편 사진 보며 다짐했다
공부가 머릿속에 잘들어가지
않지만 꼭 배워서
당신한테 가는 길은 잘 찾아가겠다고

내가 편지 쓸 테니
답장 주시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지사상



흰머리가 탁엤다

고금비전한글학교
김순심 | 91세

봄날
완도 오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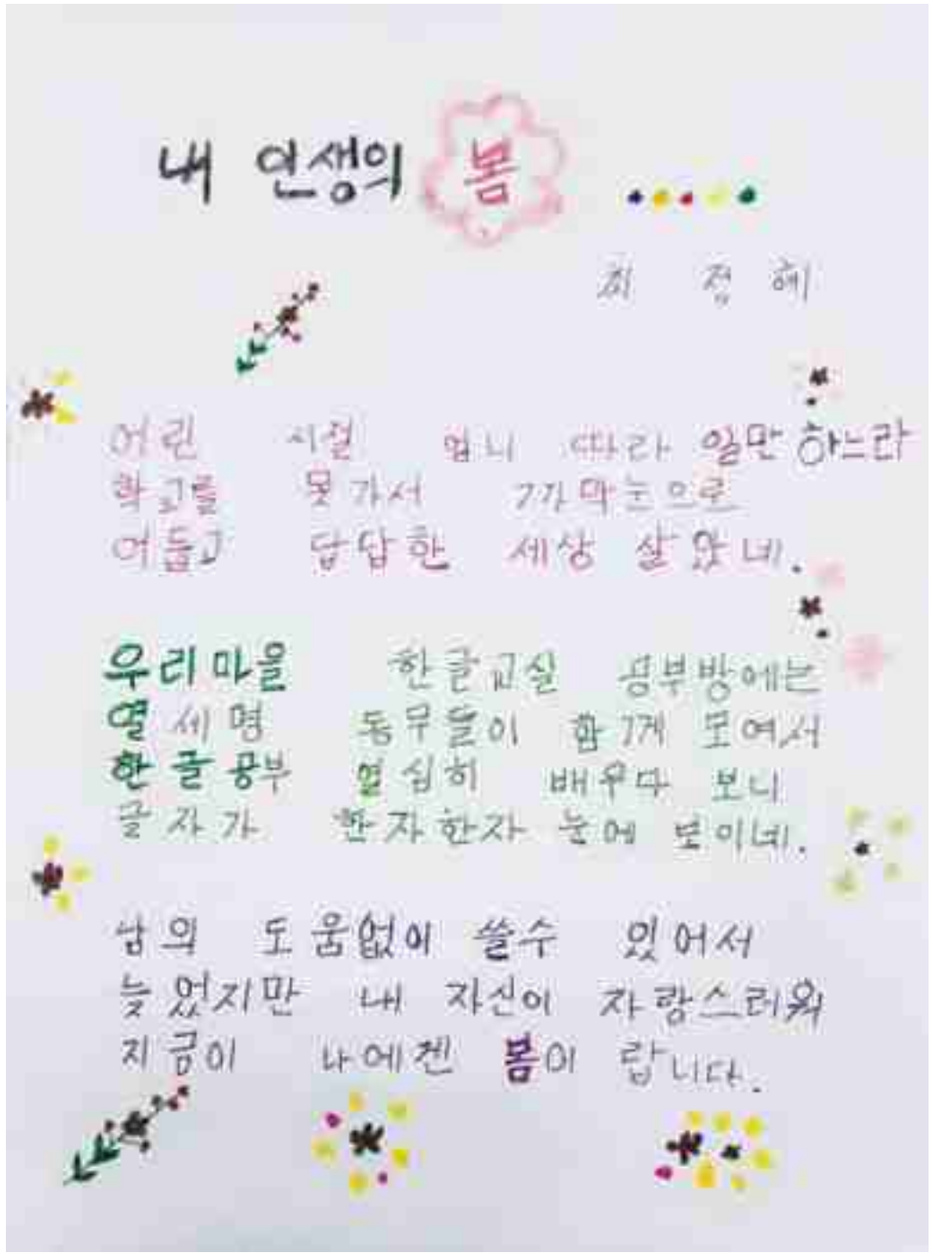
꽃집 아짐 하는 말
“아드님이 엄마 탁엤네요”

선생님이랑 탁인 곳이라곤
흰머리 뿐인디

요즘
한글학교

칠순 선생님이 구순 학생을
엄마로 부른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지사상



내 인생의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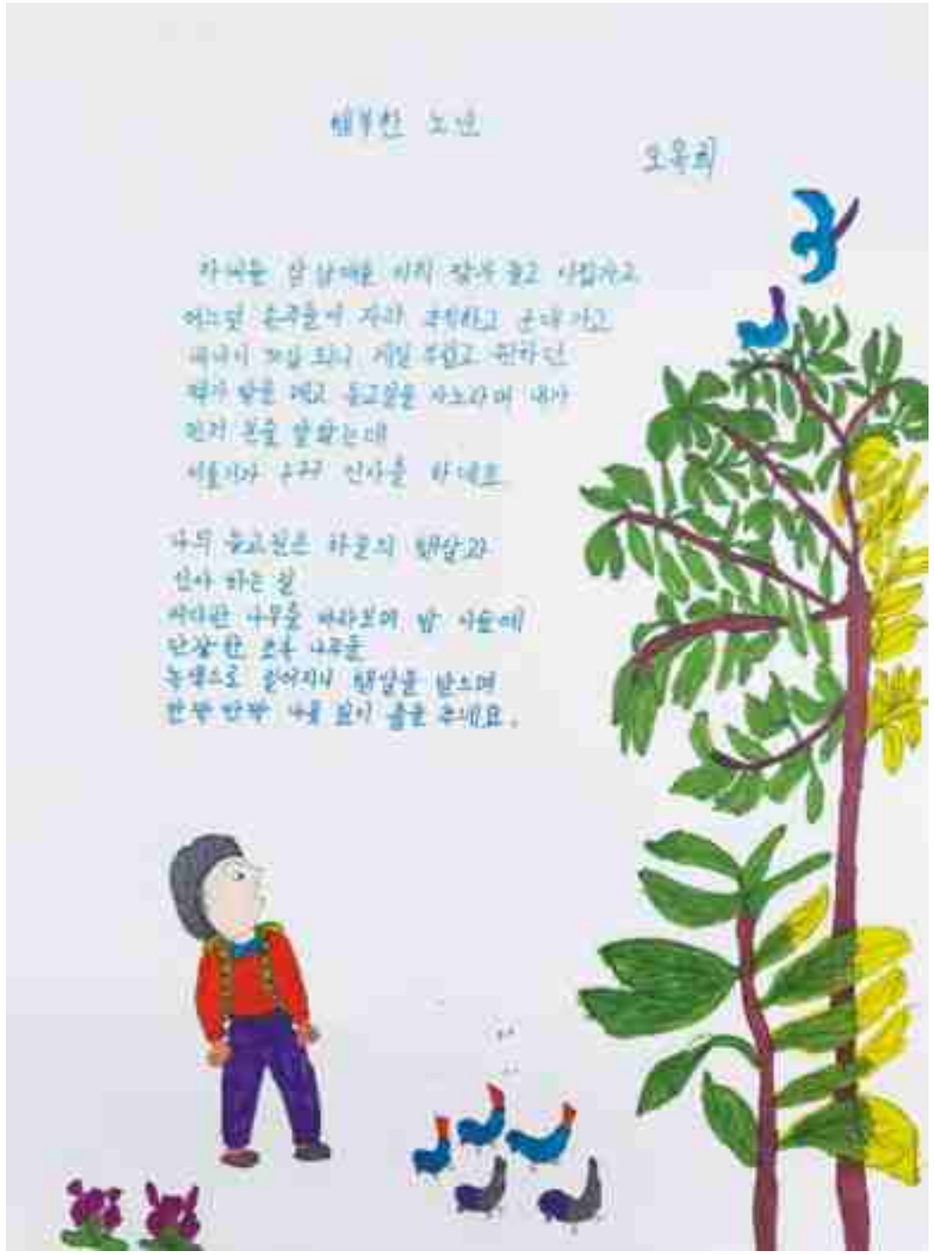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최정혜 | 81세

어린 시절 엄니 따라 일만 하느라
학교를 못가서 까막눈으로
어둡고 답답한 세상 살았네.

우리마을 한글교실 공부방에는
열세명 동무들이 함께 모여서
한글공부 열심히 배우다 보니
글자가 한자한자 눈에 보이네.

남의 도움없이 쓸 수 있어서
늦었지만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지금이 나에겐 봄이랍니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지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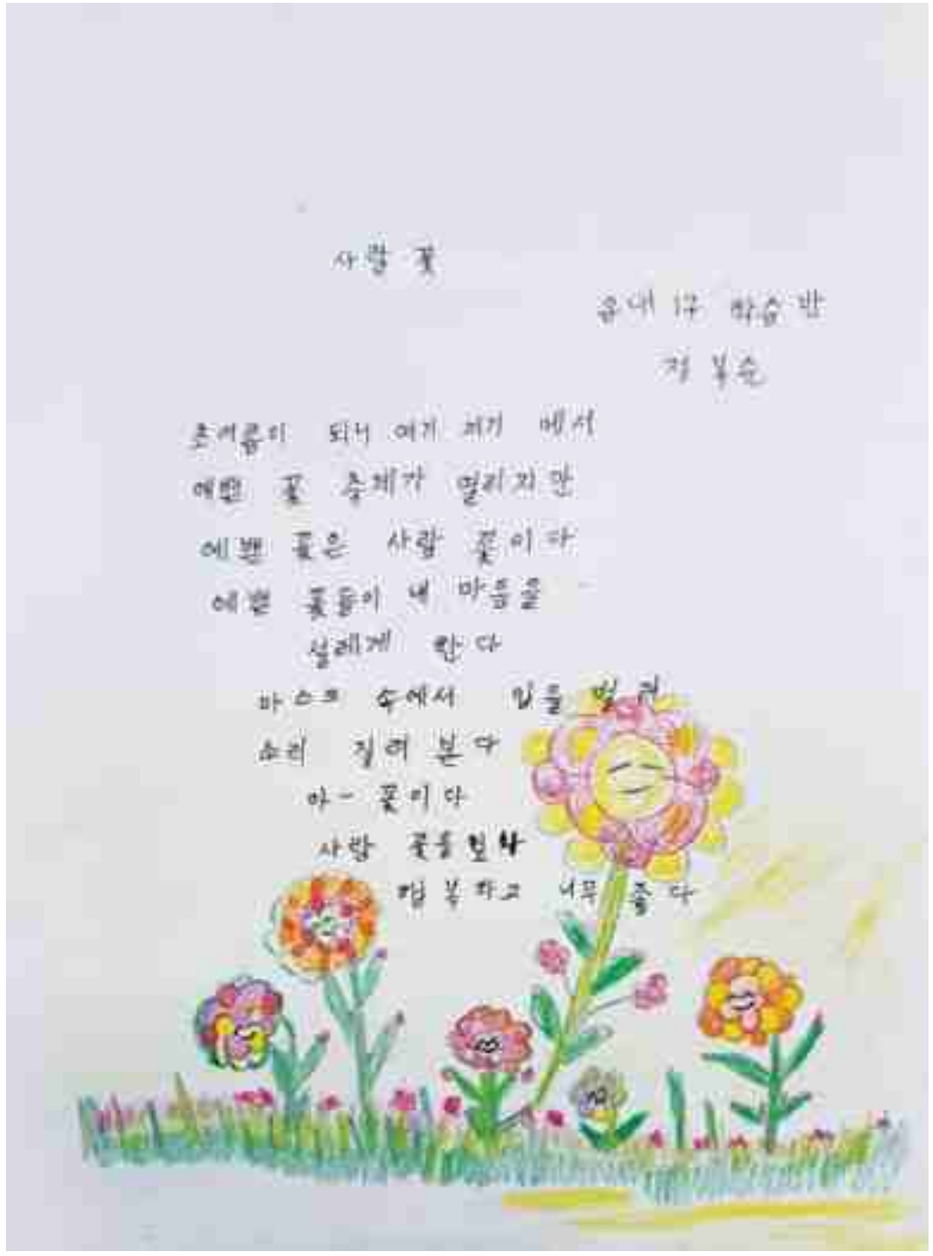
행복한 노년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오옥희 | 75세

자녀들 삼남매를 키워 장가 들고 시집가고
어느덧 손주들이 자라 취직하고 군대가고
내 나이 70되니 제일 부럽고 원하던
책가방을 메고 등굣길을 가노라며 내가
먼저 본줄 알았는데
비둘기가 구구구 인사를 하네요

나의 등굣길은 하늘의 햇살과
인사 하는 길
커다란 나무를 바라보며 밤 이슬에
단장한 초록 나무들
녹색으로 짙어지니 햇살을 받으며
반짝반짝 나뭇잎이 춤을 추네요.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지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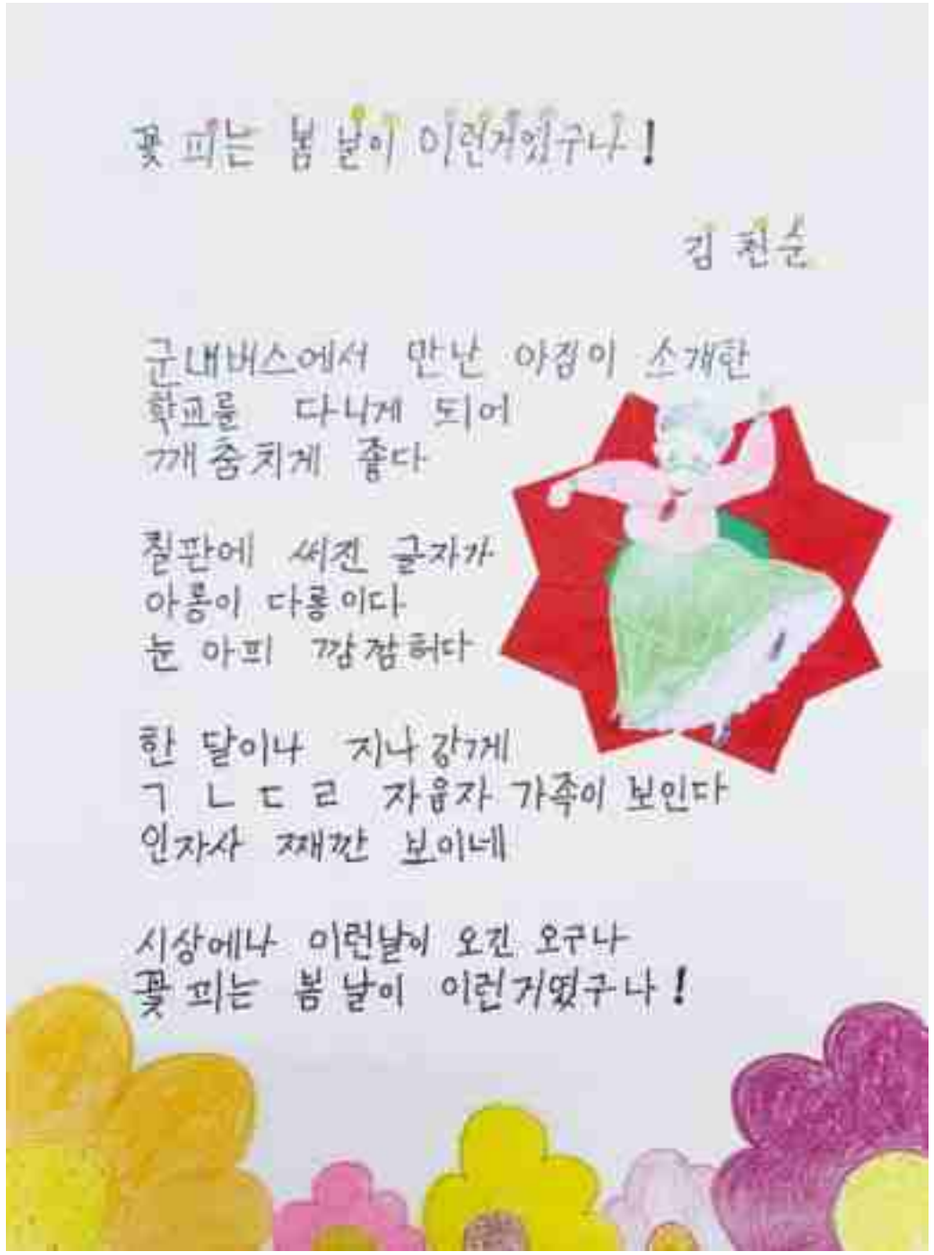


사람 꽃

곡성군청
정복순 | 80세

초여름이 되니 여기 저기에서
예쁜 꽃 축제가 열리지만
예쁜 꽃은 사람 꽃이다
예쁜 꽃들이 내 마음을
설레게 한다
마스크 속에서 입을 벌려
소리 질러본다
아-꽃이다
사람 꽃을 보니
행복하고 너무 좋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지사상



꽃피는 봄날이 이런거였구나

영암군 왕인문해학교
김천순 | 73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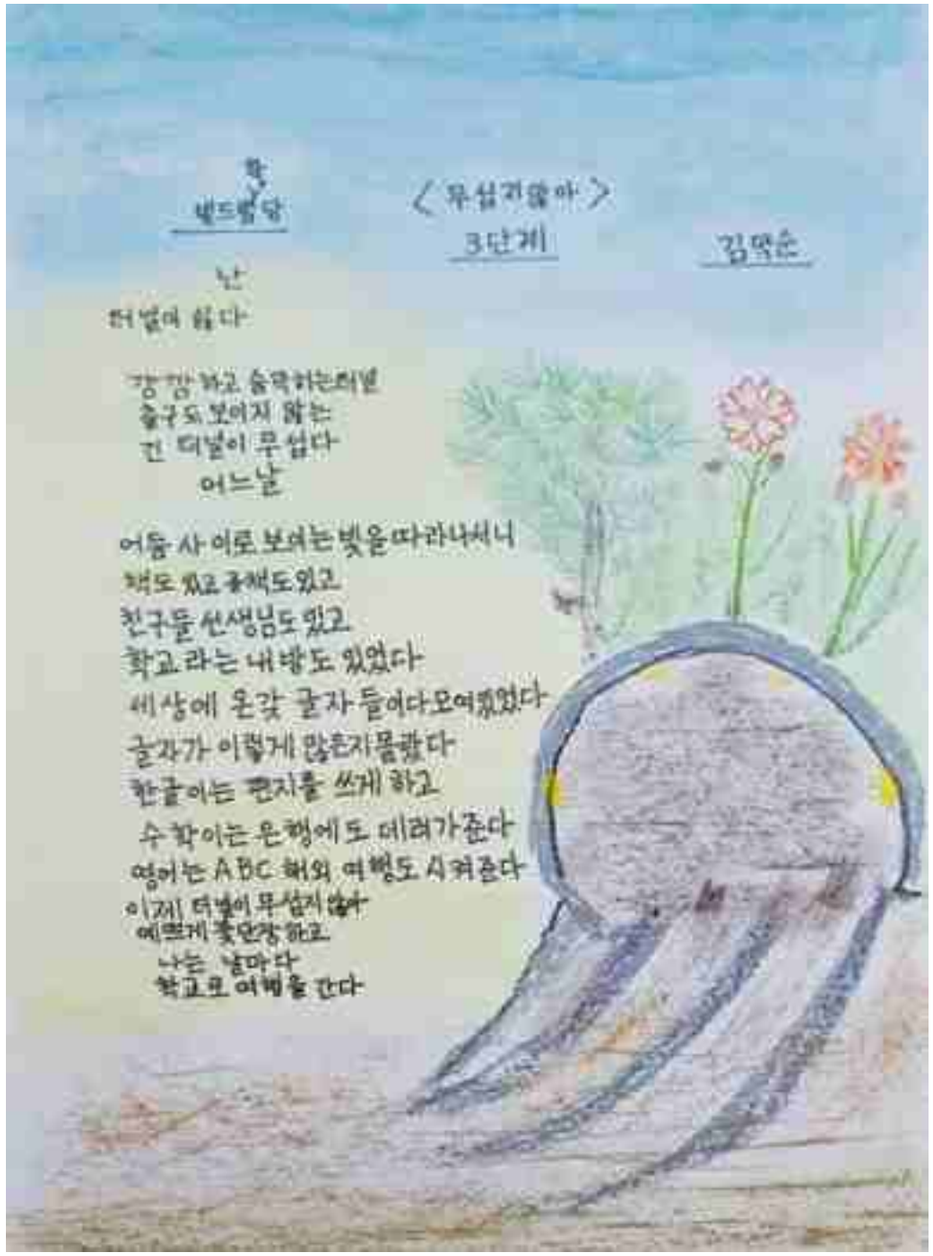
군내버스에서 만난 아짐이 소개한
학교를 다니게 되어
깨춤치게 좋다

칠판에 써진 글자가
아롱이 다롱이다
눈 아피 깜깜허다

한 달이나 지나강께
ㄱㄴㄷㄹ 자음자 가족이 보인다
인자사 째깐 보이네

시상에나 이런날이 오긴 오구나
꽃 피는 봄 날이 이런거였구나!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지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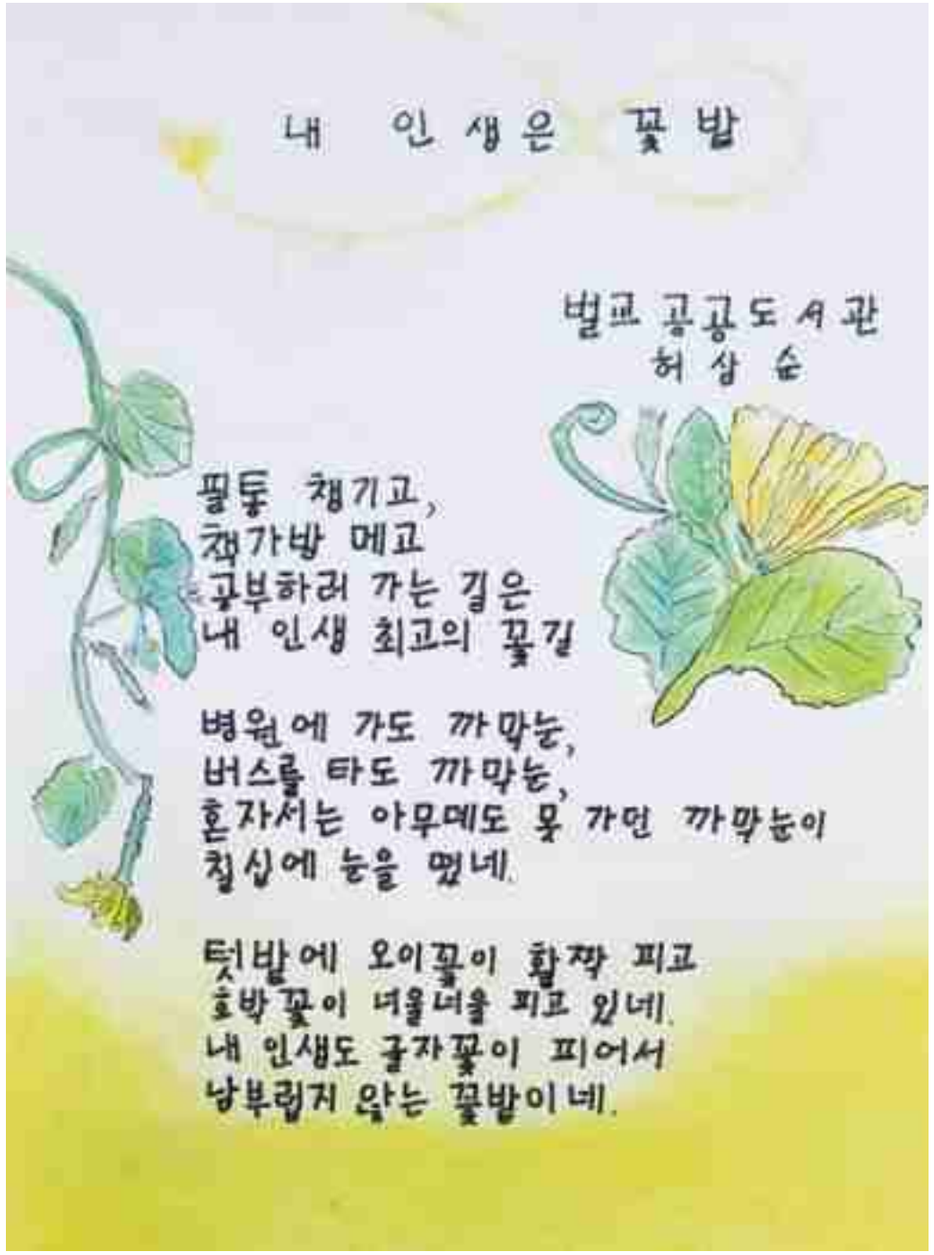


무섭지 않아

광양평생교육관
김덕순 | 59세

터널이 싫다
깜깜하고 숨막히는 터널
출구도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이 무섭다
어느날
어둠사이로 보이는 빛을 따라나서니
책도 있고 공책도 있고
친구들 선생님도 있고
학교라는 내 방도 있었다
세상에 온갖 글자들이 다 모여있었다
글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한글이는 편지를 쓰게 하고
수학이는 은행에도 데려가준다
영어는 ABC 해외 여행도 시켜준다
이제 터널이 무섭지 않아
예쁘게 꽃단장하고
나는 날마다
학교로 여행을 간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지사상



내 인생은 꽃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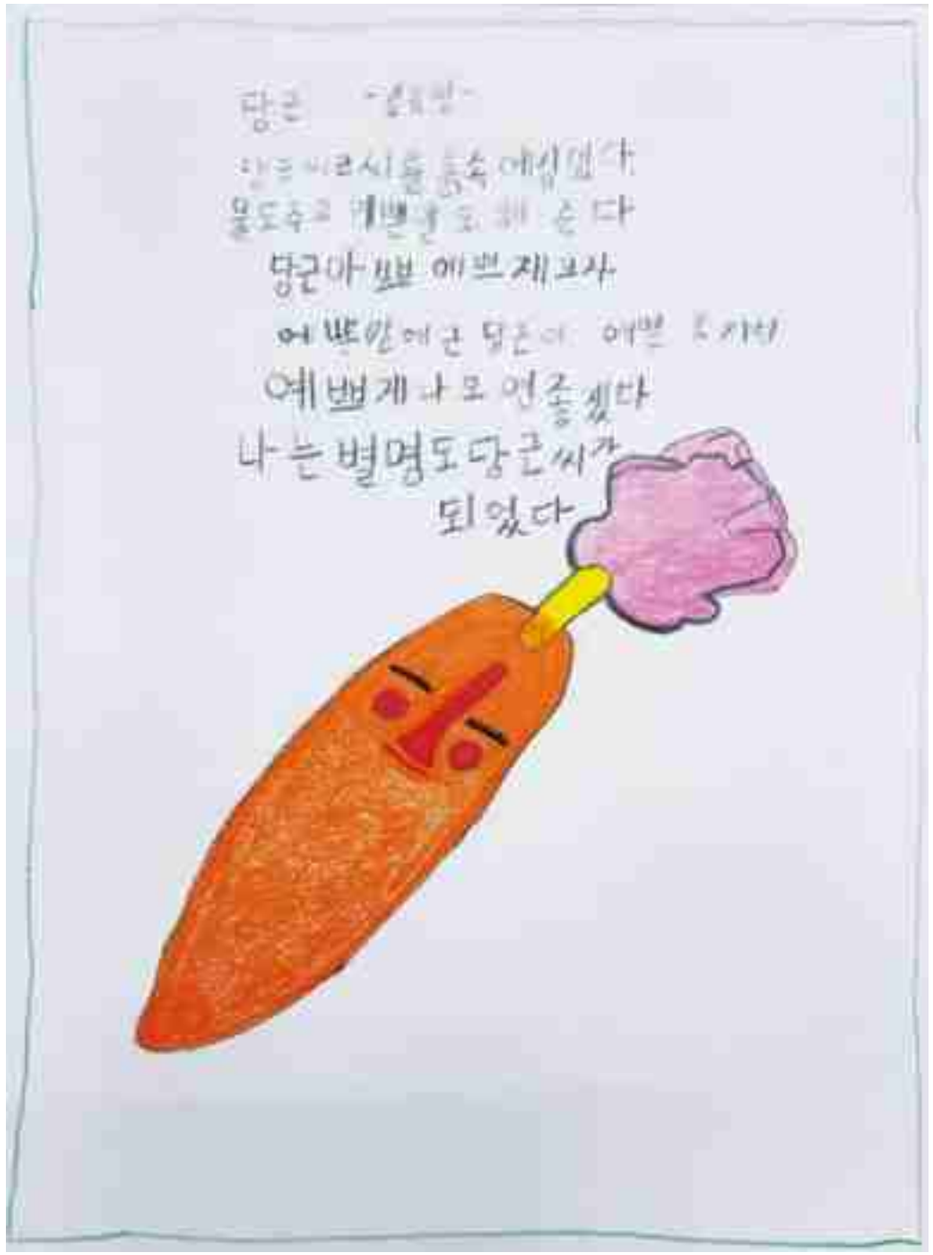
벌교공공도서관
허삼순 | 67세

필통 챙기고,
책가방 메고
공부하러 가는 길은
내 인생 최고의 꽃길

병원에 가도 까막눈,
버스를 타도 까막눈,
혼자서는 아무데도 못 가던 까막눈이
칠십에 눈을 떴네

텃밭에 오이꽃이 활짝 피고
호박꽃이 너울너울 피고 있네
내 인생도 글자꽃이 피어서
남부럽지 않는 꽃밭이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의회의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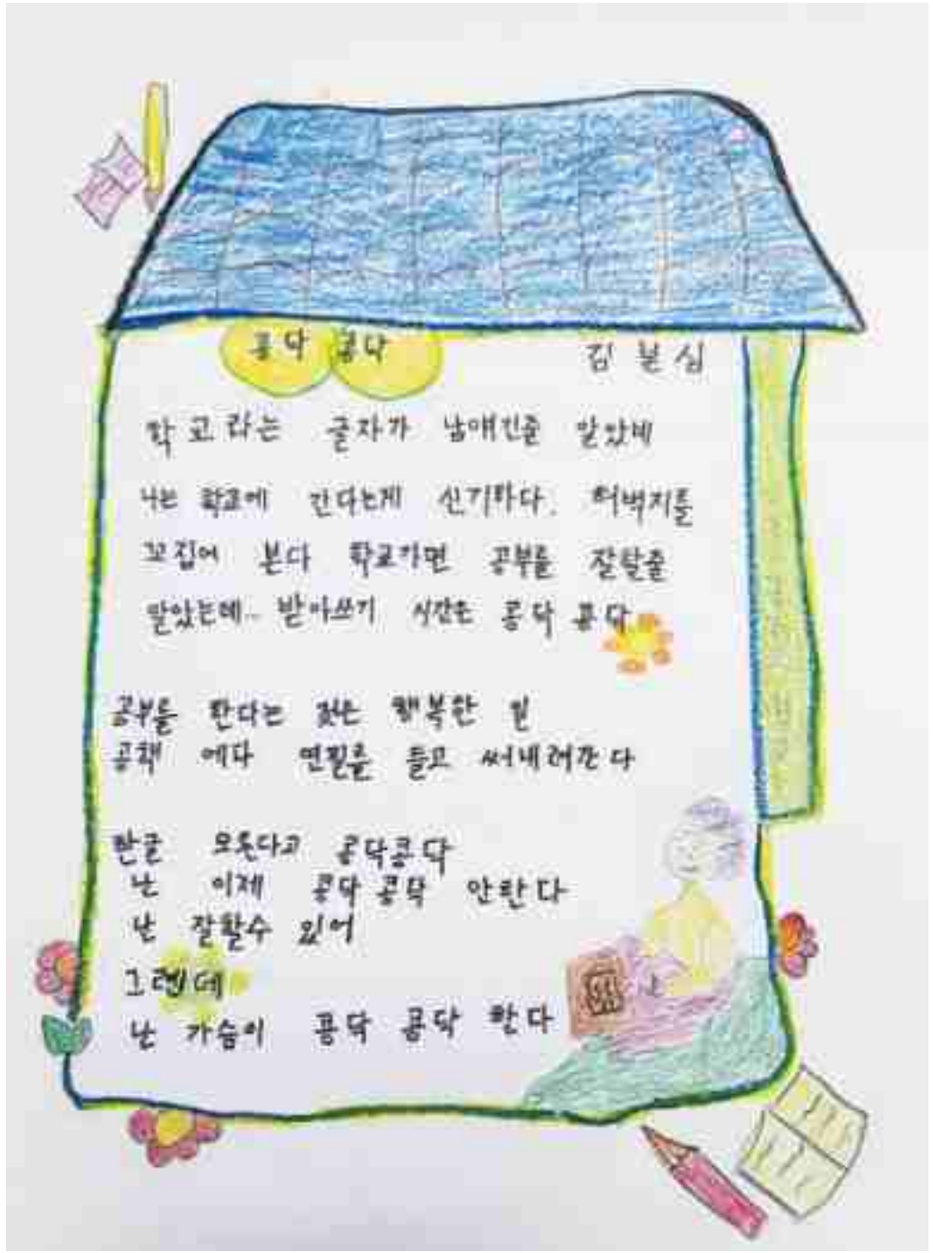


당근

(사)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평생교육원
김유영 | 51세

당근 씨근 씨를 흙속에 심었다.
물도주고 예쁜말도 해 준다
당근아 예쁘게 크자
예쁜말에 당근이 예쁜 옷처럼
예쁘게 나오면 좋겠다
나는 별명도 당근씨가 되었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의회의장상



콩닥 콩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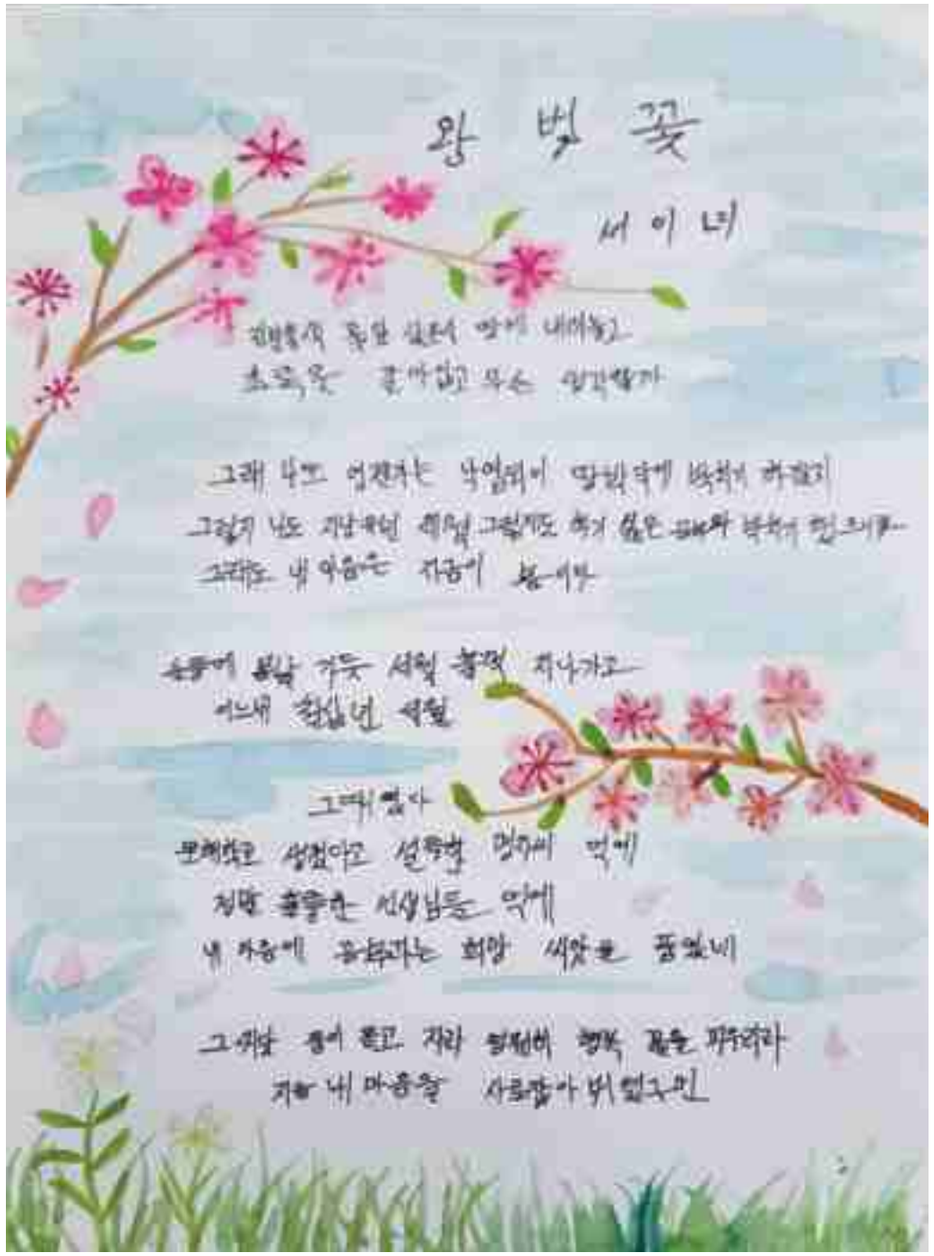
보길도 꿈꾸는 학교
김본심 | 72세

학교라는 글자가 남애긴줄 알았네
나는 학교에 간다는게 신기하다. 허벅지를
꼬집어 본다 학교가면 공부를 잘할 줄
알았는데... 받아쓰기 시간은 콩닥콩닥

공부를 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
공책에다 연필을 들고 써내려간다

한글 모른다고 콩닥콩닥
난 이제 콩닥콩닥 안한다
난 잘 할수 있어
그런데
난 가슴이 콩닥콩닥 한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의회의장상



왕벚꽃

(사)슬로스쿨
서이녀 | 68세

진분홍색 꽃잎 살포시 땅에 내려놓고
초록옷 갈아입고 무슨 생각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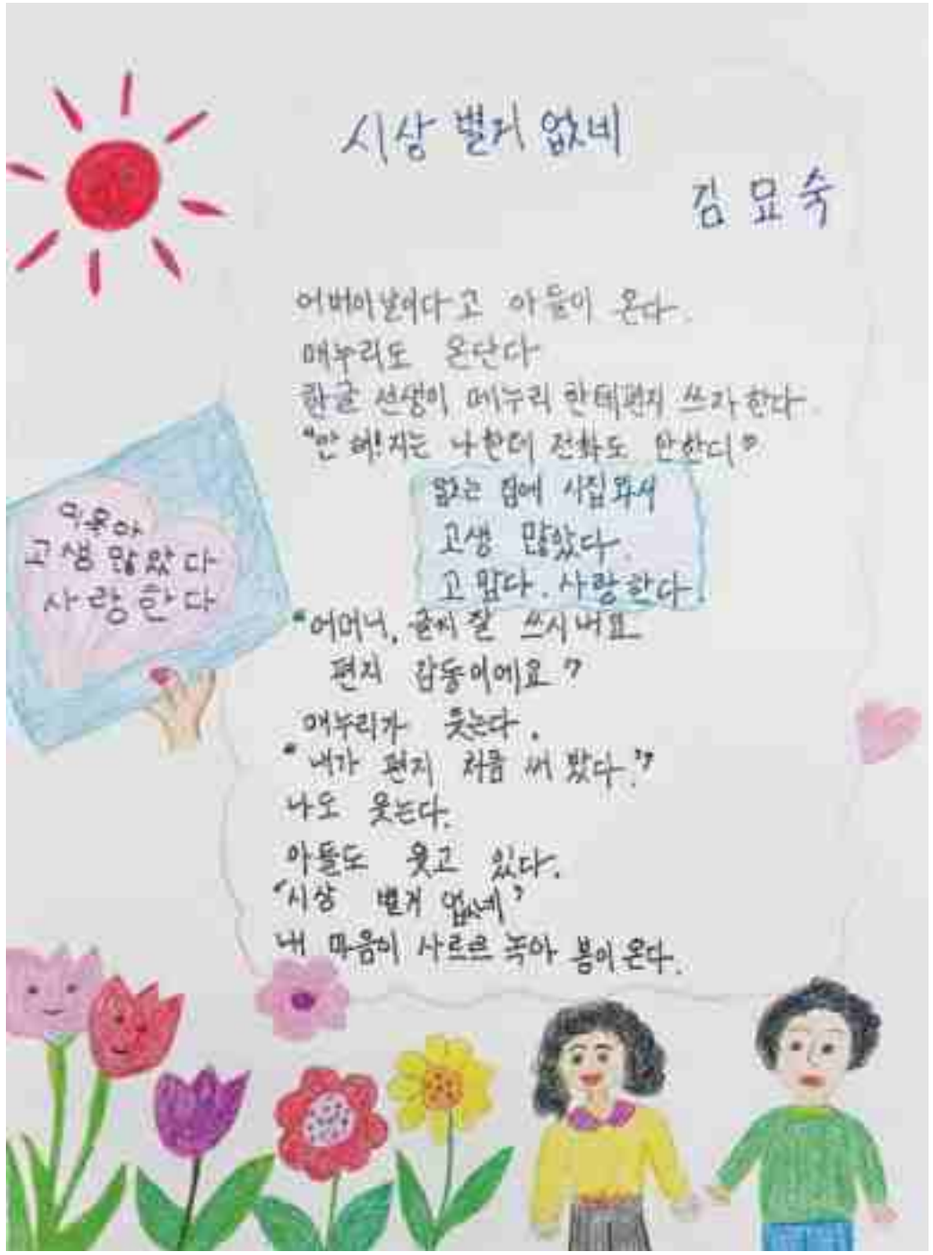
그래 나도 언젠가는 낙엽되어 땅바닥에 박치기 하겠지
그렇지 나도 지난 유년 세월 그렇게도 하기 싫은 공부와 박치기 했으니까
그래도 내 마음은 지금이 봄이다

순풍에 봄날 가듯 세월 훌쩍 지나가고
어느새 칠십년 세월

그때였다
문해학교 생겼다고 설득한 명자씨 덕에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 덕에
내 마음에 공부라는 희망 씨앗을 품었네

그 씨앗 움이 돋고 자라 영원히 행복 꽃을 피우리라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구먼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의회의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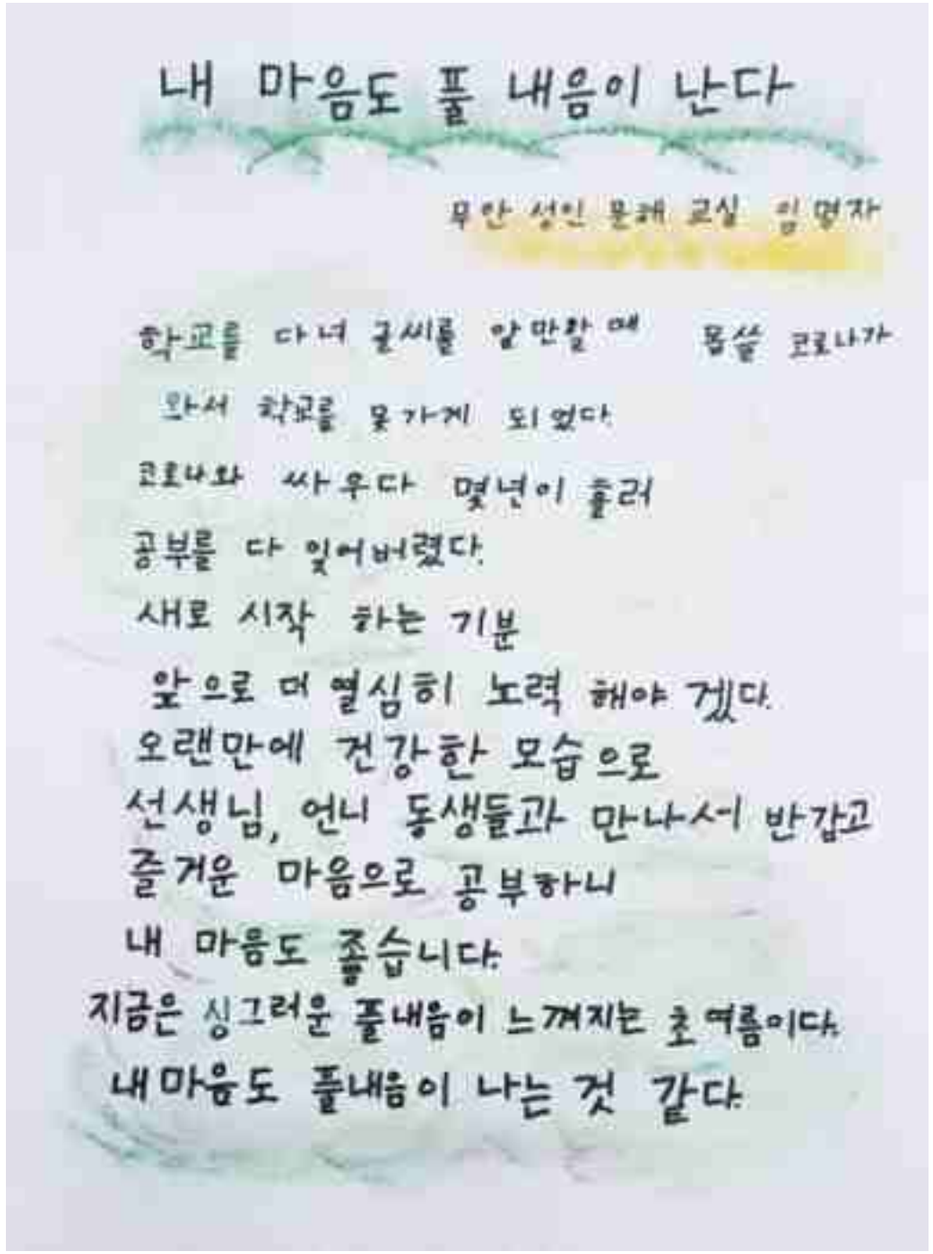


시상 별거 없네

해남군 꿈보배학교
김묘숙 | 74세

어버이날이다고 아들이 온다.
매누리도 온단다
한글 선생이 메누리 한테 편지 쓰자 한다.
“안해! 지는 나한테 전화도 안한디”
없는 집에 시집와서
고생 많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어머니, 글씨 잘 쓰시네요
편지 감동이에요“
매누리가 웃는다.
“내가 편지 처음 써 봤다.”
나도 웃는다.
아들도 웃고 있다.
‘시상 별거 없네’
내 마음이 사르르 녹아 봄이 온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의회의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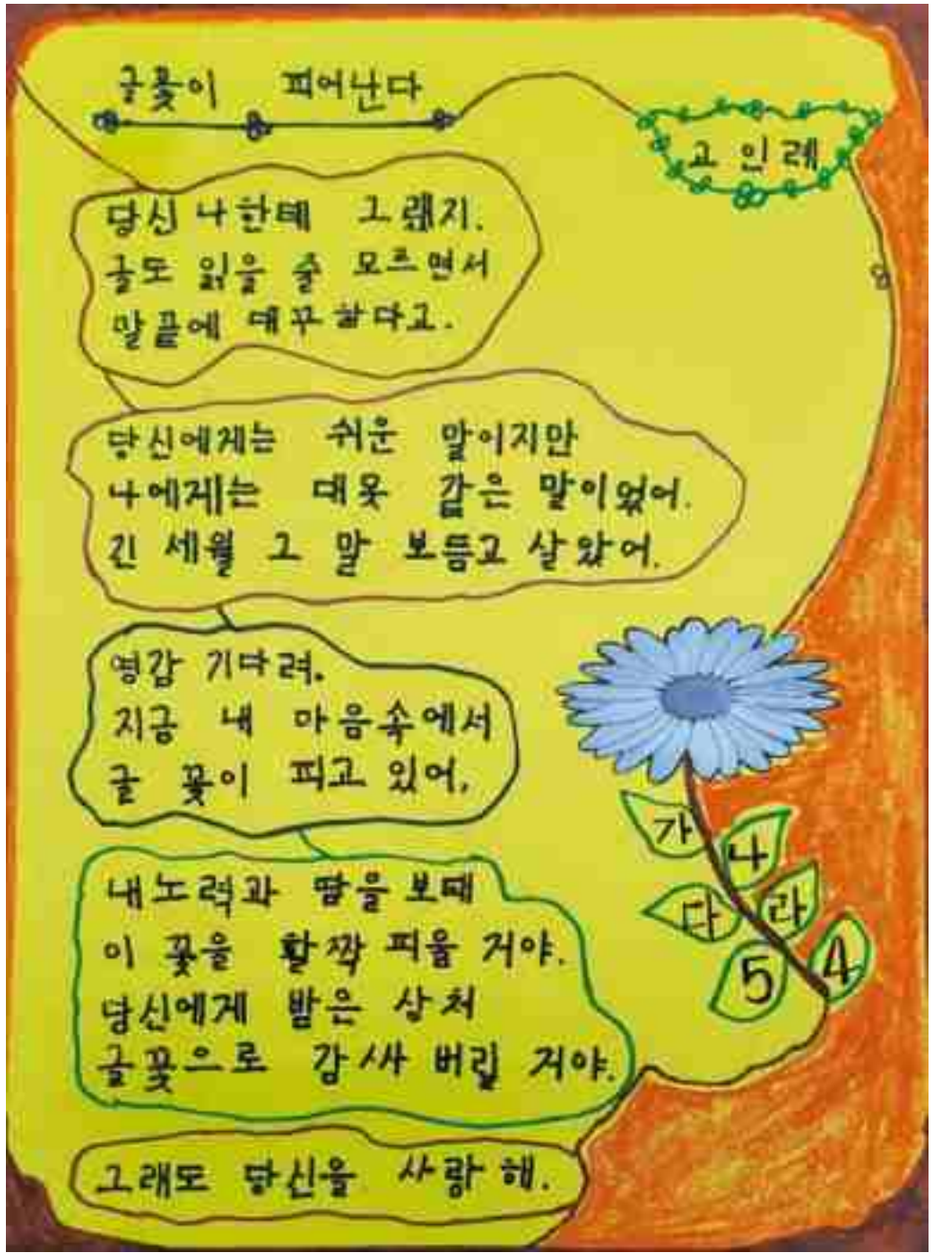


내 마음도 풀내음이 난다

무안군 여성농어업인센터
임명자 | 74세

학교를 다녀 글씨를 알만할 때 몹쓸 코로나가
와서 학교를 못가게 되었다.
코로나와 싸우다 몇 년이 흘러
공부를 다 잊어버렸다.
새로 시작 하는 기분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 해야 겠다.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선생님, 언니 동생들과 만나서 반갑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니
내 마음도 좋습니다.
지금은 싱그러운 풀내음이 느껴지는 초여름이다.
내 마음도 풀내음이 나는 것 같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의회의장상



글꽃이 피어난다

섬사랑 평생교육원
고인례 | 81세

당신 나한테 그랬지.
글도 읽을 줄 모르면서
말 끝에 대꾸한다고

당신에게는 쉬운 말이지만
나에게는 대못 같은 말이었어.
긴 세월 그 말 보듬고 살았어.

영감 기다려.
지금 내 마음속에서
글 꽃이 피고 있어.

내 노력과 땀을 보태
이 꽃을 활짝 피울거야
당신에게 받은 상처
글꽃으로 감싸버릴거야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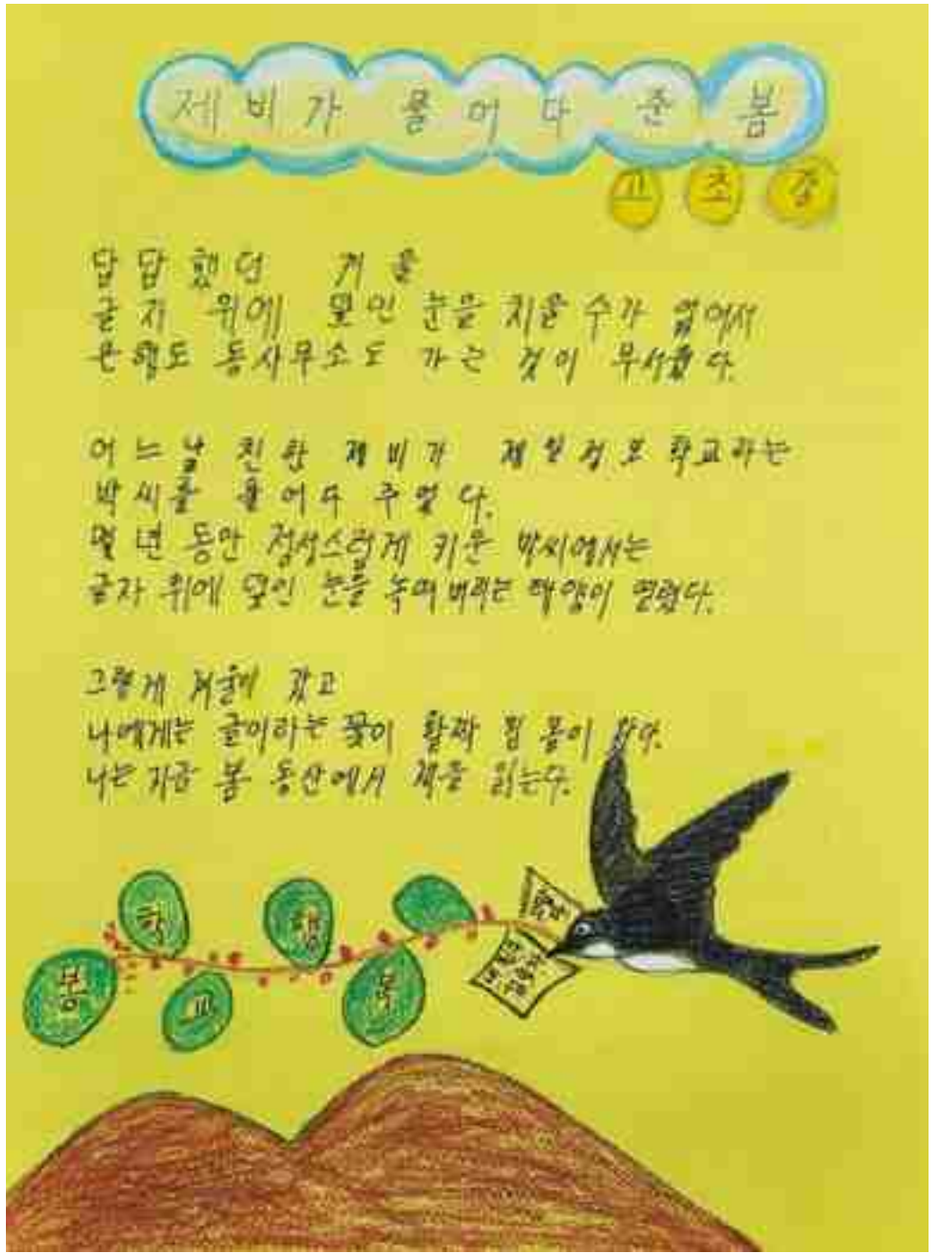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의회의장상

이름표

여수시청
횡간도 문해교실
정미자 | 68세

자고 일어나면 일
또 자고 일어나도 일
일만 하고 살다
늙은 할멈이 되었는데
할멈이 되어서
학생이라는 이름표를 달았다.
잡아본적 없는
연필을 쥔 손은
풍 맞은 것처럼
덜덜덜 거리고
그러면서도 연필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의회의장상



제비가 물어다 준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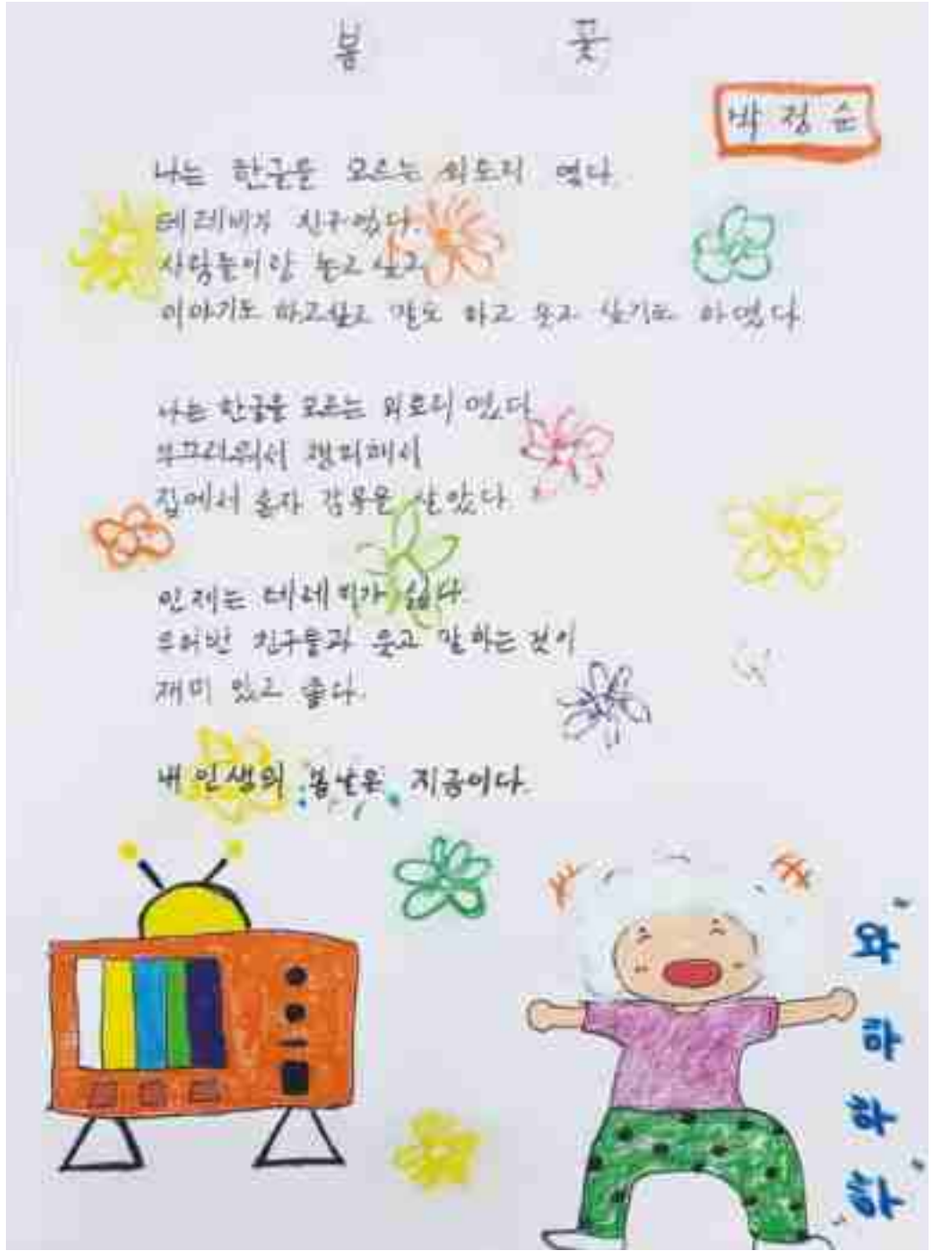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부설평생교육원
고초강 | 85세

답답했던 겨울
글자 위에 덮인 눈을 치울 수가 없어서
은행도 동사무소도 가는 것이 무서웠다.

어느날 친한 제비가 제일정보학교라는
박씨를 물어다 주었다.
몇 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박씨에서는
글자 위에 덮인 눈을 녹여버리는 태양이 열렸다.

그렇게 겨울이 갔고
나에게는 글이라는 꽃이 활짝 핀 봄이 왔다.
나는 지금 봄 동산에서 책을 읽는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의회의장상



봄꽃

영암군 왕인문해학교
박정순 | 76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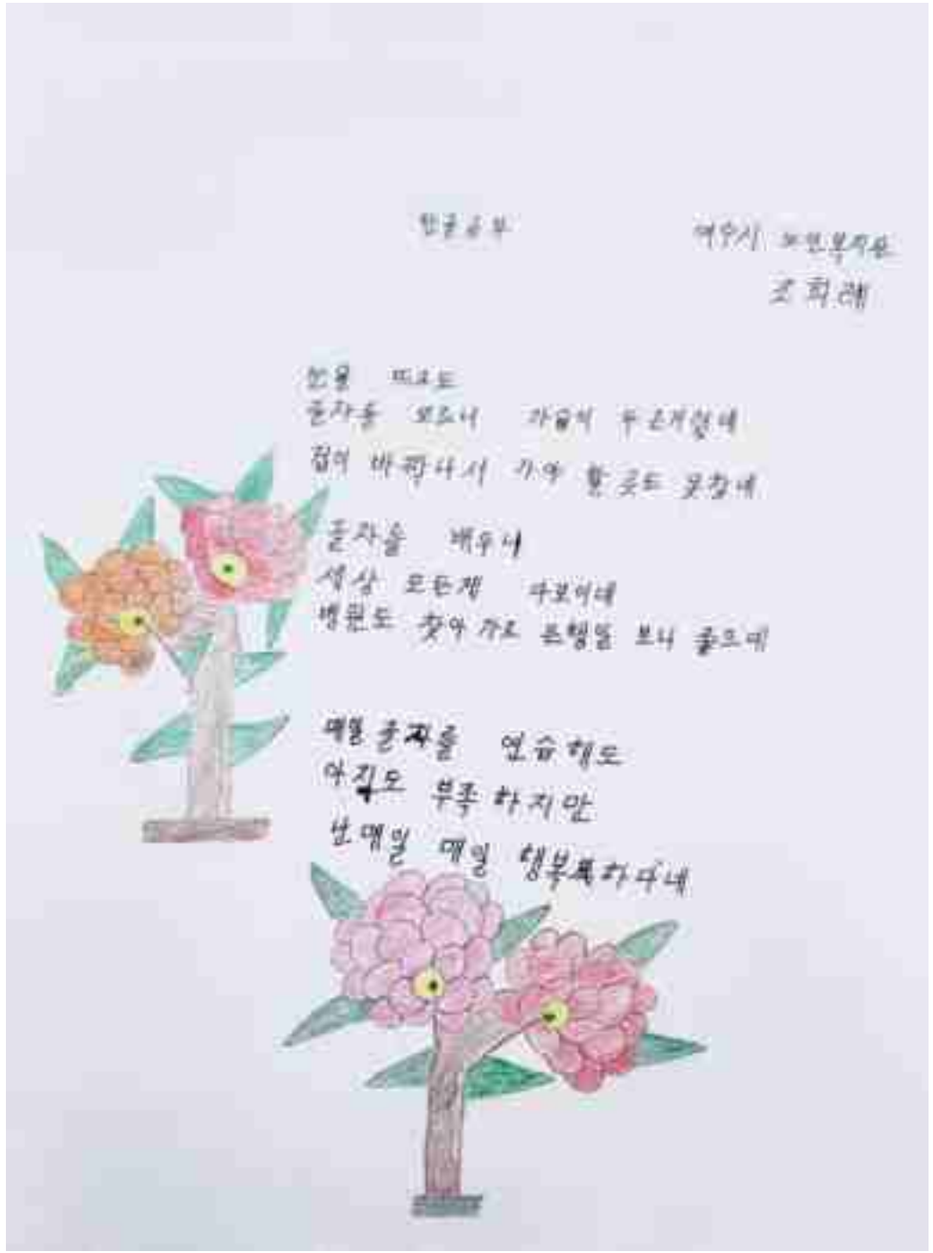
나는 한글을 모르는 외토리 였다.
텔레비전이 친구였다.
사람들이랑 놀고싶고
이야기도 하고싶고 말도 하고 웃고 싶기도 하였다.

나는 한글을 모르는 외토리였다.
부끄러워서 챙피해서
집에서 혼자 감옥을 살았다.

인제는 텔레비가 싫다.
우리반 친구들과 웃고 말하는 것이
재미 있고 좋다.

내 인생의 봄날은 지금이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도의회의장상



한글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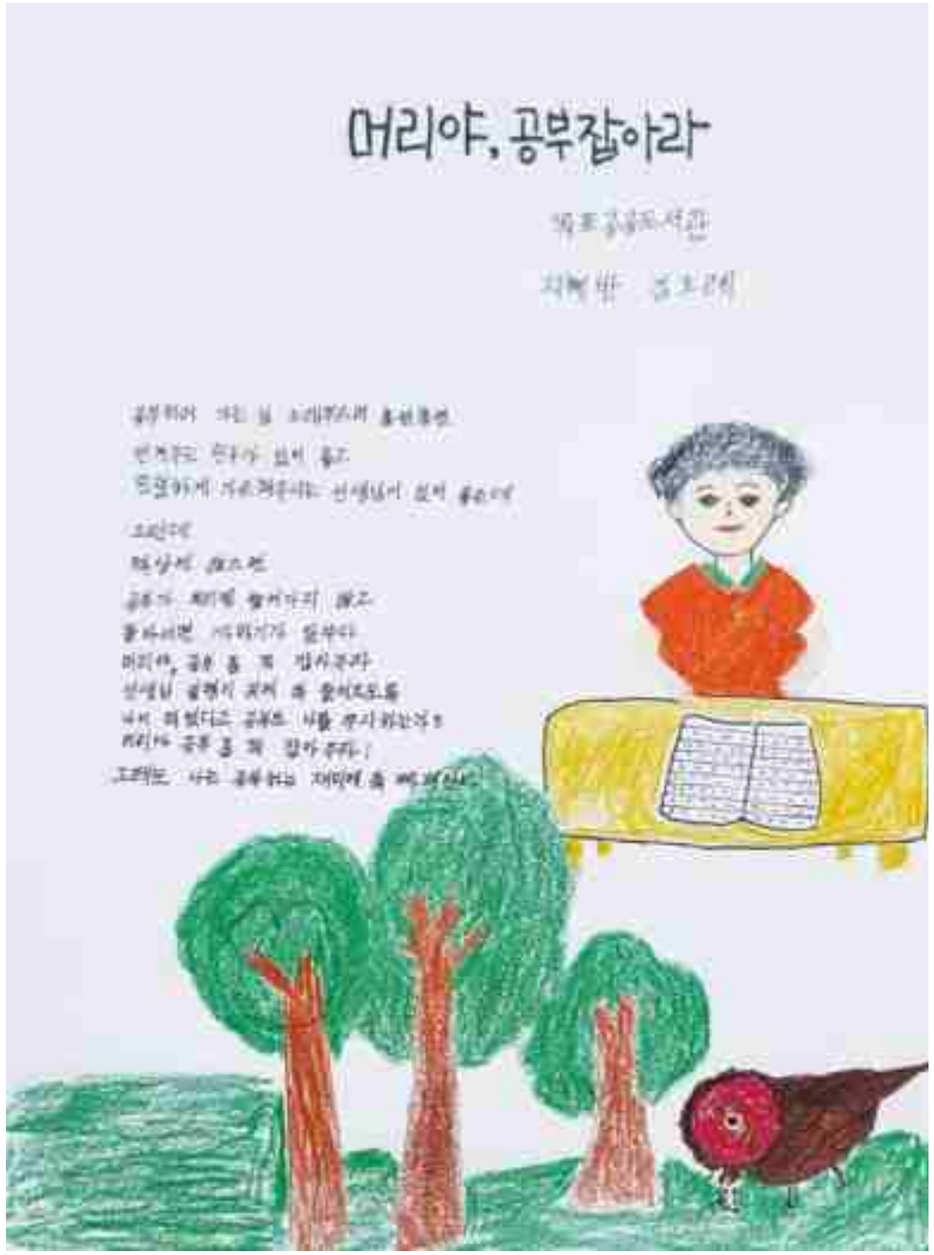
여수시노인복지관
조희례 | 83세

눈을 뜨고도
글자를 모르니 가슴이 두근거렸네
겁이 바짝나서 가야 할 곳도 못찾네

글자를 배우니
세상 모든게 다 보이네
병원도 찾아가고 은행일 보니 좋으네

매일 글자를 연습해도
아직도 부족하지만
난 매일 매일 행복하다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교육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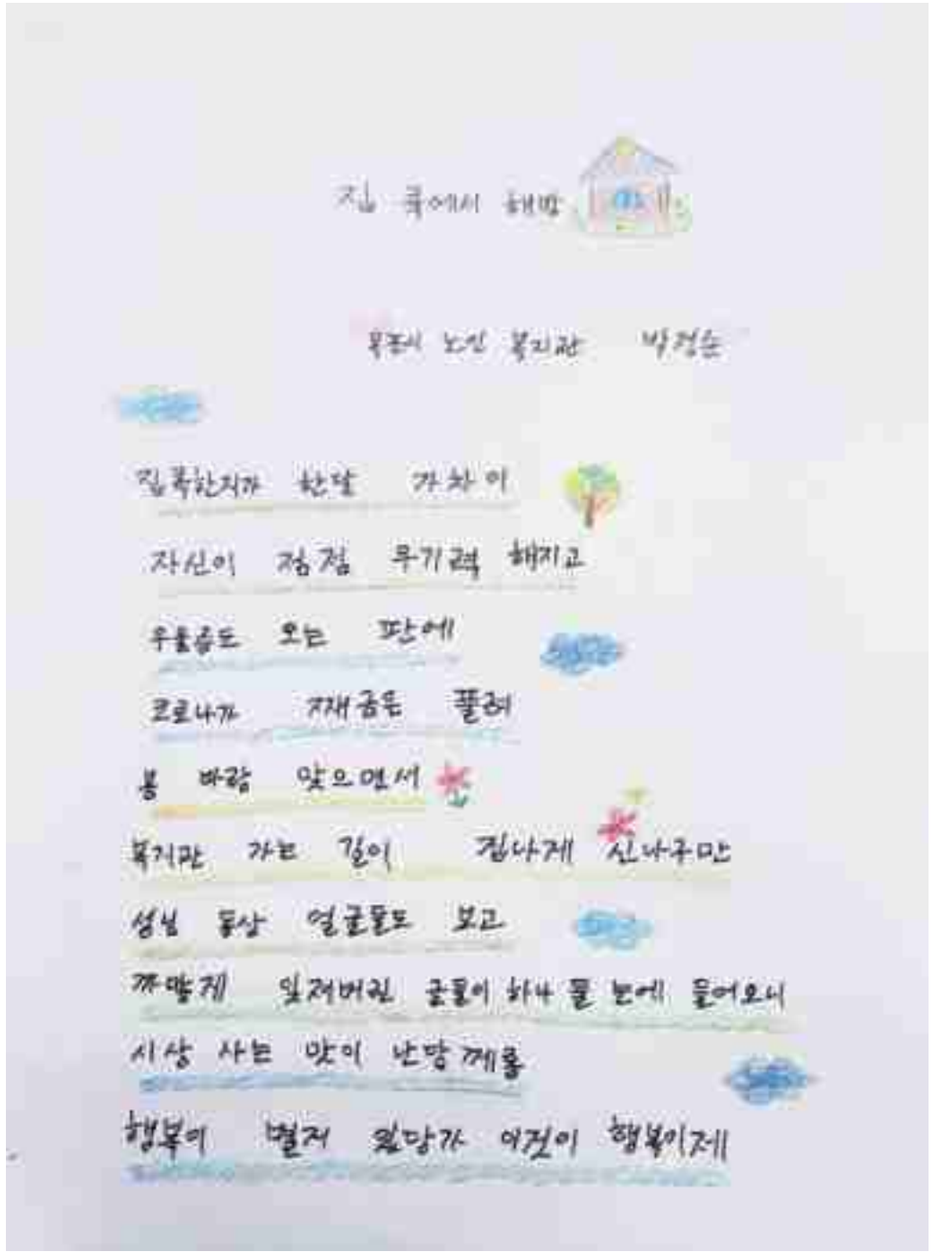


머리야 공부 잡아라

목포공공도서관
김오례 | 73세

공부하러 가는 길 노래부르며 흥얼흥얼
반겨주는 친구가 있어 좋고
친절하게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있어 좋은데
그런데
책상에 앉으면
공부가 머리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면 까먹기가 일쑤다
머리야, 공부 좀 꼭 잡아주라
선생님 설명이 귀에 쏙 들어오도록
나이 먹었다고 공부도 나를 무시하는가?
머리야 공부 좀 꼭 잡아주라!
그래도 나는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져산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교육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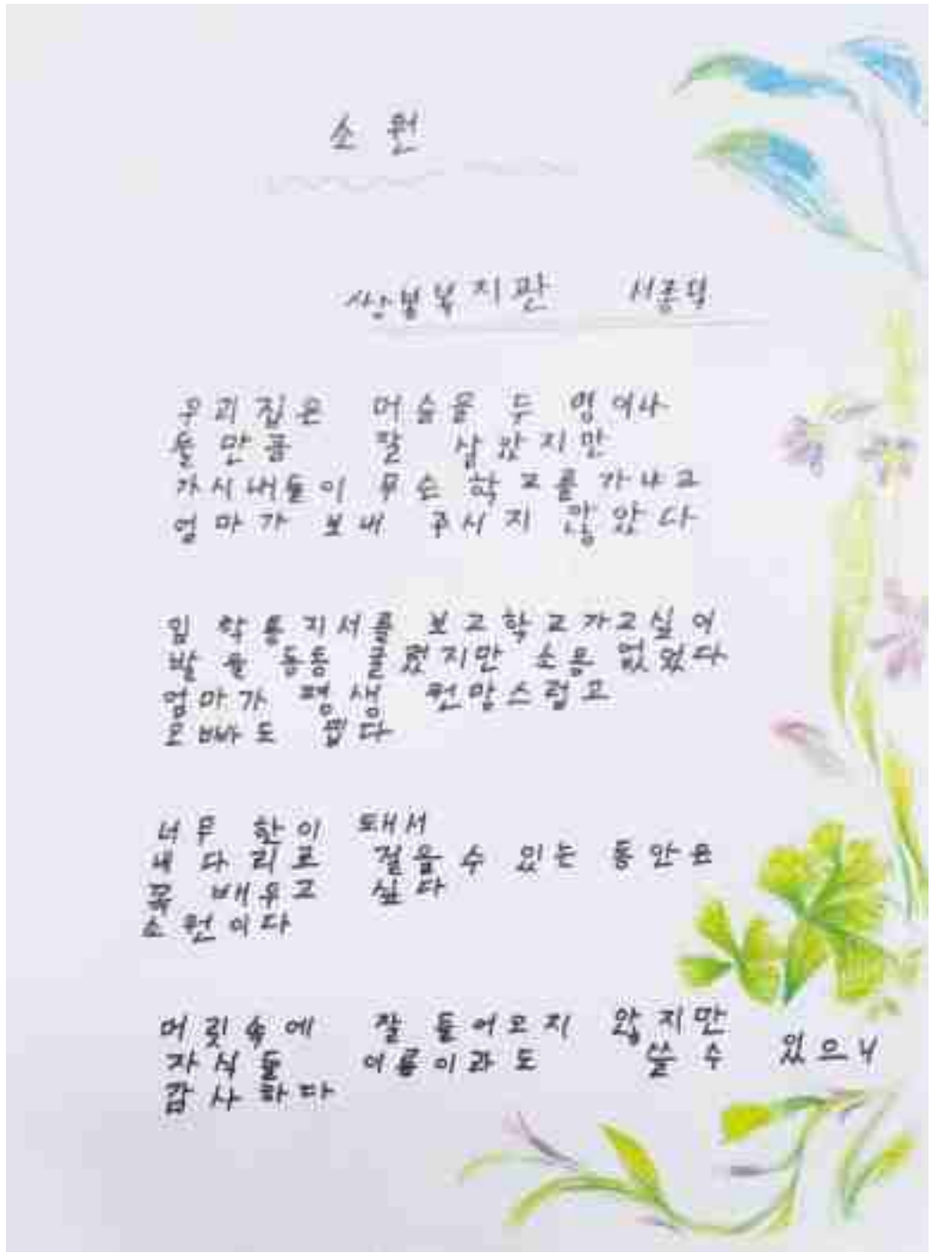


집콕에서 해방

목포시노인복지관
박정순 | 72세

집콕한지가 한달 가차이
자신이 점점 무기력 해지고
우울증도 오는 판에
코로나가 째금은 풀려
봄 바람 맞으면서
복지관 가는 길이 겁나게 신나구만
성님 동상 얼굴들도 보고
까맣게 잊혀버린 글들이 하나 둘 눈에 들어오니
시상 사는 맛이 난다께롱
행복이 별거 있당가 이것이 행복이제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교육감상



소원

쌍봉종합시회복지관
서종덕 | 79세

우리집은 머슴을 두명이나
둘만큼 잘 살았지만
가시내들이 무슨 학교를 가냐고
엄마가 보내 주시지 않았다
입학통지서를 보고 학교가고싶어
발을 동동 굴렀지만 소용 없었다
엄마가 평생 원망스럽고
오빠도 밉다

너무 한이 돼서
내 다리로 걸을 수 있는 동안은
꼭 배우고 싶다
소원이다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지만
자식들 이름이라도 쓸 수 있으니
감사하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교육감상

함께라서 좋다

곡성군청
허연순 | 78세

장미공원에 갔다
너무나 아름다워 감탄이 절로난다
우리의 우정은 장미처럼 이렇게
예쁘게 살아요
당신들과 함께라서
나의 길은 아름다운
장미의 길이 될 겁니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교육감상

순심이의 일기

전국 야학협의회 여수지부
상록배움터
송순심 | 66세

오늘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일을 하고 왔네요
밥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천에서 버스를 타고 여서동로타리에
내려서 터벅터벅 상록배움터에 왔습니다.
자, 우리 상록배움터 학생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세요.
저는 낮에는 일을하고, 밤에는 한글 공부를 합니다.
한글공부를 하고 보니, 나혼자만에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또, 집에서 시간이 나면 책도 읽고
우리아들과 딸에게 문자도 하고
참 오래 살고보니 세상이 참 좋아졌네요.
나의 세상도 참 행복한 세상이에요
애들아 오늘도 엄마는 일하고 공부하러왔다.
아들아 엄마는 너무 행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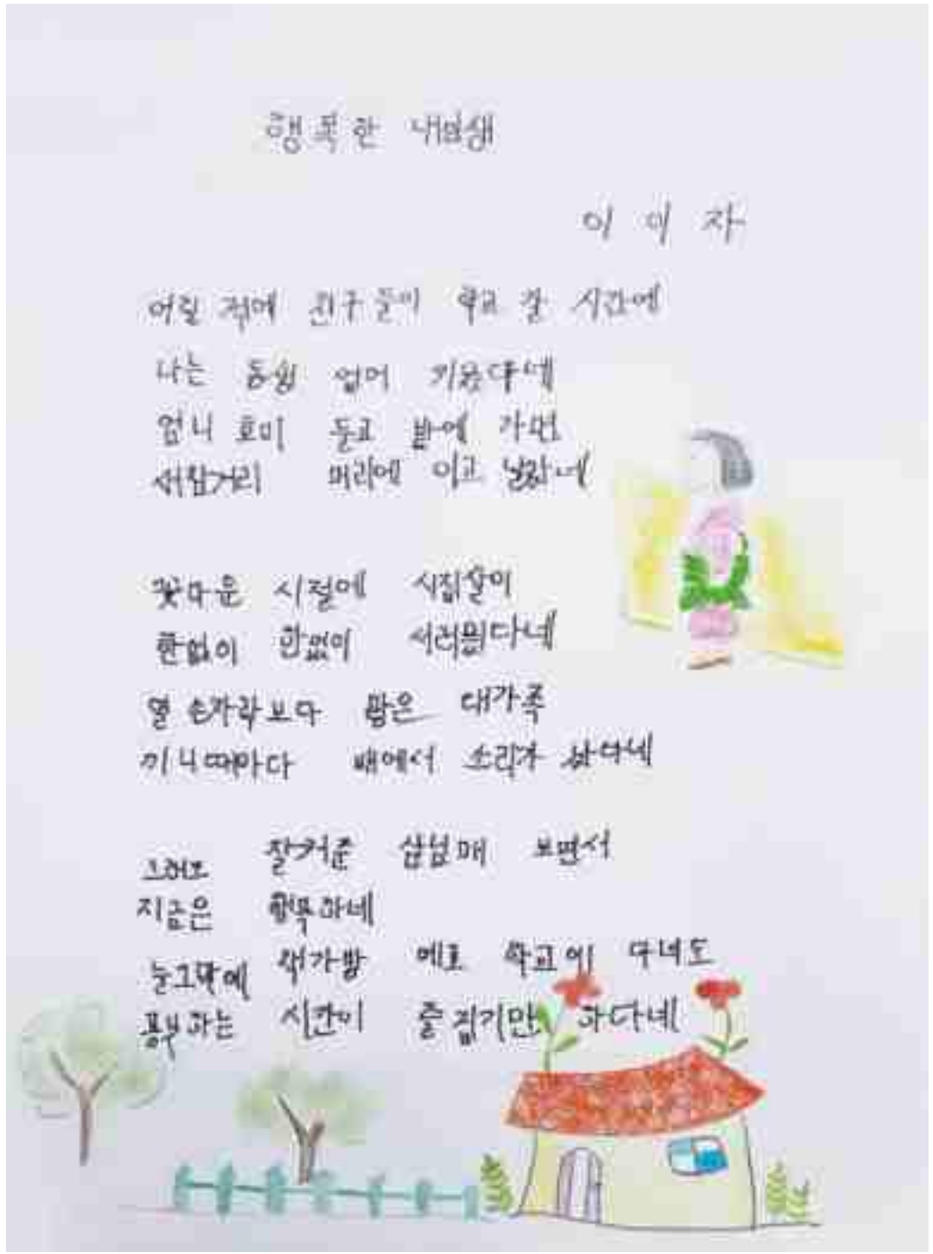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교육감상

써보고 또 그리네

화순군청
이찬순 | 78세

가나다라 1234 ABCD
다시 시작하는 한글공부 숫자공부
영어공부 기대가 되네
잊어버릴까봐 글씨를 써보고 또 써보다
그림을 그리네 재미나서 그리고 또 그리네
문해공부를 안했으면 이 그림도 못그릴텐데
오지고도 행복하네
누가보면 우습겠지만 내가 봐고 우습지만
나는 내 그림이 하늘만큼 자랑스럽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교육감상



행복한 내인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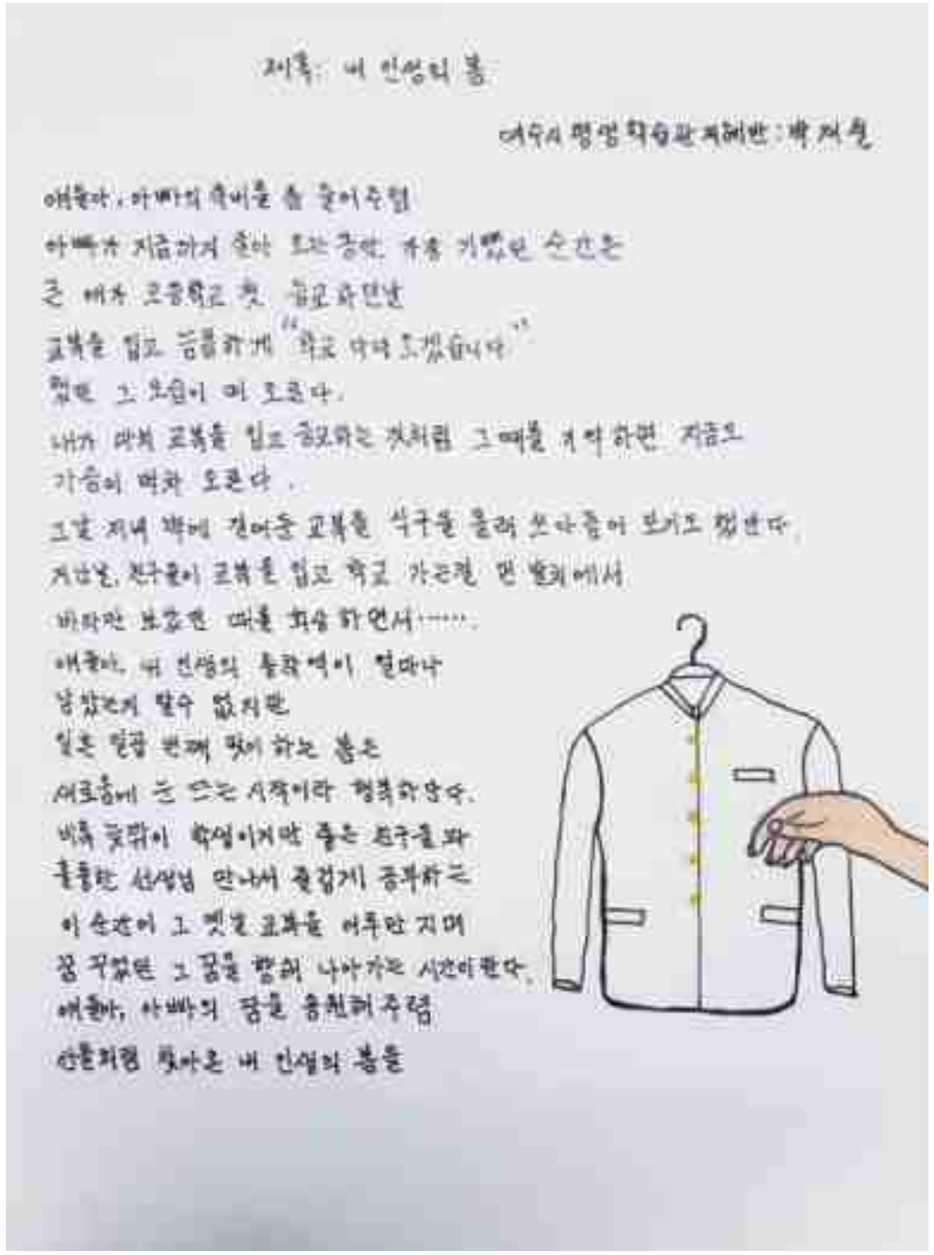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이이자 | 81세

어릴적에 친구들이 학교 갈 시간에
나는 동생 업어 키웠다네
엄니 호미 들고 밭에 가면
새참거리 머리에 이고 날랐네

꽃다운 시절에 시집살이
한없이 한없이 서러웠다네
열 손가락보다 많은 대가족
끼니때마다 배에서 소리가 났다네

그래도 잘 커준 삼남매 보면서
지금은 행복하네
늘그막에 책가방 메고 학교에 다녀도
공부하는 시간이 즐겁기만 하다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교육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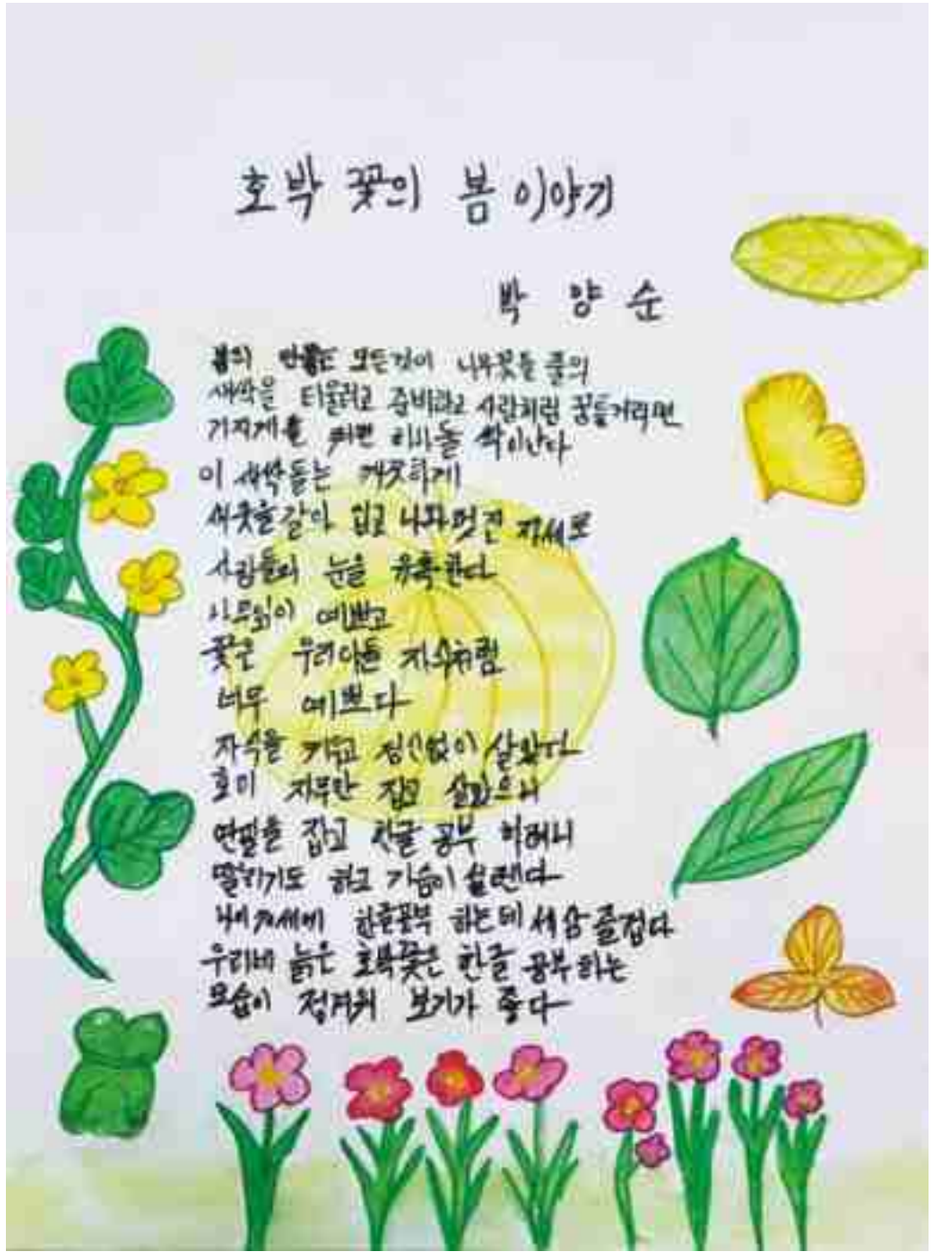


내 인생의 봄

여수시청
여수시평생학습관 지혜교실
박재철 | 76세

얘들아, 아빠의 속내를 좀 들어주렴
아빠가 지금까지 살아 오는동안 가장 기뻤던 순간은
큰 애가 고등학교 첫 등교하던 날
교복을 입고 늠름하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했던 그 모습이 떠오른다.
내가 마치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처럼 그 때를 기억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 오른다.
그날 저녁 벽에 걸어둔 교복을 식구들 몰래 쓰다듬어 보기도 했단다.
지난날,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걸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얘들아,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일흔 일곱 번째 맞이하는 봄은
새로움에 눈 뜨는 시작이라 행복하단다.
비록 늦깎이 학생이지만 좋은 친구들과
훌륭한 선생님 만나서 즐겁게 공부하는
이 순간이 그 옛날 교복을 어루만지며
꿈꾸었던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란다.
얘들아, 아빠의 꿈을 응원해주렴
선물처럼 찾아온 내 인생의 봄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교육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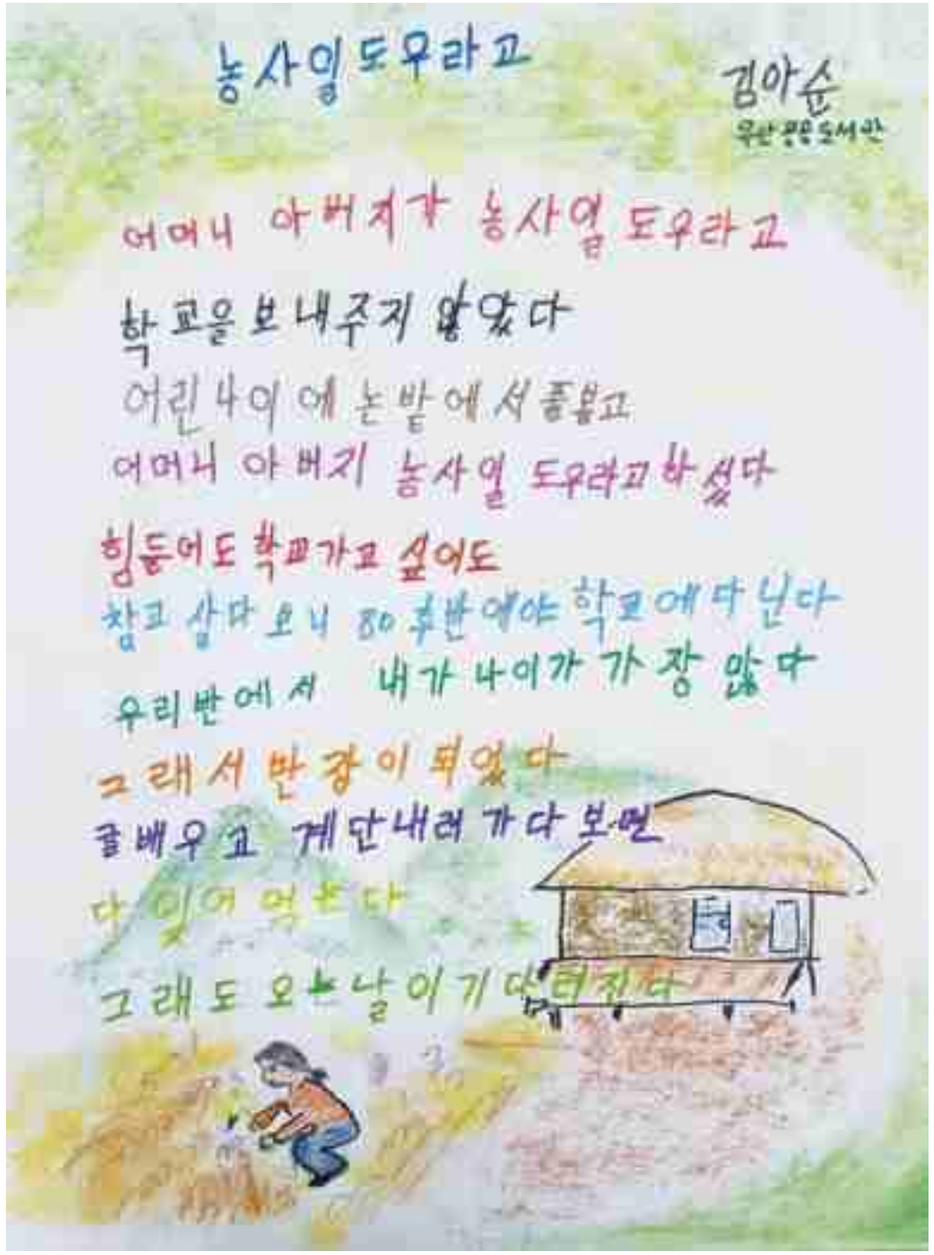


호박꽃의 봄 이야기

해남군 꿈보배학교
박양순 | 71세

봄의 안뭄는 모든 것이 나무꽃들 풀의
새싹을 티울려고 준비하고 사람처럼 꿈틀거리면
기지게를 켜면 하나 둘 싹이난다
이 새싹들은 깨끗하게
새옷을 갈아 입고 나와 멋진 자세로
사람들의 눈을 유혹한다
나뭇잎이 예쁘고
꽃은 우리 아들 자식처럼
너무 예쁘다
자식을 키우고 정신없이 살았다
호미 자루만 잡고 살았으니
연필을 잡고 한글 공부 하려니
떨리기도 하고 가슴이 설렌다
나이70세에 한글공부 하는데 세삼 즐겁다
우리네 늙은 호박꽃은 한글 공부하는
모습이 정겨워 보기가 좋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교육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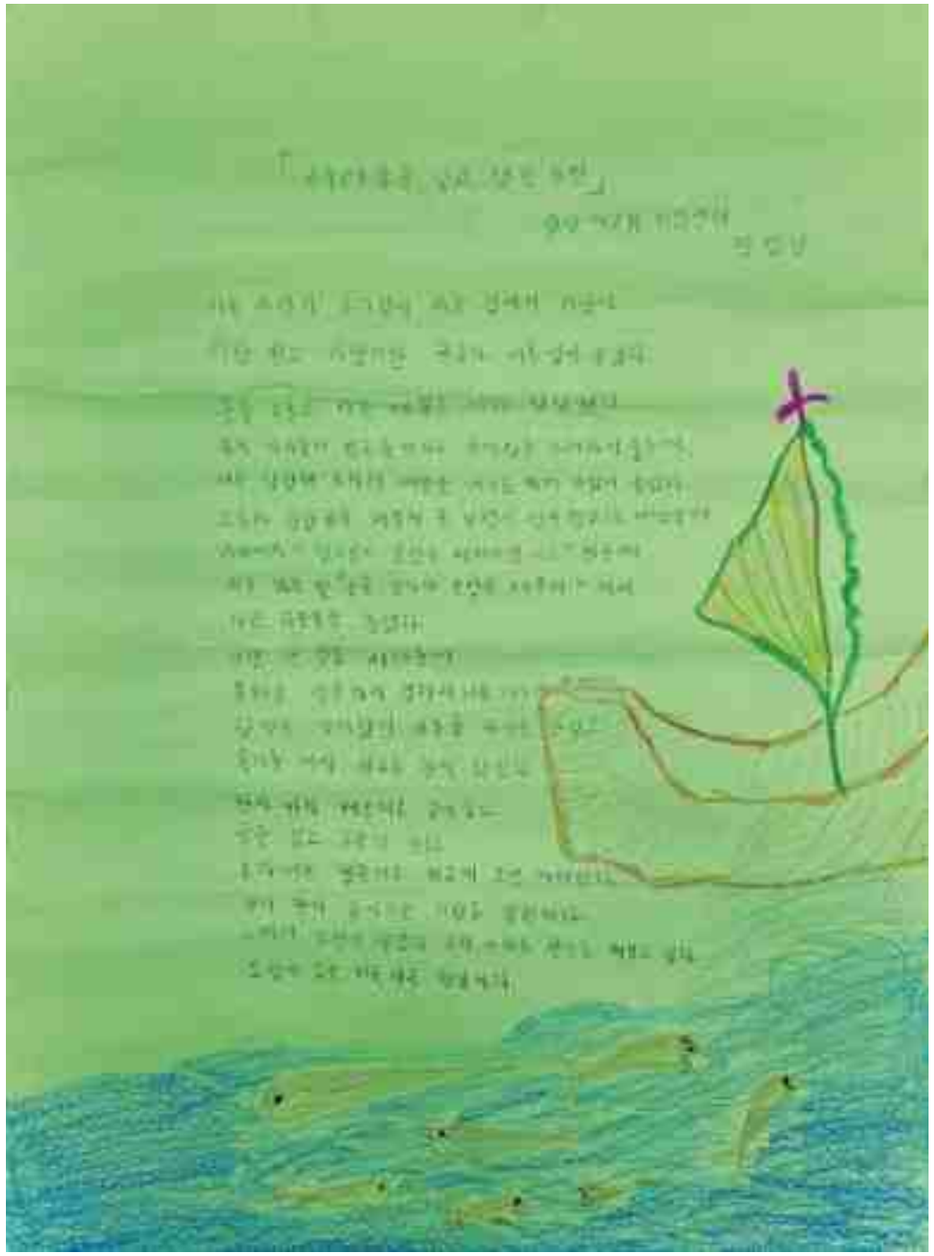


농사일 도우라고

무안공공도서관
김아순 | 94세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일 도우라고
학교를 보내주지 않았다
어린나이에 논밭에서 풀뽑고
어머니 아버지 농사일 도우라고 하셨다
힘들어도 학교가고 싶어도
참고 살다보니 80후반에야 학교에 다닌다
우리반에서 내가 나이가 가장 많다
그래서 반장이 되었다
글 배우고 계단 내려가다보면
다 잊어먹는다
그래도 오는날이 기다려진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광양시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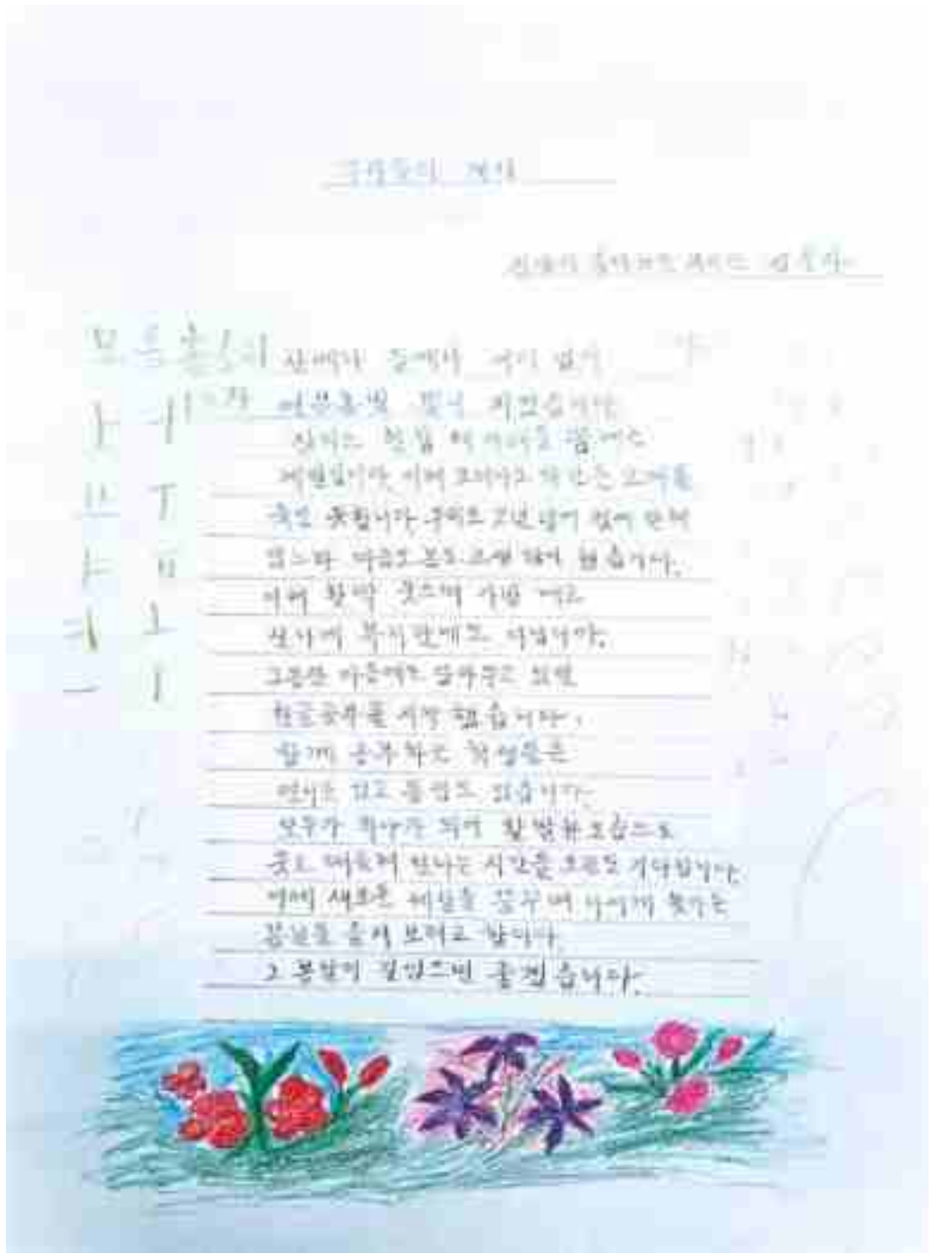


서러움을 딛고 생긴 도전

광양시청
정영님 | 72세

시골 바닷가 고기잡이 하는 집에서 자랐다
사랑받고 자랐지만 학교가 너무 멀어 못갔다
글을 모르고 사는 세월은 너무도 답답했다
특히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고 숙제장을 가져와서 물을 때
너무 답답해 오히려 짜증을 내기도 하며 수없이 울었다
그나마 답답함을 해결해 준 남편이 먼저 천상으로 떠났을 때
시아제가 “형수님이 운전을 배워야겠네요”했을 때
시누 하는 말“글을 알아야 운전을 배우제”해서
나는 피눈물을 흘렸다
남편 간 것도 서러운데
못배운 설움까지 겹쳐서 나를 가누지 못했다
평생을 망설였던 공부를 하기로 맘먹고
용기를 내서 학교를 찾게 되었다
한자 한자 배운대로 알아듣고
글을 읽고 조금씩 쓴다
혼자서는 힘들어도 학교에 오면 재미있다
한자 한자 알아가는 기쁨도 쏠쏠하다
그래서 도전이 생겼다. 우리 아파트 반장을 해보고 싶다.
소망이 있는 지금, 나는 행복하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광양시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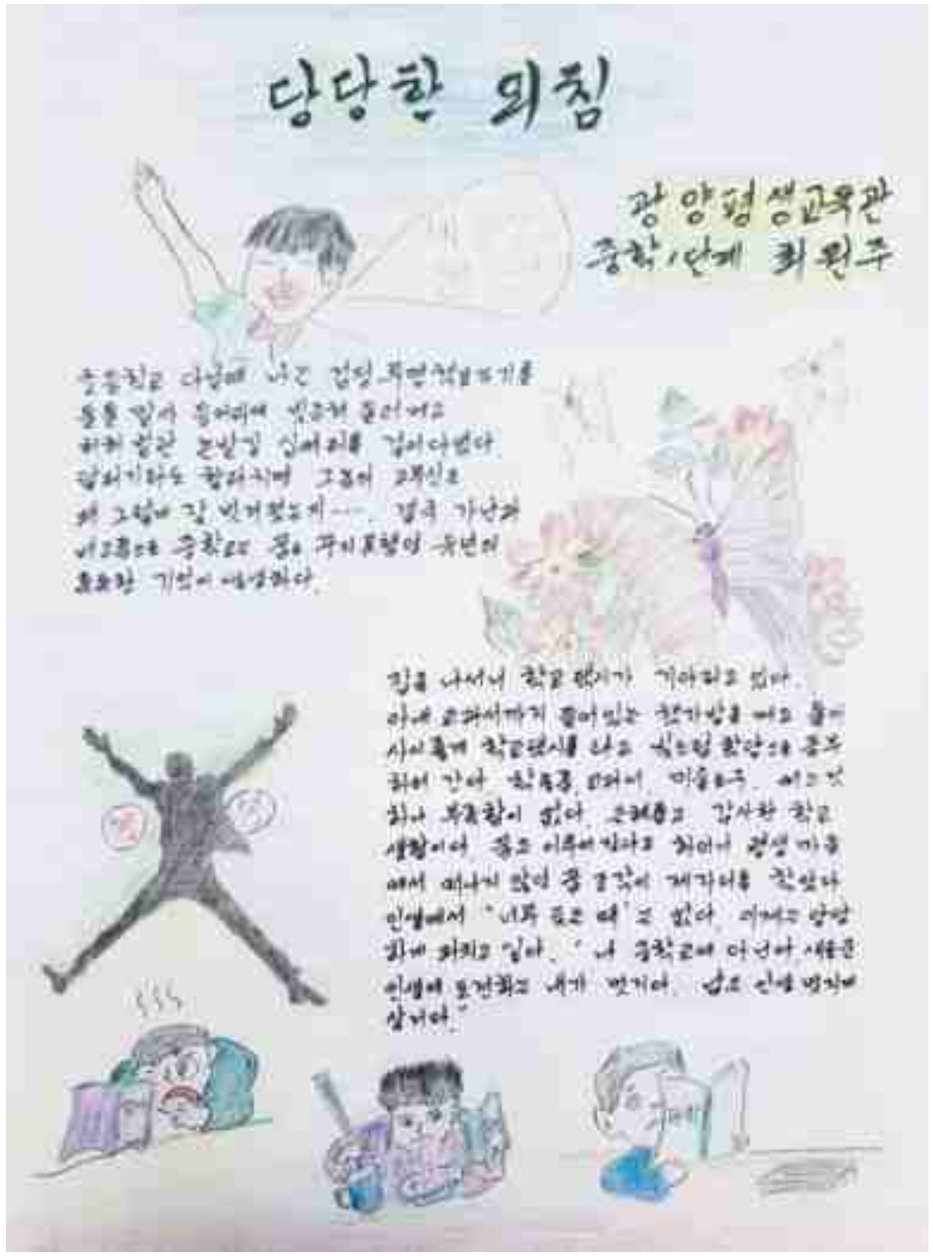


우리들의 계절

광양시청
김순자 | 80세

산에나 들에나 어디없이
연분홍빛 꽃이 피었습니다.
장미도 한참 제 자태를 뽐내는
계절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약간은 고개를
숙인 듯 합니다. 우리도 2년 넘게 집에 갇혀
있느라 마음도 몸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활짝 웃으며 가방메고
신나게 복지관에도 다닙니다.
그동안 마음에도 담아두고 있던
한글공부를 시작 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은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활발한 모습으로
웃고 떠들며 만나는 시간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나에게 찾아온
봄날을 즐겨 보려고 합니다.
그 봄날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광양시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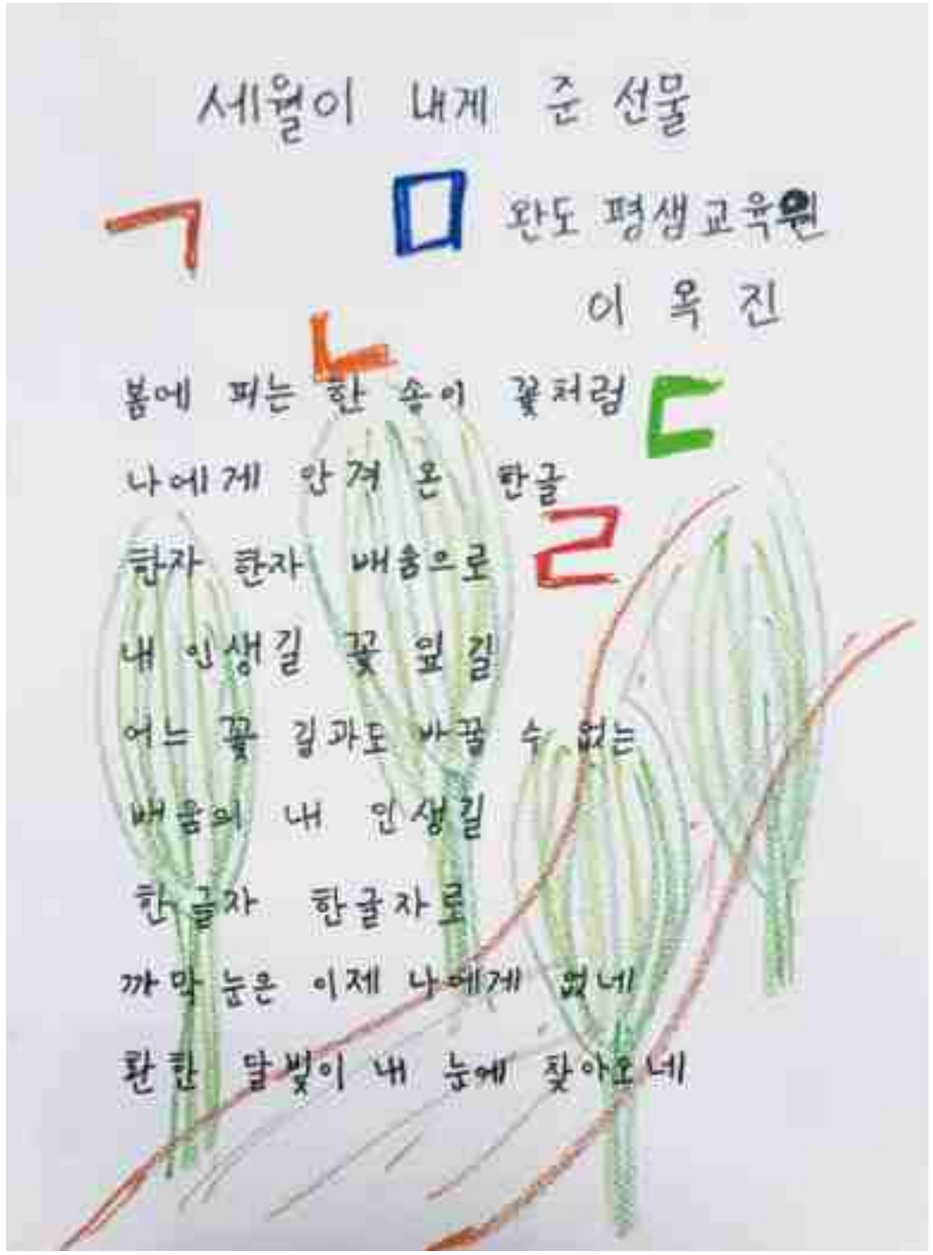
당당한 외침

광양평생교육관
최원주 | 75세

초등학교 다닐 때 나는 검정 무명 책보자기를
둘둘 말아 등머리에 빗금쳐 둘러메고
허허벌판 논밭길 십여리를 걸어다녔다.
달리기라도 할라치면 그놈의 고무신은
왜 그렇게 잘 벗겨졌는지....., 결국 가난과
배고픔으로 중학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유년의
혹독한 기억이 생생하다.

집을 나서니 학교택시가 기다리고 있다.
아내 교과서까지 들어있는 책가방을 메고 둘이
사이좋게 학교택시를 타고 빛드림학당으로 공부
하러 간다. 학용품, 교과서, 미술도구, 어느것
하나 부족함이 없다. 은혜롭고 감사한 학교
생활이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더니 평생 마음
에서 떠나지 않던 꿈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는 없다. 이제는 당당
하게 외치고 싶다. "나 중학교에 다닌다.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는 내가 멋지다. 남은 인생 멋지게
살거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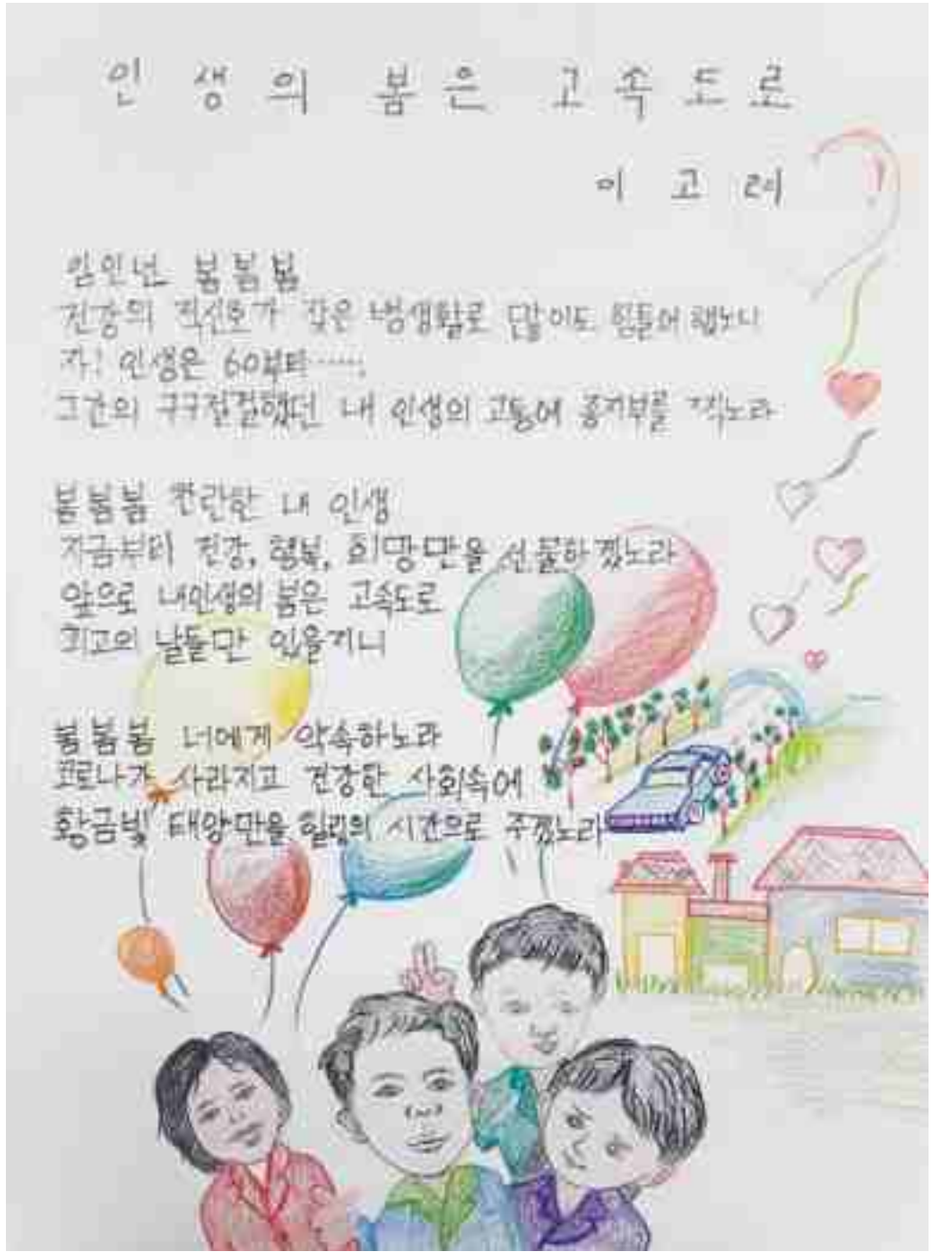


세월이 내게 준 선물

완도평생교육원
이옥진 | 60세

봄에 피는 한 송이 꽃처럼
나에게 안겨 온 한글
한자 한자 배움으로
내 인생길 꽃 잎길
어느 꽃 길과도 바꿀 수 없는
배움의 내 인생길
한글자 한글자로
까막눈은 이제 나에게 없네
환한 달빛이 내 눈에 찾아오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인생의 봄은 고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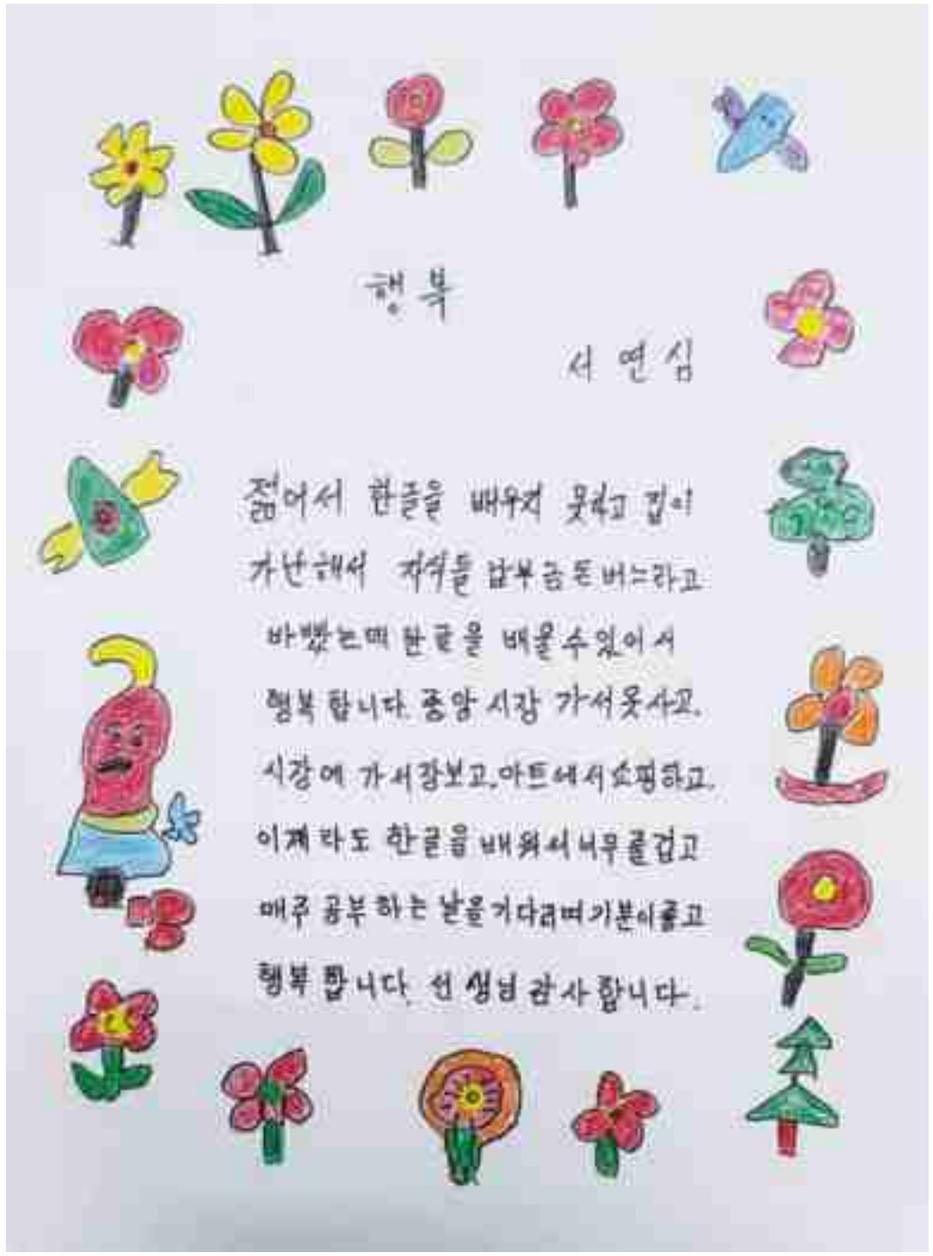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부설평생교육원
이고려 | 59세

임인년 봄봄봄
건강의 적신호가 잦은 병생활로 많이도 힘들어 했노니
자! 인생은 60부터……,
그간의 구구절절했던 내 인생의 고통에 종지부를 찍노라

봄봄봄 찬란한 내 인생
지금부터 건강, 행복, 희망만을 선물하겠노라
앞으로 내 인생의 봄은 고속도로
최고의 날들만 있을지니

봄봄봄 너에게 약속하노라
코로나가 사라지고 건강한 사회속에
황금빛 태양만을 힐링의 시간으로 주겠노라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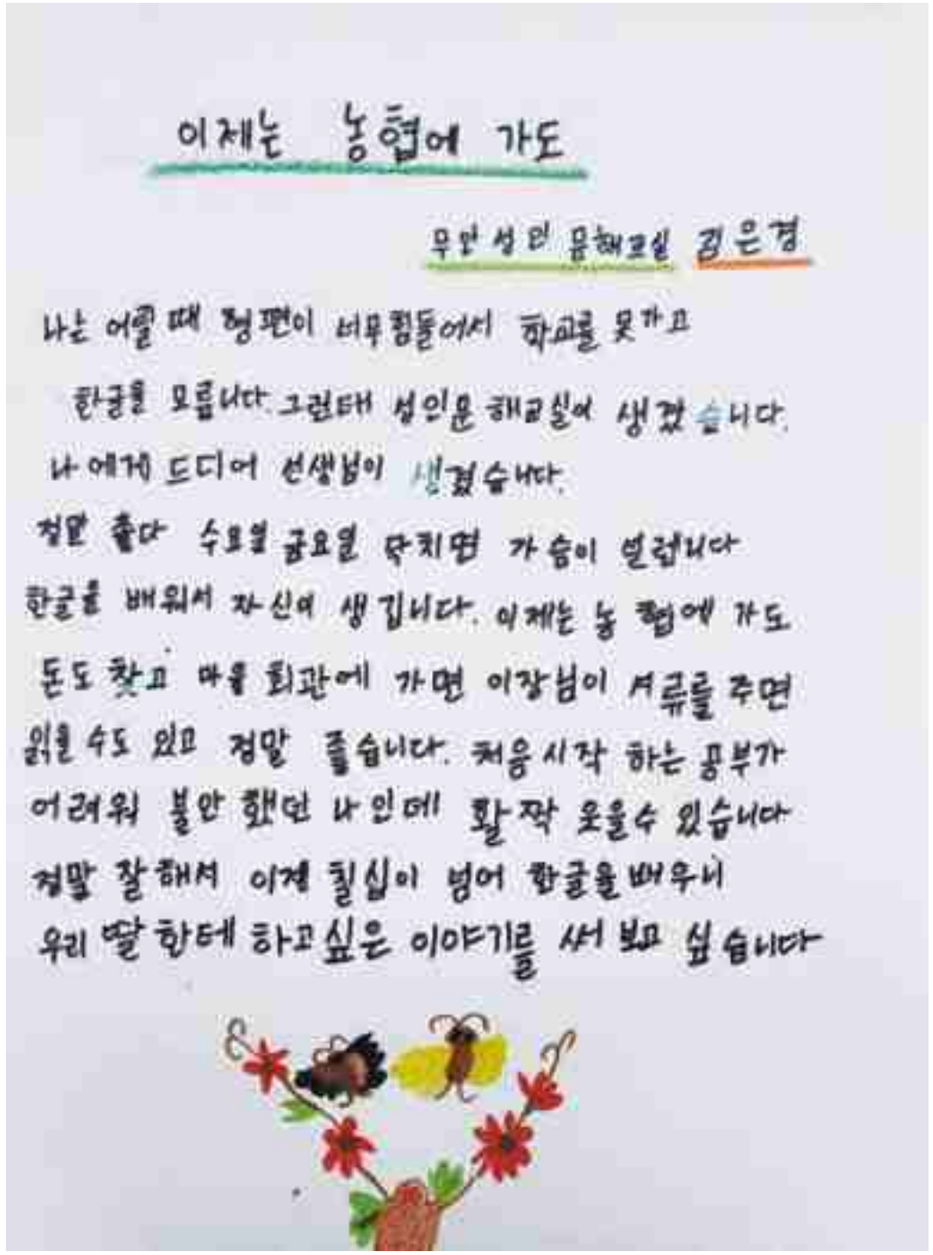


행복

소라종합사회복지관
서연심 | 76세

젊어서 한글을 배우지 못하고 집이
가난해서 자식들 납부금 돈 버느라고
바빴는데 한글을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중앙시장가서 옷 사고,
시장에 가서 장보고, 마트에서 쇼핑하고,
이제라도 한글을 배워서 너무 즐겁고
매주 공부하는 날을 기다리며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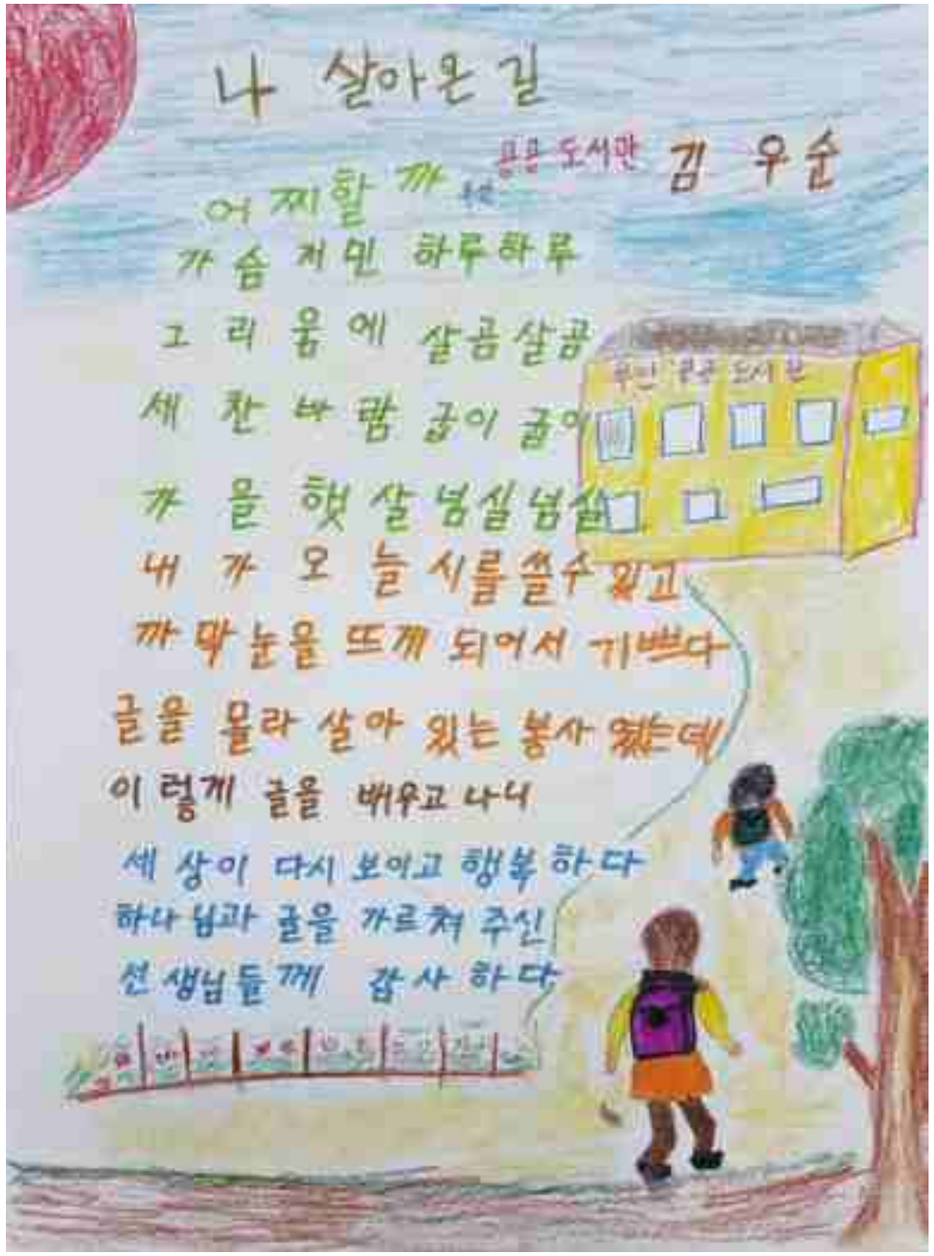


이제는 농협에 가도

무안공공도서관
김은경 | 72세

나는 어릴 때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못가고
한글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인문해교실이 생겼습니다.
나에게 드디어 선생님이 생겼습니다.
정말 좋다 수요일, 금요일 닥치면 가슴이 설렙니다
한글을 배워서 자신이 생깁니다. 이제는 농협에 가도
돈도 찾고 마을 회관에 가면 이장님이 서류를 주면
읽을 수도 있고 정말 좋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공부가
어려워 불안했던 나인데 활짝 웃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잘해서 이제 칠십이 넘어 한글을 배우니
우리 딸한테 하고싶은 이야기를 써 보고 싶습니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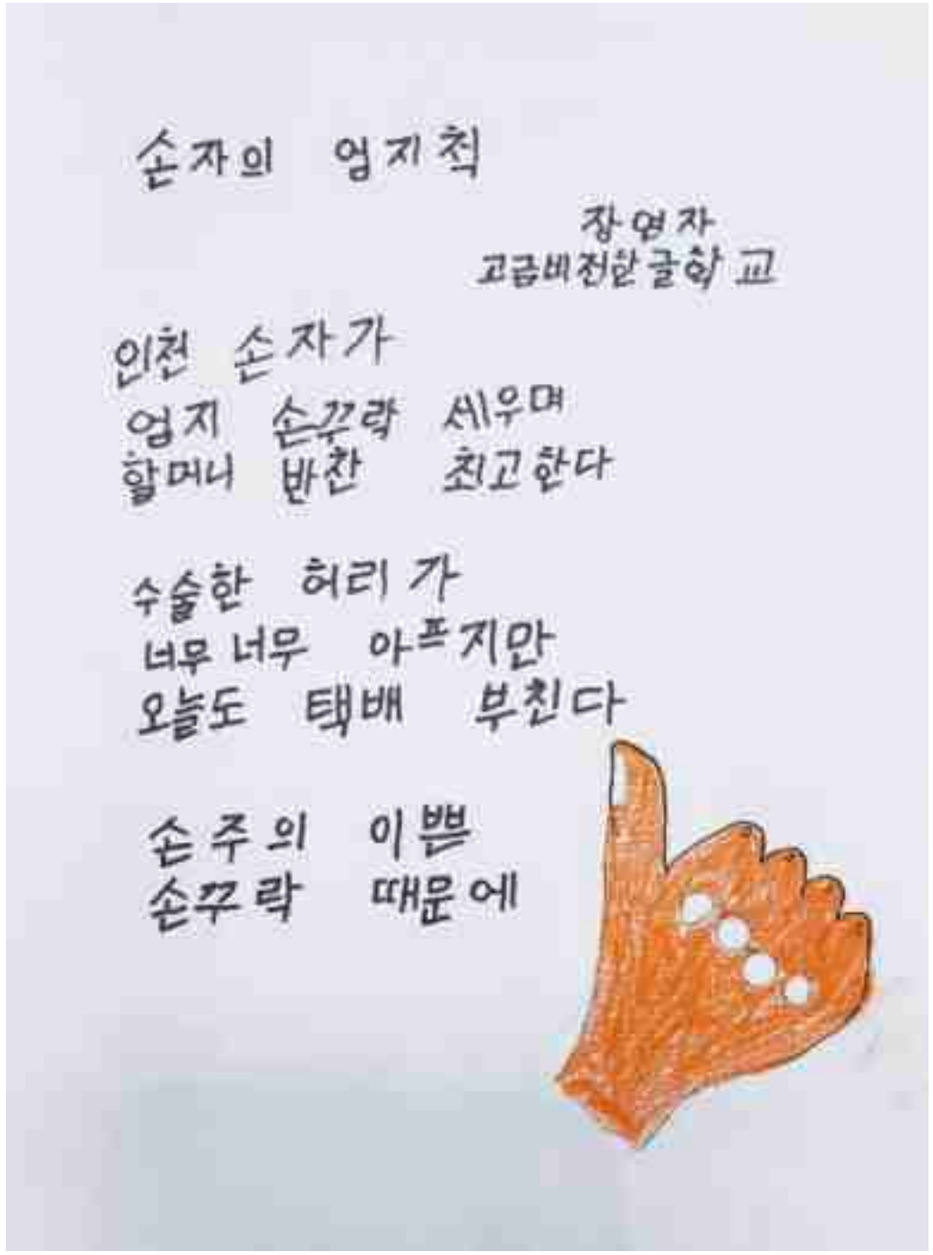


나 살아온 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작은도서관
김우순 | 79세

어찌할까
가슴저민 하루하루
그리움에 살곰살곰
세찬바람 굽이굽이
가을햇살 넘실넘실
내가 오늘 시를 쓸 수 있고
까막눈을 뜨게 되어서 기쁘다
글을 몰라 살아 있는 봉사였는데
이렇게 글을 배우고나니
세상이 다시 보이고 행복하다
하나님과 글을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손자의 엄지척

고금비전한글학교
장연자 | 70세

인천 손자가
엄지 손꾸락 세우며
할머니 반찬 최고한다

수술한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지만
오늘도 택배 부친다

손주의 이쁜
손꾸락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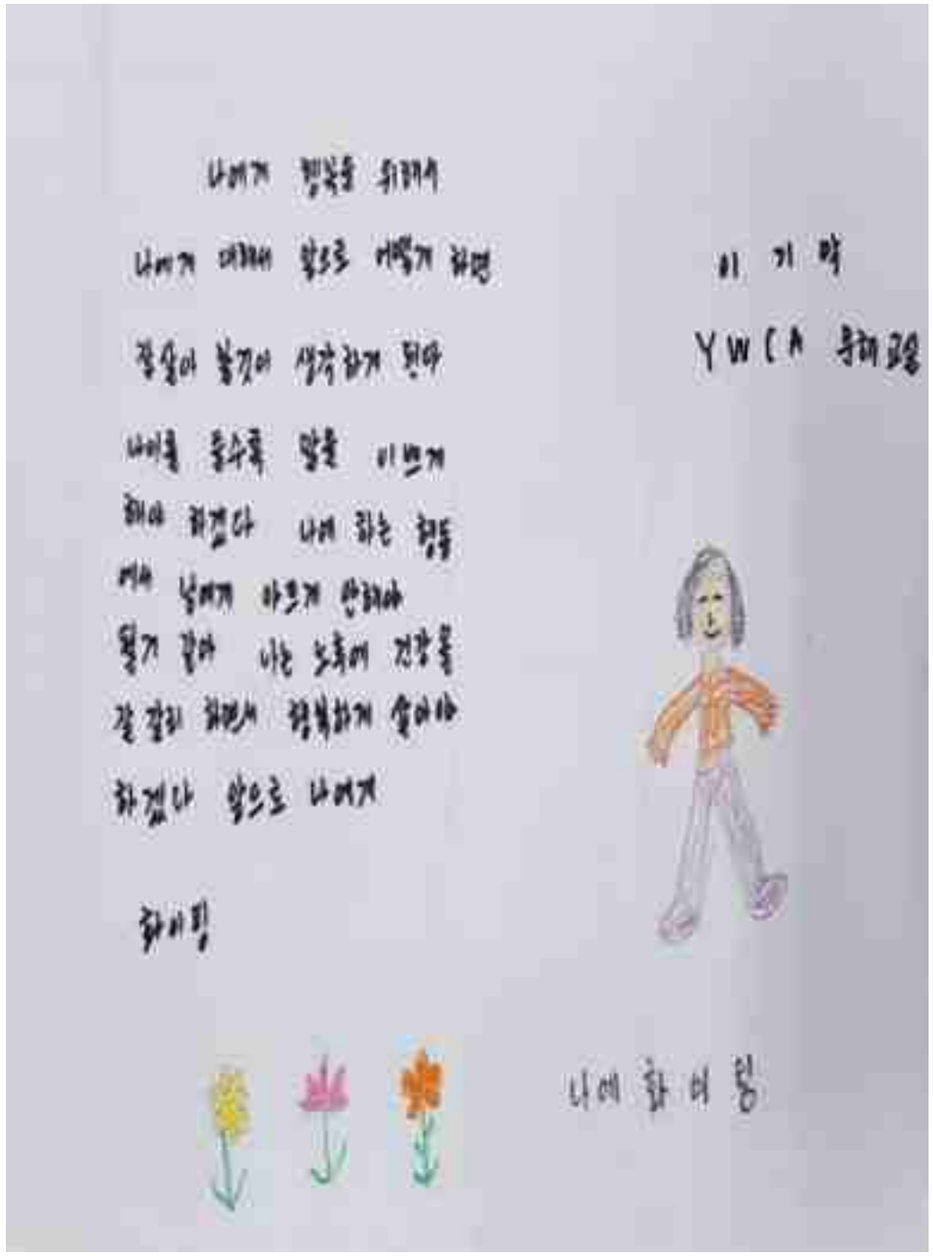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고목나무

목포공공도서관
김순임 | 84세

못 배운 한으로
중년까지 학교 가는 꿈을 꾸었는데
이제는 꿈도 없이
고목이 되는 내 삶을
돌아본다
하지만
고목도 싹이 나는 것을 보면서
소망을 찾을 수 있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흘려버리지만
그래도 나물이 자람같이
우리의 배움도 그와 같이
자랄 것입니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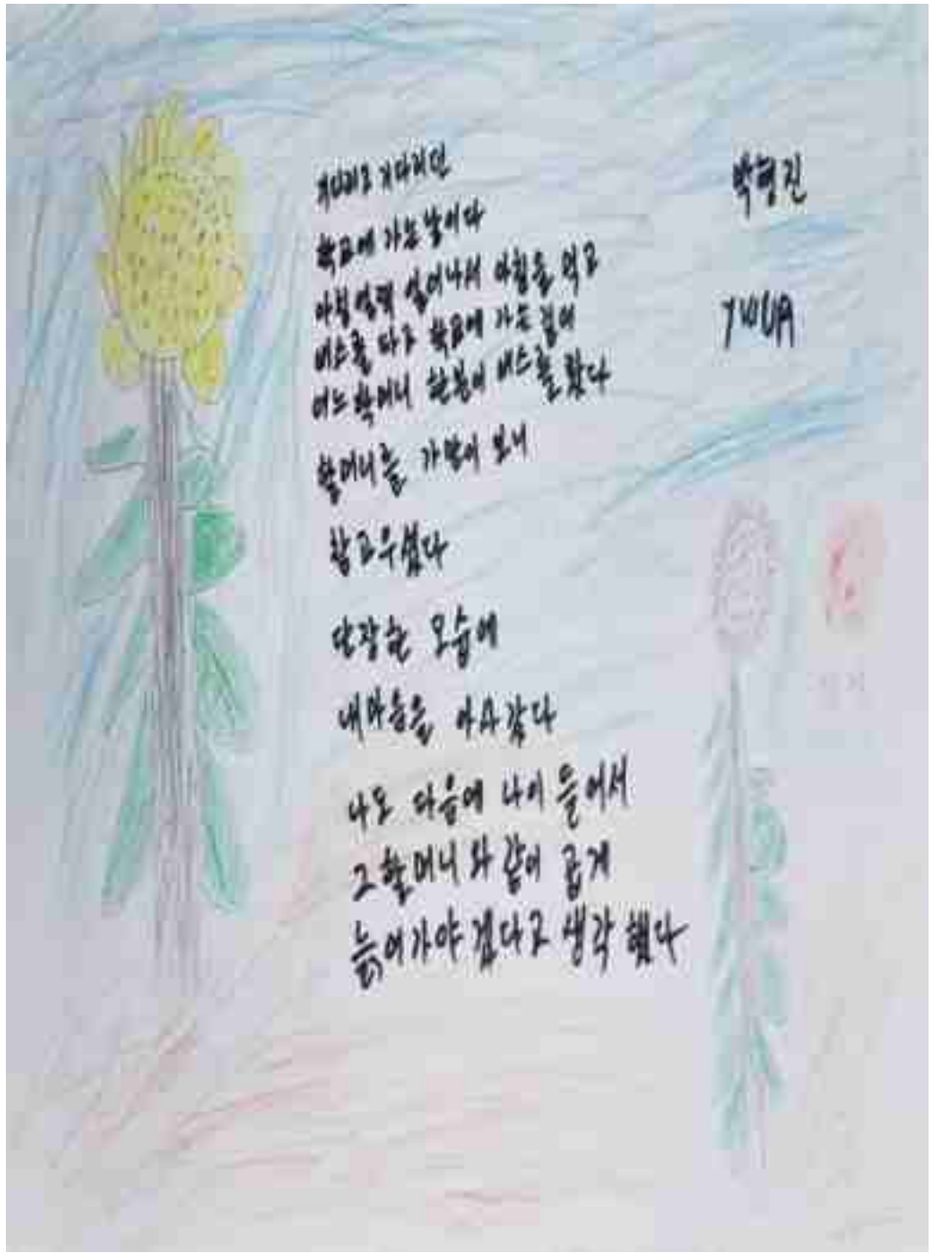


나에게 화이팅

(사) 여수YWCA
이기막 | 63세

나에게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살아 볼것이 생각하게 된다
나이를 들수록 말을 이쁘게
해야 하겠다 나에 하는 행동
에서 남에게 아프게 안해야
될거 같아 나는 노후에 건강을
잘 갈리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겠다 앞으로 나에게
파이팅!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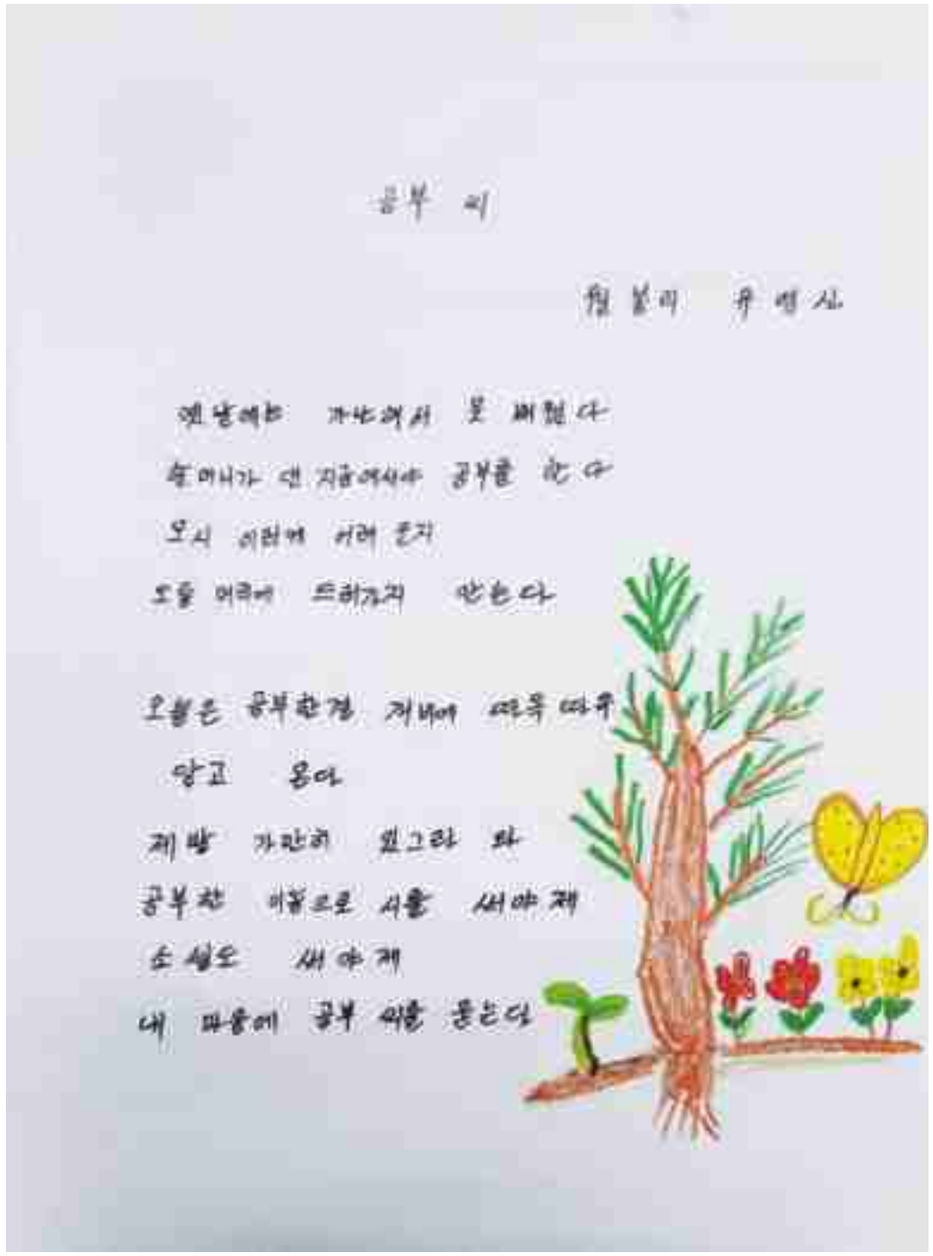


학교 가는 길

(사) 여수YWCA
박형진 | 68세

기다리고 기다리던
학교에 가는 날이다
아침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 길이
어느 학머니 한분이 버스를 탔다
할머니를 가만이 보니
참 고우셨다
단장한 모습에
내 마음을 아사갔다
나도 다음에 나이 들어서
그 할머니와 같이 곱게
늙어가야겠다고 생각 했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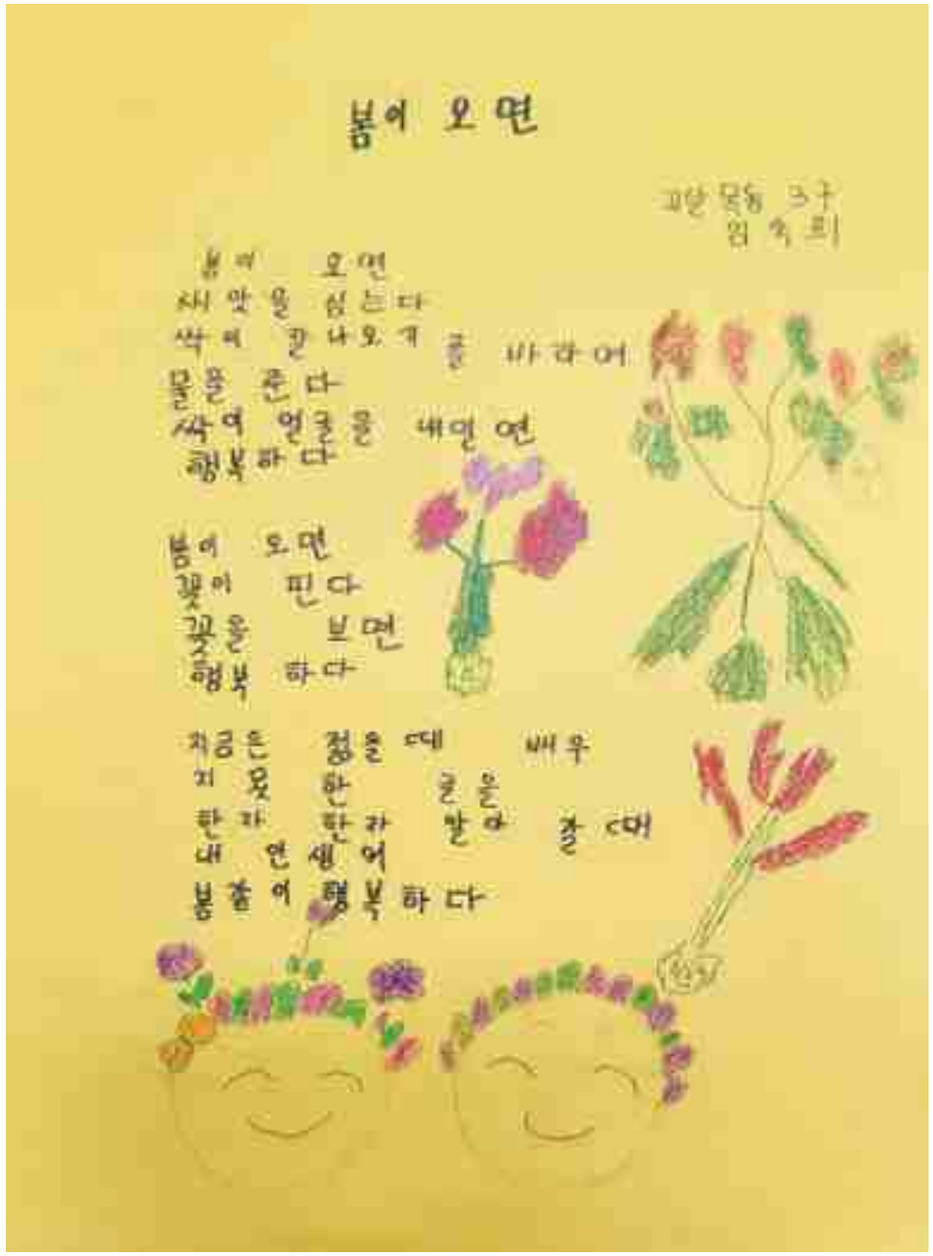


공부 씨

곡성군청
유영신 | 75세

옛날에는 가난해서 못 배웠다
할머니가 댄 지금에서야 공부를 한다
모시 이렇게 어려운지
도통 머리에 드러가지 않는다
오늘은 공부한걸 개비에 따독따독
담고 온다
제발 가만히 있으라 와
공부한 이동으로 시를 써야게
소설도 써야제
내 마음에 공부 씨를 묻는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봄이 오면

곡성군청
임숙희 | 66세

봄이 오면
씨앗을 심는다
싹이 잘 나오기를 바라며
물을 준다
싹이 얼굴을 내밀면
행복하다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꽃을 보면
행복 하다

지금은 젊을 때 배우
지 못한 글을
한자 한자 알아 갈 때
내 인생의
봄같이 행복하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봄을 기다리는 내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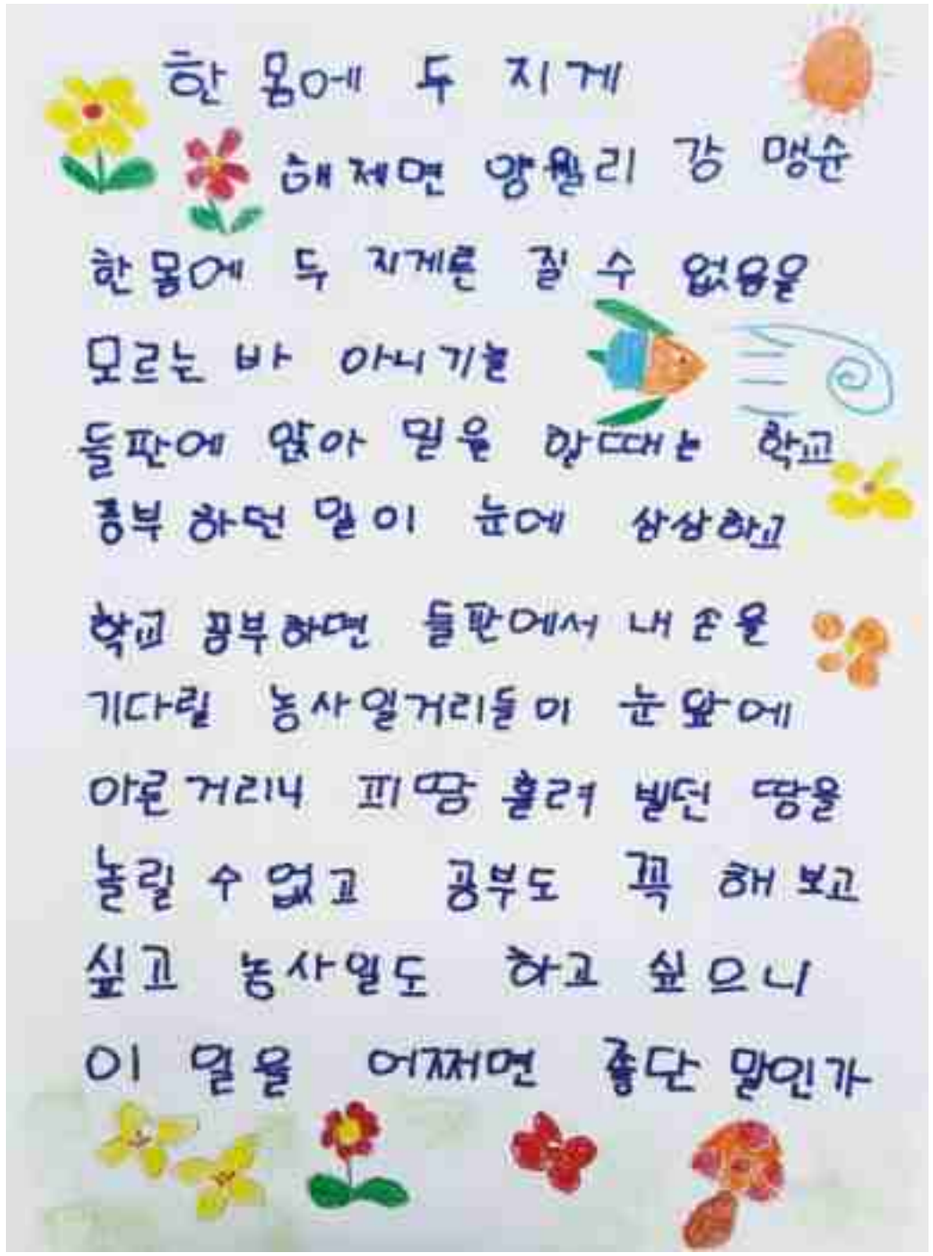
영암군 왕인문해학교
김연례 | 77세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항상 즐겁고 기쁩니다.
농부들에게 바쁜 일손처럼 내 마음도 함께 바쁘지요

가방을 메고 나는 학교에 갑니다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낱말에 꽃을
피우다 보니 벌써 졸업한대요

난 앞으로 중학교에 갈수있대요
설레는 마음 꽃이 피었습니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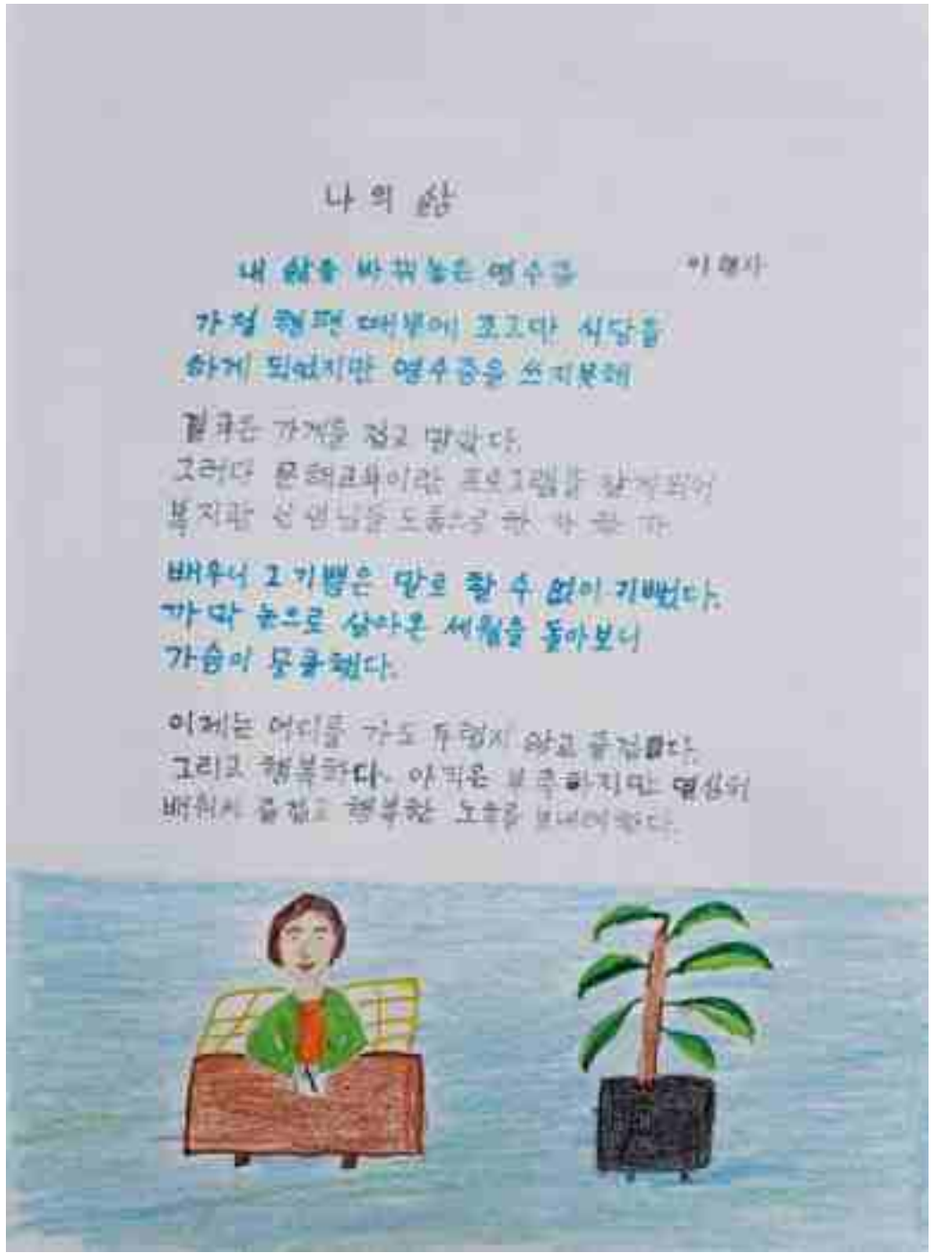
한 몸에 두 지게

무안군 여성농어업인센터
강맹순 | 75세

한몸에 두 지게른 질 수 없음을
모르는 바 아니기를
들판에 앉아 일을 할때는 학교 공부하던 일이 눈에 상상하고

학교 공부하면 들판에서 내 손을
기다릴 농사일거리들이 눈앞에
아른거리니 피땀 흘려 빌던 땅을
놀릴 수 없고 공부도 꼭 해보고
싶고 농사일도 하고 싶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말인가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나의삶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이행자 | 76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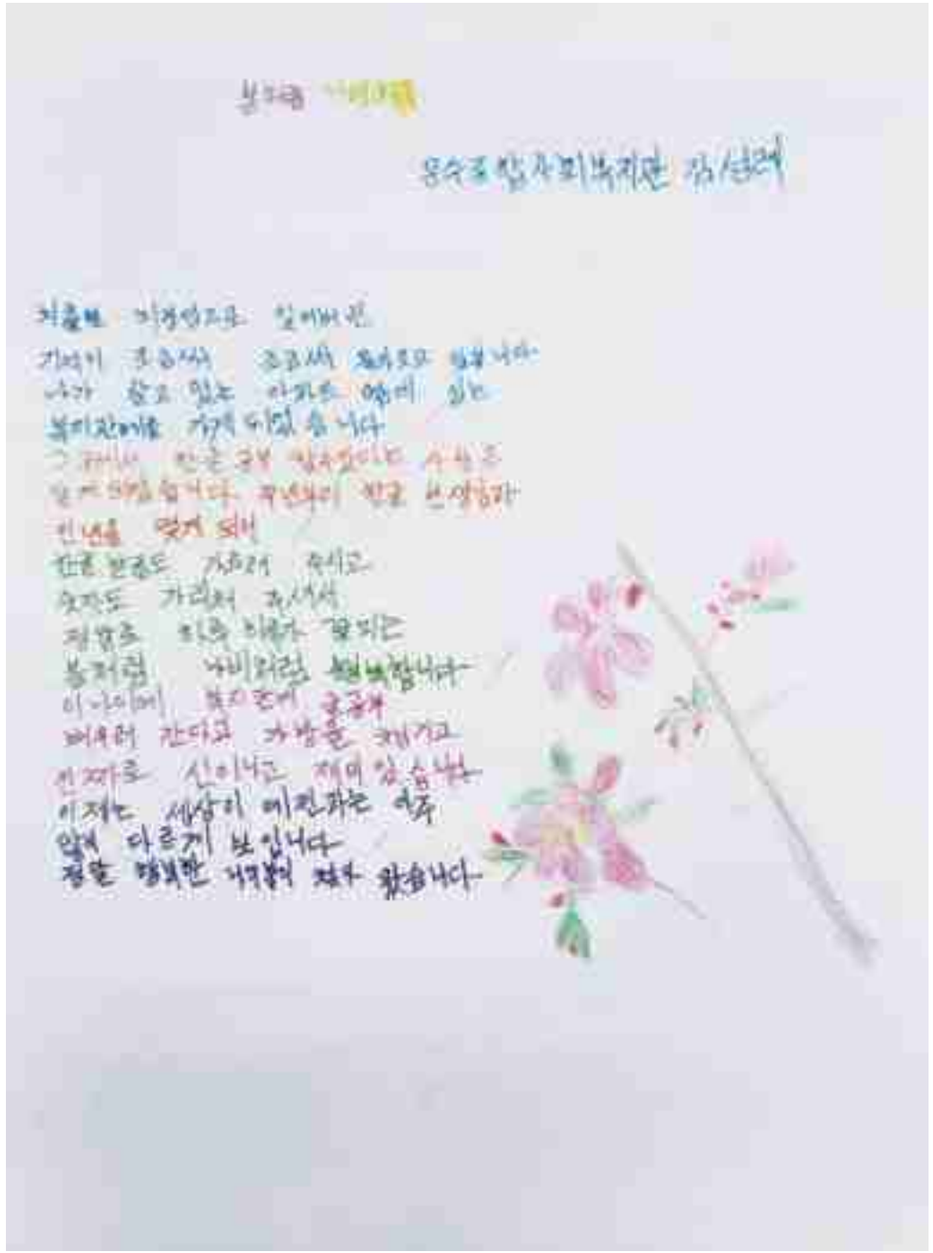
내 삶을 바꿔놓은 영수증
가정 형편 때문에 조그만 식당을
하게 되었지만 영수증을 쓰지못해

결국은 가게를 접고 말았다.
그러다 문해교육이란 프로그램을 알게되어
복지관 선생님들 도움으로 한자 한자

배우니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이 기뻤다.
까막 눈으로 살아온 세월이 돌아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이제는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고 즐겁다
그리고 행복하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워서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한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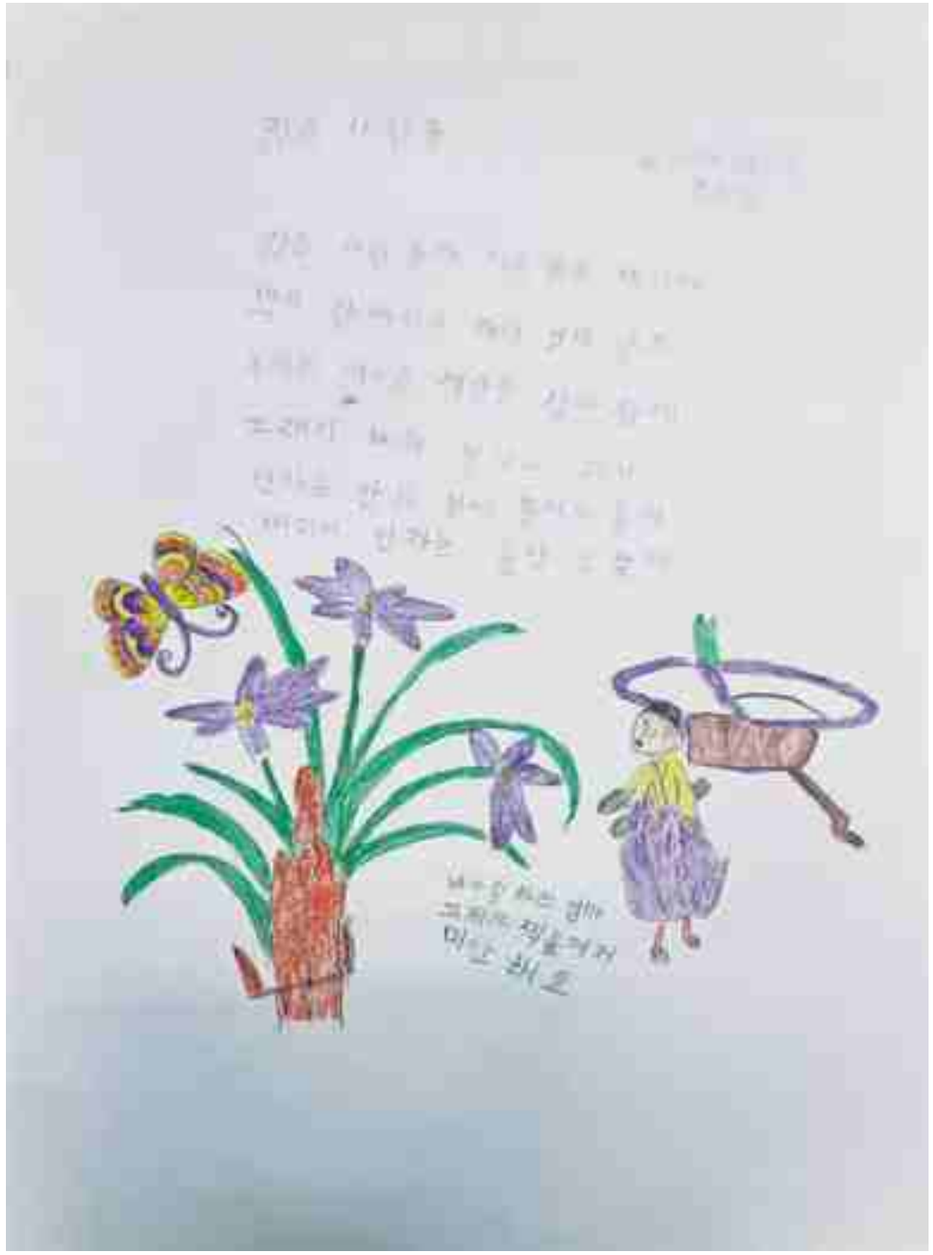


봄처럼 나비처럼

문수종합사회복지관
김성례 | 75세

뇌출혈 뇌경색으로 잊어버린
기억이 조금씩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나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있는
복지관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글 공부 할수있다는 사실은
알게되었습니다닥년부리 하늘 선생님과
인연을 맺게 되어
한글 받침도 가르쳐 주시고
숫자도 가르쳐 주셔서
정말로 하루하루가 꽃피는
봄처럼 나비처럼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복지관에 글공부
배우러 간다고 가방을 챙기고
진짜로 신이나고 재미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예전과는 아주
많이 다르게 보입니다
정말 행복한 나의 봄이 찾아 왔습니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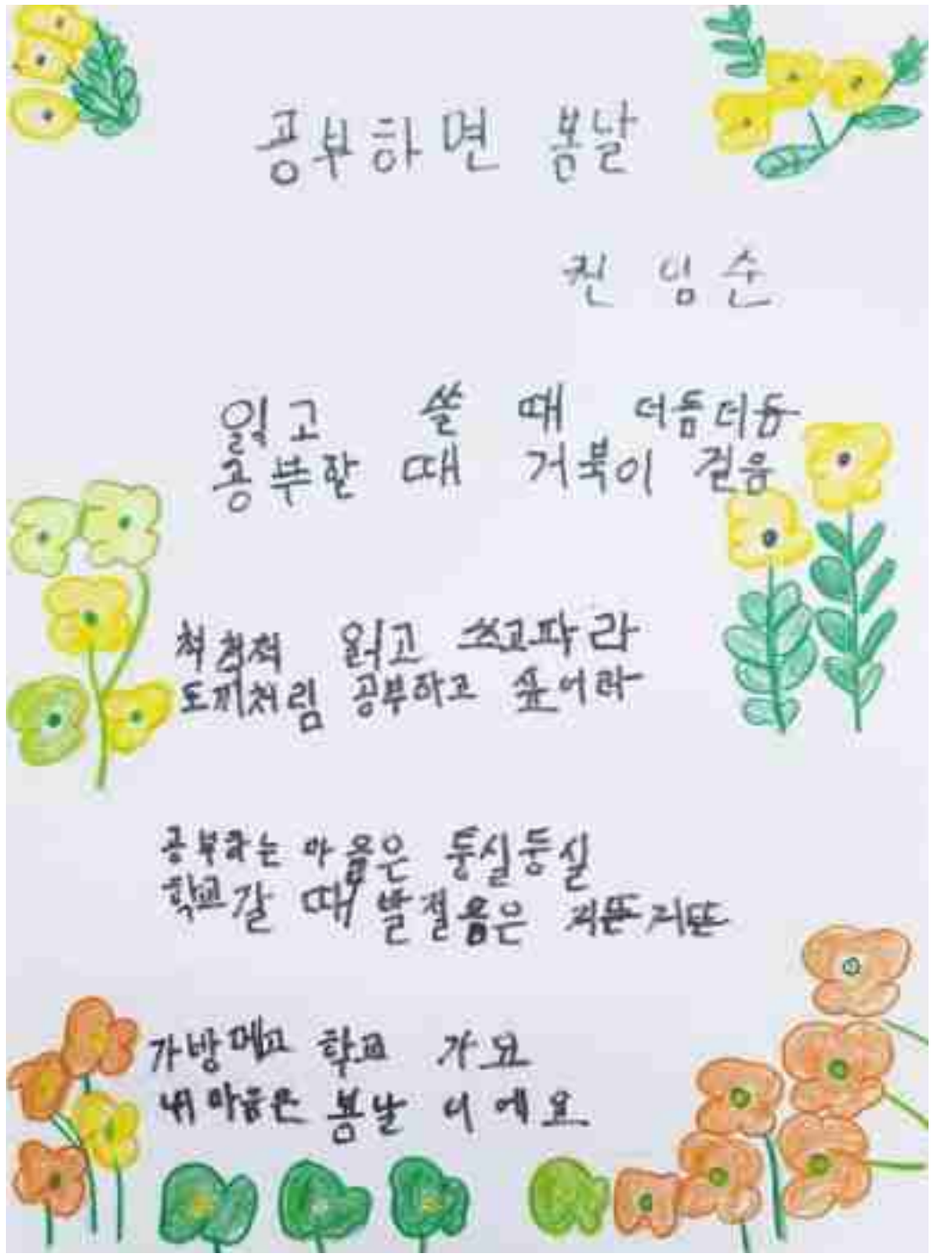


젊은 사람들

여수시노인복지관
조윤엽 | 77세

젊은 사람들아 이리 좋은 세상에
많이 잘 배워서 재미있게 살소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살아왔네
그래서 배워 볼라고 하니
인자는 안되겄네 들어도 흘려
버리니 인자는 끝난 것 같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공부하면 봄날

담양군청
권임순 | 81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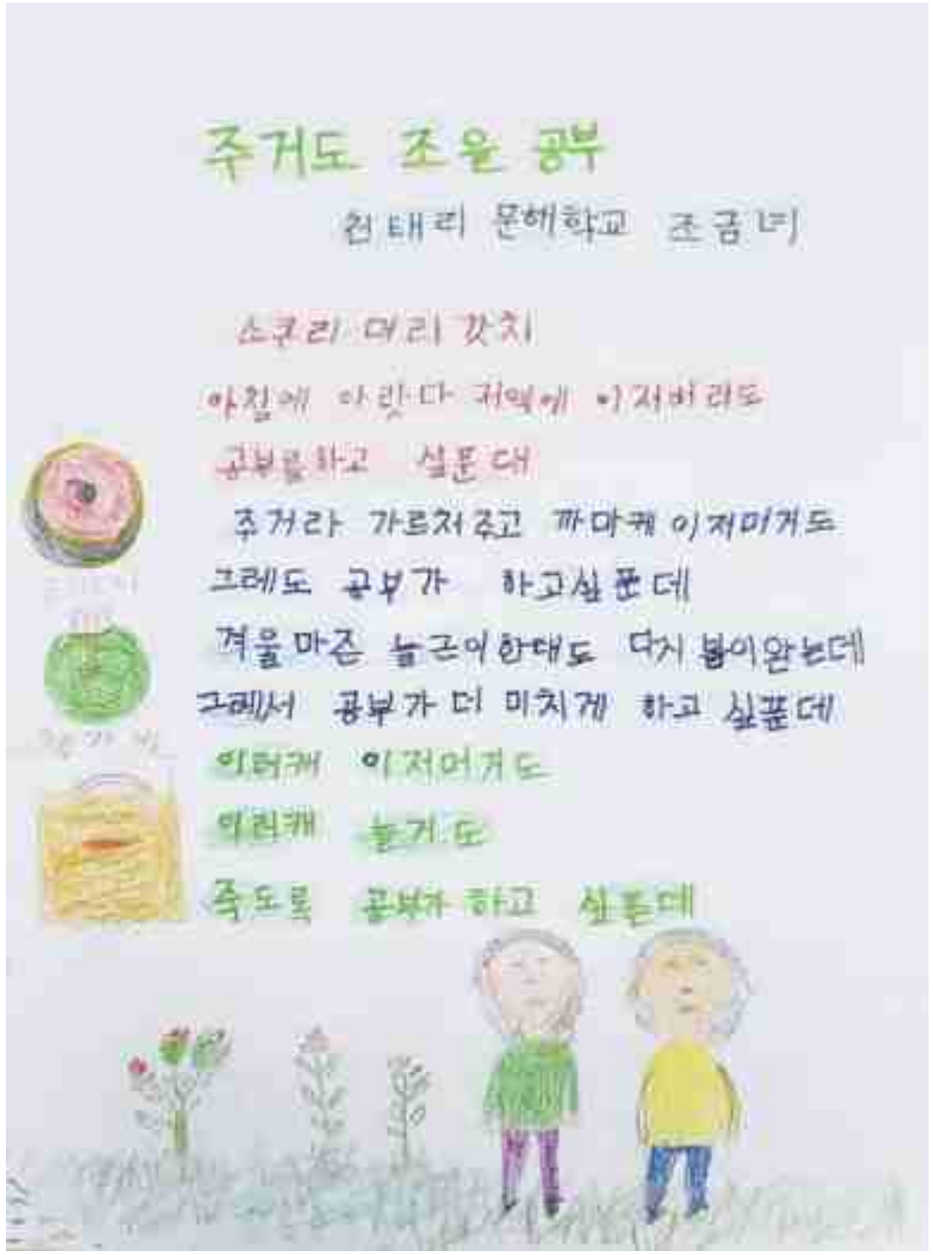
읽고 쓸 때 더듬더듬
공부할 때 거북이 걸음

척척척 읽고 쓰고파라
토끼처럼 공부하고 싶어라

공부하는 마음은 둥실둥실
학교갈 때 발걸음은 거뜬거뜬

가방메고 학교 가요
내 마음은 봄날이에요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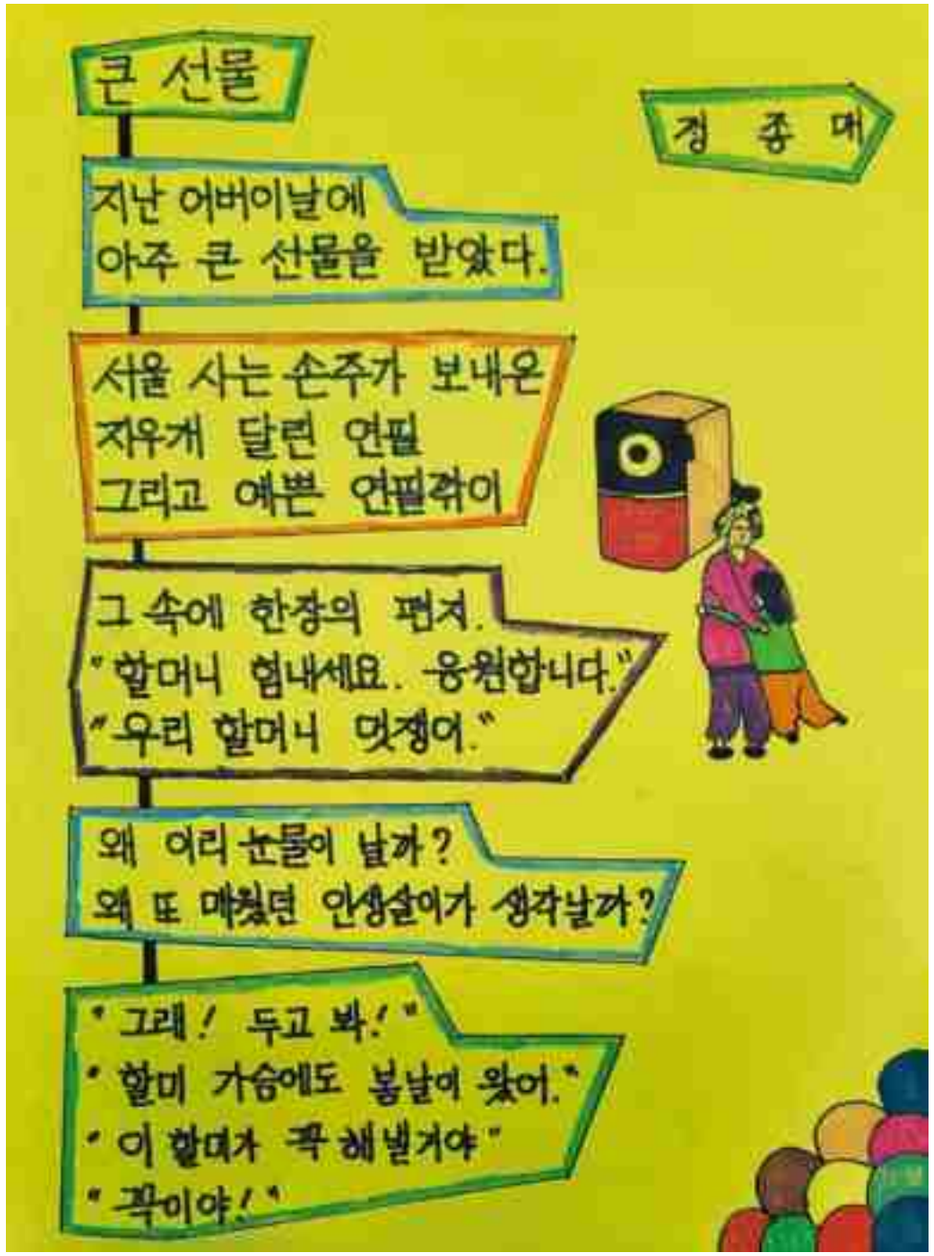


주거도 조을 공부

화순군청
조금녀 | 90세

소쿠리 머리갓치
아침에 알았다 저녁에 잊어버려도
공부를 하고 싶은데
죽어라 가르쳐주고 까맣게 잊어버려도
그래도 공부가 하고싶은데
겨울마즌 늙은이한테도 다시 봄이왔는데
그래서 공부가 더 미치게 하고싶은데
이렇게 잊어먹어도
이렇게 늙어도
죽도록 공부가 하고 싶은데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큰 선물

섬사랑 평생교육원
정종매 | 74세

지난 어버이날에
아주 큰 선물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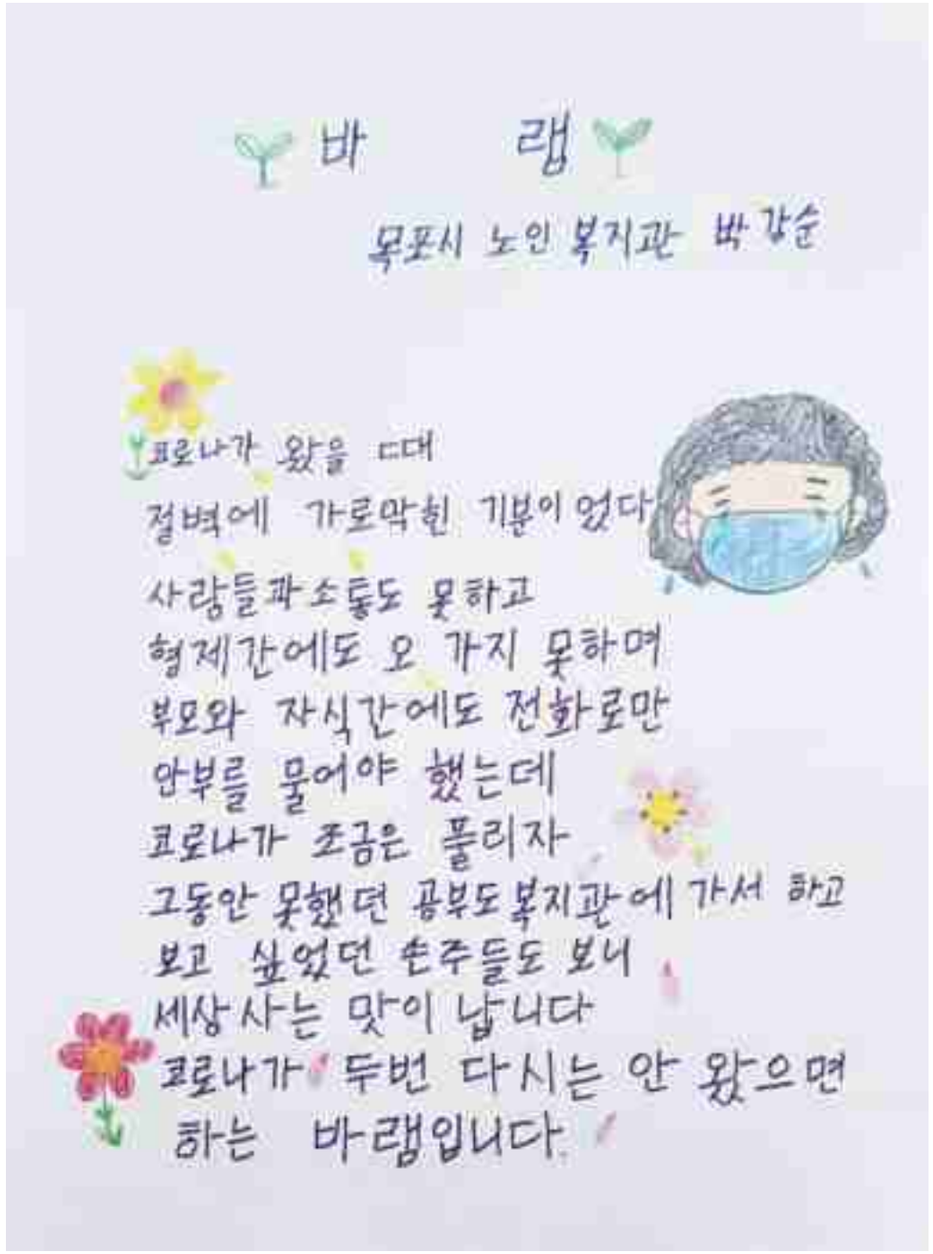
서울 사는 손주가 보내온
지우개 달린 연필
그리고 예쁜 연필깎이

그 속에 한 장의 편지
“할머니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우리 할머니 멋쟁이.”

왜 이리 눈물이 날까?
왜 또 매웠던 인생살이가 생각날까?

“그래! 두고 봐!”
“할미 가슴에도 봄날이 왔어.”
“이 할미가 꼭 해낼거야”
“꼭이야!”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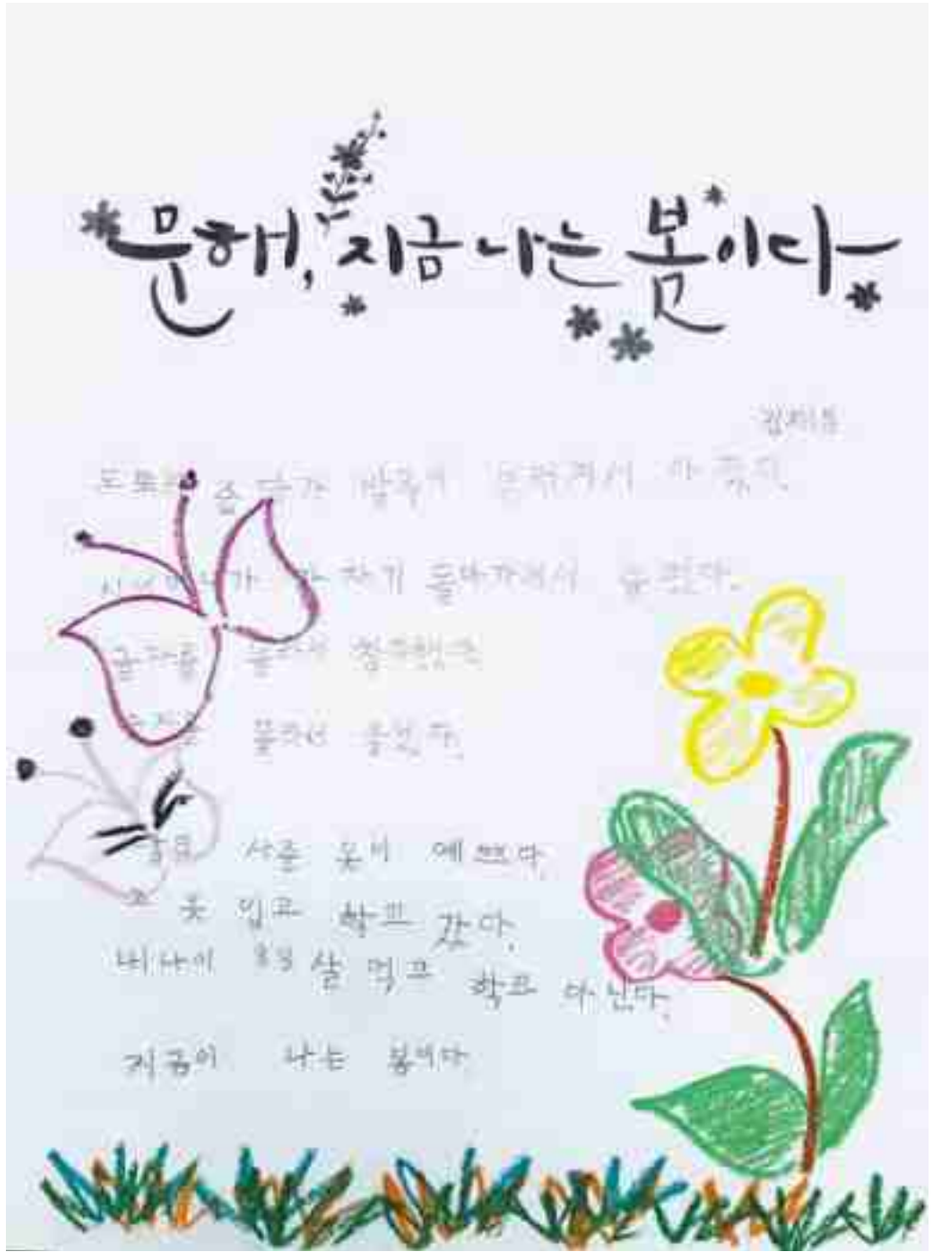


바램

목포시노인복지관
박강순 | 76세

코로나가 왔을 때
절벽에 가로막힌 기분이었다
사람들과 소통도 못하고
형제간에도 오가지 못하며
부모와 자식간에도 전화로만
안부를 물어야 했는데
코로나가 조금은 풀리자
그동안 못했던 공부도 복지관에 가서 하고
보고 싶었던 손주들도 보니
세상사는 맛이 납니다
코로나가 두 번다시는 안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진흥원장상



문해, 지금 나는 봄이다

홍지중 · 고등학교
정채임 | 84세

도토리 줍다가 발목이 부러져서 아팠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슬펐다.
글자를 몰라서 창피했다.
숫자를 몰라서 울었다.

딸이 사준 옷이 예쁘다.
그 옷 입고 학교 갔다.
내 나이 83살 먹고 학교 다닌다.
지금이 나는 봄이다.